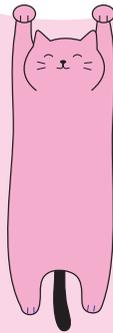


How to Level Up

권지수 교육학
합격
가이드북



차례

PART I

교육학 논술시험 후기

1. 최종합격 교육학 논술 후기 ... 6
2. 교육학 논술 20점 만점 후기 ... 14
3. 중등임용 합격 후기 ... 26

PART II

2027학년도 권지수 교육학 논술 연간 강의안내

1. 100% 적중신화의 탁월한 만점전략 ... 58
2. 2027학년도 권지수 교육학 논술 연간 강의안내 ... 59

PART III

중등임용 시험일정 및 출제범위

1. 제1차 시험 ... 62
2. 제2차 시험 ... 63
3. 지역별 제2차 시험 ... 64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광주 / 강원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

PART IV

2013~2026학년도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분석

1.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분석 ... 74
2. 교육학 영역별 출제경향 분석 ... 77

PART
V

교육학 논술 탁월한 만점전략 ⑤

- 1. 탁월한 만점전략 1 : 공부방법을 알아야 한다 ... 80
- 2. 탁월한 만점전략 2 : 암기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 81
- 3. 탁월한 만점전략 3 : 교육학 논술 출제의 5대 원칙 ... 83
- 4. 탁월한 만점전략 4 : 교육학 논술 공부의 5대 원칙 ... 85
- 5. 탁월한 만점전략 5 : 교육학 논술 스키마 획득 ... 88

PART
VI

2026 ~ 2018 교육학 논술 적중자료 및 기출분석

- 1. 2026 교육학 논술 적중자료 및 기출분석 ... 92
- 2. 2025 교육학 논술 적중자료 및 기출분석 ... 98
- 3. 2024 교육학 논술 적중자료 및 기출분석 ... 107
- 4. 2025 교육학 논술 적중자료 및 기출분석 ... 118
- 5. 2022 교육학 논술 적중자료 및 기출분석 ... 127
- 6. 2021 교육학 논술 적중자료 및 기출분석 ... 135
- 7. 2020 교육학 논술 적중자료 및 기출분석 ... 146
- 8. 2019 교육학 논술 적중자료 및 기출분석 ... 154
- 9. 2018 교육학 논술 적중자료 및 기출분석 ... 162

PART
VII

교육학 논술 Thinking Map

- 1. 교육과정 Thinking Map ... 172
- 2. 교육심리학 Thinking Map ... 173
- 3. 교육공학 및 교육방법 Thinking Map ... 175
- 4. 교육평가 Thinking Map ... 177
- 5. 교육행정학 Thinking Map ... 179
- 6. 생활지도와 상담 Thinking Map ... 182
- 7. 교육사회학 Thinking Map ... 184
- 8. 교육철학 Thinking Map ... 186

권지수 교육학

합격
가이드북

PART

I

교육학 논술시험 후기

1. 최종합격 교육학 논술 후기
2. 교육학 논술 20점 만점 후기
3. 중등임용 합격 후기

📁 권지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 수석입니다.

ID: YeoOO

교수님 1년 커리큘럼 수강했던 직장생입니다. 지난 하반기에 병원 퇴사 후 이론을 이해하더라는 심정으로 기본이론반만 인강 듣고 적응률 100%로 교육학 얼떨떨하게 19.33 이 나와서 이번 수험생활의 시작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교수님의 이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명과 구조화가 정말 저와 잘 맞았었고, 청킹으로 공부를 해본 적 없던 제가 청킹의 매력을 느끼며 긴 수험생활을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시험은 다소 시험장에서 시험지 받자마자 당황스럽고 어렵다고 느껴졌으나, 교수님 직강모고반에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문제지로 답안작성연습을 꾸준히 해왔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형 문제 전략, 제시문 분석 방법 등등 모든 전략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수석합격이 가능했습니다.

교수님을 통해 교육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고, 강의 중간중간 해주시는 동기부여의 말씀이 큰 힘이 되어 긴 수험생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가족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수님 덕에 20점으로 최종합격 했습니다. 차석 합격, 감사합니다.

ID: 가자O

과목	점수	취업지원가산점	환산점
교육학	20.00	0.00	20.00

초수 때 교수님 강의를 듣고 19점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20점으로, 차석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

교수님 강의가 아니었다면 두번 연속 교육학 고득점 맞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이 어렵긴 했지만 교수님 가르침대로 했더니 나온 점수라 생각합니다.

늘 강의를 통해 교수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저도 덩달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교수님의 마음이 인강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초수 때부터 꼭 합격 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수님 감사합니다! 초수에 교육학 20점 만점으로 경기 최종합격했습니다.

ID: DANOO

교수님 덕분에 초수임에도 교육학 만점으로 최종합격했습니다.

1월부터 교육학 18점만 넘길 기도하며 공부했는데, 만점이라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교육학 시험지를 보며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 주신 '제시문 속에 답이 있다!'를 생각하며 분석했습니다.

CAT는 잘 모르는 부분이었지만, 역시 제시문을 분석하며 학생의 능력에 따른 맞춤형 평가임을 유추하여 작성했습니다.

교수님이 오픈형 문제 대비 전략, 제시문 분석 방법 등을 가르쳐주신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교수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재임용 성공했습니다. 20점 만점 감사합니다

ID: 0900

과목	점수	취업지원가산점	합산점	과락?
교육학	20.00	0.00	20.00	

2020년 코로나 시절 교수님 직강을 듣고 시험 정 함격하고, 3년 만에 다시 공립에 도전했는데, **교육학 20점 만점으로 덕분에 구사일생해서 재임용 성공했습니다.**

재임용 준비하면서 그리고 헌직에 있으면서도 오픈형 사고방식과 전략, 제시문 분석 방식을 비롯한 교수님의 빅픽처 수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어서 교육학 공부는 4년 전이 마지막이었는데,

작년 온라인 수업 상호작용 문제와 같은

사고방식은 교수님의 수업 중 오픈형 사고방식 덕분에 바로 답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교수학습의 3요소 학생, 교사, 학습요소

이렇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교수님 수업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4년 전 직강 때 상담도 받고 그랬었는데...

따뜻하게 상담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4수만에 합격했는데 교수님 덕분에 교육학이 항상 저의 효자(?)과목이었습니다!
 초수 때는 다른 강사님 수업을 들었는데, 추상적인 교육학 이론을 학교현장과 연결 짓지 못하다보니 결국 15.33점이라는 아쉬운 점수를 받았어요..
 시험 공부에 있어 강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교재라는 깨달음을 얻고 재수 때는 제가 살펴본 교재 중 가장 좋았던 권지수 교수님의 수업으로 같이봤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 추상적인 이론을 학교 현장과 연결지어 주셔서 교육학의 큰 그림까지 그릴 수 있었고, 문제가 묻는 범위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재수 19점, 삼수 19.33점, 사수 19.67점이라는 상승곡선을 그리는 점수들만 받았습니대!

이번 24학년도 교육학 시험이 어려웠는데 저는 재수 때 교수님의 7-8월, 9-11월 모의고사 강의를 꼼꼼히 들으며 배운 모르는 문제를 대하는 스킬들을 활용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게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교수님처럼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게요!!

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온라인 교직원 채용 | 중등교원 | 시도교육청 선택 로그아웃 ::

서울특별시교육청 | 임용공고 | 원서접수 | 마이페이지 | 임용후보자 | 공지사항 | 자주묻는질문

성적조회

응시 시험을 선택 후 성적 조회를 해주세요.

응시시험: 2024학년도 [공 사립 통시시험]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 성적조회

필기성적

1차 시험성적	88.670
2차 시험성적	
1차위업지원가산점	0.000
2차위업지원가산점	0.000
총성적	
순위	

	원수	위업지원가산점	합산점	과목점수	과목여부	결시
교육학	19.67	0.00	19.67	8.00	N	N
한글과목	69.00	0.00	69.00	32.00	N	N
교수학습지도안작성				0.00	N	N
수업실연				0.00	N	N
외국어				0.00	N	N

📁 교수님 덕분에 초수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ID: 핑구O



합격조회

2024학년도 [공.사립 동시지원]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보건

응시시험 2024학년도 [공.사립 동시지원]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보건

합격확인 (응시번호 :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보건 합격생입니다.

학부시절 교육학을 어려워했는데 교수님의 1년 커리큘럼을 믿고 그대로 따라간 덕분에 내용 이해, 암기를 바탕으로 합격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에 교육학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출제되어 당황도 하였지만 교수님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최대한 노력해서 답안을 작성하여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강으로 수강하였지만 강의 중간 중간마다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며 참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늘 변치 않는 좋은 강의 해주시고, 건강하세요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 교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서울 초수 합격 했습니다.

ID: 정검○



교육직	과목	점수	취업지원가산점	합산점	과목점수	과목여부	결시
		19.00	0.00	19.00	8.00	N	N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육학 19점으로 고득점 받아 덕분에 올해 학생 초수로 합격했습니다.

1-2월 강의로 6월까지 쭉 이론 복습하고, 7-11월은 모의고사로 무한 회독 반복했습니다.

올해 문제가 많이 난해했지만, 교육학에서 공부했던 여러 이론과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모르는 문제여도 최대한 써보는 점 덕분에 고득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ㅎㅎ

특히 모의고사로 실전 감을 익힐 수 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강의 중 항상 응원해주시고 복돋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은 설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구 최종합격했습니다. ^^

ID: 버O

올해 교수님 하반기 패키지 강의 들었는데, 원하던 지역에 최종합격 했습니다. (ㅠㅠ)

n수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이 탄탄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는데,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오픈형 시험에 대한 감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공점수가 잘 나오지 못했지만 교육학 점수 덕에 1차에서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대구광역시교육청

임용공고

원서접수

마이페이지

임용후보자

공지사항

자주물론질문

필기성적

1차 시험성적	9
2차 시험성적	9
1차취업지원가산점	0.000
2차취업지원가산점	0.000
총성적	9

과목	점수	취업지원가산점	합산점	과락점수
교육학	19.67	0.00	19.67	
전공과목	9	0.00	9	
심층면접	9	0.00	9	
수업실연	9	0.00	9	

📁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교육학 매년 점수 올랐어요. 교육학 20점 만점 합격

ID: 정○○

1차 시험성적	89.000
1차취업지원가산점	0.000
기타가산점	0.000
대학성적	0.000
총성적	89.000

과목	점수	취업지원가산점	합산점	과목점수
교육학	20.00	0.00	20.00	
전공과목	69.00	0.00	69.00	

4번째 도전생입니다.

2년차 부터 교수님 강의 들어서 매년 점수가 올랐네요.

1년차 15

2년차 17

3년차 19.67

4년차 20

올해 문제가 난해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자체는 생소했지만 평소 강의에서 배운 에듀테크 내용 들 활용해 어려웠던 2,3번째 논점 오픈형으로 작성했습니다. 채점 운이 따랐는지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올해 일 병행하며 토요일 전공, 일요일 교육학 직강으로 힘들게 생활했는데 보람이 있네요.

📁 교수님 감사합니다! 초수 20점 만점 합격

ID: La○○○

과목	점수
교육학	20.00

아무것도 모르던 임고 초수생.

교수님 강의 따라가면서 교육학 만점 받고 1차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수님 감사합니다.

ID: 강○○

과목	점수
교육학	19.33

교육학 덕분에 1차 붙었어요!

전공이 칼채한 것보다 1점 낮게 나왔는데 교육학이 잘 나와서 컷으로 합격했어요.

추수인데 교육학 풀면서 기출들이랑 너무 방향이 달라서 당황했지만 교수님 모의고사 풀던 대로, 피드백 받았던 것들 생각하면서 내가 어려워면 남들도 다 어렵다 생각하면서 차분히 쓰려고 노력했는데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 교수님 덕분에 1차 추수 합격했어요!

ID: angel○○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 딱 10년 된, 올해 임용에 첫 도전한 비교과 추수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1차 합격했습니다.

대학생 때 교직 이수를 하며 처음 접한 교육학이 저에게는 너무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졌고..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져서 그동안 임용고시에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 후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타강사님의 인강을 들어보기도 했지만 매번 중도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 10년 만에 임용에 도전했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교육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합격해서 학교 현장에 나가면 이런 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수업도 해야겠다~'라는 다짐과 상상을 해보기도 했고, 때로는 저의 공부 방법을 돌아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보기도 하면서 교육학의 매력에 푹 빠져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과락만 면하고자 했던 제가 1차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 초수 교육학 20점 만점 받았어요!! 권지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학:20점]**

ID: 이누○○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락점수	과락여부	결시
교육학	20	0	20	8		

올해 초 임용 준비 막막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차 결과가 나왔네요!

교수님 덕분에 20점 받았습시다!!

교육학 아는 게 없어 기본이론반부터 계속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갔는데 만점 받았어요ㅎㅎ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에서 모두 나왔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고득점 선생님들 모두 권지수쌤 들으셨더라구요 ㅎㅎ역시!!

전공에 바빠도 교육학을 끝까지 놓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저는 교육학 덕분에 높은 점수로 1차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교수님 감사합니다 ㅜㅜ 저 기억하실까요ㅜㅜ 초수 교육학 20점 **[교육학:20점]**

ID: 박랑○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락점수	과락여부
교육학	20	0	20	8	

교수님 저 기억하실 지 모르겠어요 ㅜㅜ

1-2월부터 매일 층상 앞자리 2번째 자리 앉았던 여학생입니다.

신발 편하게 신어서 노랑진 사냐고 물어보셨던..ㅜ

9월 정도부터 시간 관리가 안 되어서 인강으로 들었는데 초수 20점 합격했어요ㅜㅜ

전공이 낮아서 교육학 때문에 살았는데 정말 감사해요♥♥

최합하면 꼭 찾아뵙게요. 감사합니다!

📁 교수님 감사해요. 초수인데 교육학 만점 받았어요!!! **[교육학:20점]**

ID: 한O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교육학	20	0	20

덕분에 1차 합격까지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πππππ

저는 아직 졸업 안 한 학부생이어서 학교와 임용을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교수님 덕분에 교육학 만점 받을 수 있었어요!!

시험지 받자마자 바로 교수님한테 꼭 감사인사 드려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ππ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외쳐 갖지수 초수 만점 감사합니다! **[교육학:20점]**

ID: 쉰O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목점수	과목여부
교육학	20	0	20	8	

초수 보건입니다 ㅎㅎㅎ

일을 그만두고 3월부터 교수님 풀커리를 따라가면서 공부했는데,

정말 교육학 공부 시간이 총을 정도로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초수에 교육학에서 좋은 점수가 나와서 1차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랴요

📁 초수 교육학 만점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육학:20점]**

ID: 마요OO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교육학	20	0	20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방심하지 않고 최종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지수 교수님 너무 감사드려요 초수 만점이라니! :) **[교육학:20점]**

ID: 크앙OO

초수이고 5월부터 시작해서 교육학 감 잡는거부터가 너무 어려웠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20점 만점 받았습시다!

정말 다 교수님 덕분이예요! πππππππ

교육학 점수 덕분에 1차 합격했어요!!! ♥♥

너무 감사드려요 ♪

📁 초수 교육학 만점 [교육학:20점]

ID: pne○○○

안녕하세요 교수님.

비교과 교육학 만점이라니.. 믿겨지지 않고 감사해서 그래도 감사글은 남겨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전 인강으로 교육학을 4월부터 시작해서 1년 강의를 끝고도 1-2월 기본강의밖에 못듣고 시간이 부족해서 바로 7월부터 문제풀이만 하다보니 처음에 너무 막막하고 문제 풀 때 어렵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공보다 더 막막했던것 같아요.

특히 8월 첨삭 총합모고고를 푸는데 정말 제가 제대로 아는게 없구나를 깨닫고 충격을 좀 받고 그때부터 9월이었죠. 주일날 하루는 교육학만 보충 공부 했던거 같아요.

그럼에도 너무 불안했고 모고 풀 때마다 좌절했고 걱정이 많았지만, 교수님 모고랑 공개모고 등 교수님이 내신 문제는 다 풀고 가자는 마음으로 다 풀고 시험 전 다시한번 다 빠르게라도 봤습니다.

시험 날 문제를 푸는데 처음엔 뭐지 하다가도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해주신 게 떠오르고.. 다 짚어주신 부분을 다루다 보니 그냥 키워드 쓰고 관련 내용을 한줄 정도로 깔끔하게 썼고 시간이 좀 남아서 다시 검토하면서 문맥의미가 맞게 질문에 맞게 썼는지 다시 수정한 것도 있고요.

시험 끝나고 교수님 답안으로 가채점 하는데 논점이 다 맞아서 깜짝 놀랐고(모고땀 논점이 꼭 한두개는 틀렸어서;;)

그러면서도 너무 구체적으로 좀더 풍부하게 부연 설명하지 않은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좀 있었어요. 키워드는 방향은 맞았는데 설명에서 깎이면 어찌지 했는데 만점이라니 놀라웠고 잘 가르쳐주신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육학 정말 처음 공부 때부터 너무 어려워서 교육학 때문에 시험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 만점이 참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전공점수가 안나왔어서요. 교수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 비교과 초수 만점πππ [교육학:20점]

ID: 하이○○○

교육학 대학 때도 공부해 본 적 없고

쌤판 처음으로 3월부터 했는데 만점 나왔어요πππ

교수님 덕입니다πππ

너무 감사합니다πππ

📁 초수 교육학 만점 감사합니다 [교육학:20점]

ID: 임용○○○○

교수님 초수임용 도전한 49세 직장인 여성입니다.

교수님 강의듣고 교육학 20점 만점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직장생활하며 하는 공부라 전공에서 점수를 못 받아 불합격했지만

교수님 덕분에 23년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내년에 다시 도전해서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 권지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육학:20점]

ID: 인도○○○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락점수
교육학	20	0	20	8
전공	65	0	65	32

그냥 풀면서 너무나도 많이 수업 중에 써왔던 내용이라 1초의 고민도 없이 술술 써내려갔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만점이네요^^

꼭 최종합격하고 나서 감사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학 만점!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육학:20점]

ID: like○○○○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락점수	과락여부
교육학	20	0	20	8	

교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교수님 커리 듣고 매주 올라오는 모의고사 성실히 풀었더니...

교육학 만점이라니!

시험 때도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문제들이 쏙쏙 나와서 놀랐는데 점수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ㄱㄱ
최항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학 만점 감사합니다!! [교육학:20점]

ID: chm○○○○○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교육학	20	0	20

초수같은 재수로 아예 일자무식이었는데 권지수 교수님을 만나고 만점 나왔어요!

실기랑 전공공부에 치여서 복습하나도 못하고 강의만 보고 모의고사만 반복해서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머리 속에 구조화되었나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학 만점 덕분에 컷보다 훨씬 높게 1차 붙었습니다.

더 열심히 2차 달려볼게요!

📁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교육학:20점]

ID: 올해는○○○○○

과목	점수	가산점
교육학	20	0
전공	64.67	0

작년에 13.66 받았는데..

올해 교수님 강의 듣고 20점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1항도 했습니다 ㅎㅎ

📁 교수님 감사해요 TT 교육학 만점 TT [교육학:20점]

ID: 섬O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교육학	20	0	20

작년에 교육학 18점 맞고, 전공이 부족해서 1차 합격을 못했는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1차 합격도 하게 되었어요. TT

거기다가 교육학 20까지!!! 교수님과 함께여서 모두 가능했어요 TT

교육학 강의뿐 아니라 항상 따뜻하게 힘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TTTT 늘 감사했어요 TTTTT

강조해주신 부분에서 다 나와서 작년 교육학도 점수가 좋았지만, 올해도 방심하지 않고자 직강 이랑 직영상반에서 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직강시간 활용해서 외우려고 노력한 게 교육학과 전공 공부 시간 모두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TTTTTTTT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TT !!!!

📁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육학 만점 [교육학:20점]

ID: bboOOOOO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락점수	과락여부
교육학	20	0	20	8	
전공과목	67	0	67	32	

교수님 덕분에 교육학 만점 받았습니다

1차 합격했구요. 2차까지 합격하고 다시 인사 올릴게요.

감사합니다^_^

📁 교수님 감사합니다 :) [교육학:20점]

ID: 랄OO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락점수	과락여부
교육학	20	0	20	8	

아이 둘 육아하며 정신없이 공부했는데

교육학은 권지수 교수님 덕분에 정말 수월하게 공부해서 이번에 20점 받았어요!!! TT

아직 최종합격은 아니지만 교육학 점수 덕분에

간신히 1차 합격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의 중간중간 해주시는 응원 말씀도 정말 많은 의지가 되었어요☺ 꼭 최종합격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 **꼭학 만점 TTT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TTT [교육학:20점]**

ID: 풍O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락점수
교육학	20	0	20	8

재수 때부터 교수님 만나서 꼭학 점수는 정말 꼭잡았었습니다.
 암기력과 표현력이 부족한대 TTT 20점 만점을 받는 날이 오다니요 TTTT
 암기부터 이해까지 정말 교수님의 강의력과 무한 반복시스템 덕분에 드디어 20점 받고 올해
 고득점 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TTTTTTTTT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거 같은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TT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TTT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교수님. 만점 받았습니! [교육학:20점]**

ID: 저니OOO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락점수	과락여부	결시
교육학	20	0	20	8		
전공	56	0	56	32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1년도 초수에 교수님 풀 커리로 수강(7-11월만 일요일만 직강)하고, 2022년도 재수 때
 교수님 강의 9-11월 강의 일요일만 직강으로 수강했습니다 :)
 초수 때 공금한 부분이 많아 이것저것 여쭙보았는데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교육학 너
 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초수 때는 경험도 부족하고 당황해서 17점 받았지만, 재수 때 교수님 핵속 통째로 외우고 오픈
 형 철저하게 대비해서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육학이 만점이라 2차 준비도 컷에서 11점 높게 받고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세요 :)

📁 **교육학 만점! 감사합니다~교수님 [교육학:20점]**

ID: daOO

교수님 덕분에 좋은 점수에 1차 합이예요.
 20점 ㅋㅋㅋ
 처음이예요. 제가 이 점수를 받다니 . . .
 끝까지 교수님 믿고 달려온 보람이 있어요.
 함께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저 7~월 강의 때 지적 받았었는데 교육학은 만점 받았습니디!! **[교육학:20점]**

ID: gg○○○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락점수	과락여부
교육학	20	0	20	8	

7월 달에 노베이스 상태로 모고부터 직강으로 듣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엉망이었는데 요 ㅠㅠ 8월 강의 막바지 쯤인가 첨삭 답안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해주시고, 또 강의 때도 제 답안 샘플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렇지만 늦지 않았다고 강조해주셔서 자극 받고 9-11월 모고 땀 더 열심히 했던 거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어렵פות이 알겠는데 정확한 키워드는 기억이 안나는 바람에 그냥 뻔한 얘기 두 세가지 막 갖다 붙여서 당연히 틀릴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점이어서 놀랐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답안을 충실하게 쓰라고, 채점자들도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열심히 쓴 답안은 좀 봐주신다(?)고 했던 게 기억나서 칸 두칸까지 만들어가며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아는 거 관련 개념까지 죄다 쓰고 나왔네요 ㅎ 아무래도 그래서 한두개 정도는 인정답안으로 맞았다 봐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쉽게 전공 때문에 떨어졌지만 제 발목을 잡던 교육학이 20점 나와서 그건 기쁘네요 ㅎㅎ 내년 공부의 원동력이 될 거 같습니다.

📁 교수님~ 감사드려요 **[교육학:20점]**

ID: 교사○○○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교육학	20	0	20

교육학 만점 받았습니디!

시험 치고 만점 느낌 받았는데 실제로 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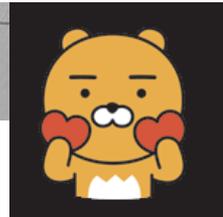
비록 1차를 떨어졌지만 교육학은 앞으로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교수님 저도 감사해요 교육학 만점 **[교육학:20점]**

ID: 라○○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락점수	과락여부	결시
교육학	20	0	20	8		
전공과목		57	57	32		



교수님 강의 매년 3번째 들었어요.

삼수고요 ㅋㅋㅋ

전공덕에 합격은 못했는데 그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내년엔 더 좋은 소식으로 감사드리고 싶네요.

📁 교수님 덕분에 최종합격했습니다. 초수 교육학과 면접 모두 만점, 감사합니다.

【교육학:20점】 ID: 스폰○○

교수님~ 감사합니다 비교과 초수 합격했습니다! 교육학과 면접 모두 만점 받았습니.

강의 선택할 때 정말 긴 고민 끝에 수강생들이 많이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선택했는데, 제가 임용 공부하면서 교수님 1년 커리큘럼 따라간 것이 가장 잘 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학부 때 교육학은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건 물론이고, 몇 년 동안 직장생활 한 후라 1-2월 강의를 들으면서는 내가 해낼 수 없는 시험을 도전하는구나 생각하기도 했고, 초수 합격 이야기 들려주실 때마다 그 사람은 분명 교육학 기초가 있던 사람이거나 원래 똑똑한 사람일거야..라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불안감과 쫓기는 마음에 초창기에 너무 열심히 하면서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렸고, 이로 인해 중간에 공부를 거의 놔버리기까지 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합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교수님이 내용에 있어서 강약도 조절해주시고, 중요한 부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덕에 그게 머리에 저도 모르게 남아서 잘 본 것 같아요. 저도 저를 못 믿고 난 못해 라고만 생각했던 시기에 교수님께서 말해주는 동기부여 말씀들 하나하나 포스트잇 적어서 눈에 붙여놓으면서 의지를 다지던 시간들이 생각나네요. 삭막하고 우울했던 수험생활 **π 교수님께 교육학뿐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 배우고 깨닫는 점도 많아서, 슬럼프 기간에도 교육학 강의 올라오는 날만은 기다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면접도!! 저 교수님 모의면접 갔었는데 인강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연예인 본 것처럼 너무 신기했어요 ㅎㅎㅎ 노랑진도 가보고 싶고 교수님께 직접 받는 피드백에 대한 기대로 부족한 제 실력은 생각 못하고.. 괜히 신청했나 생각하며πππ 이런 저의 상태를 보여드린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기까지 했는데, 하나하나 너무 도움되는 조언들 해주시고 늦지 않았다, 보완하면 잘 할 수 있다 용기 주셔서! 그 이후에 작성하고 다시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면접도 **100점 받았습니!** 면접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 늘긴 하는지 반포기 상태였는데, 교수님 피드백 받고 답안 구성과 공부방법에 있어서도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의 들을 때마다 교수님께 감명 받아서 맨날 속으로 갖지수 외쳤는데 합격하니 더 진심을 담게 되네요 ㅎㅎㅎ 갖지수..ππππ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앞길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πππ 교수님께 배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정말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그로 인해 갖게 된 교사로서의 마음가짐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육학 만점! 최합 했습니다! **【교육학:20점】** ID: 2023최합○○

교수님 덕분에 재수에 최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ππππ

명쾌한 강의와 재미있는 청킹 덕분에 교육학 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주변에서 교육학 추천해달라고 하면 단연 갖지수 교수님을 동네방네 추천하고 다닙니다ㅎㅎㅎ 캄캄했던 입고생활에 교수님을 만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πππ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 **비교과 초수 최종합격 [교육학:20점]**

ID: zkxm○○○○

교수님 안녕하세요 작년 1년 커리 이용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수업, 배달, 이용후기 등... 잘 안쓰는데, 임용생활을 함께 지낸 권지수 교수님께만은 꼭 감사인사 드리고싶었습니다ㅎㅎ.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작년 1월 교육학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초수에 만점으로 최합했습니다.

비록 2차 면접은 준비한 내용들을 제대로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 주셨기 때문에 2차 점수도 나온 것이라 생각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무언가 목표를 갖고 열정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33년 인생 중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달릴 수 있었지만, 중간중간 힘을 북돋아 주신 분은 권지수 교수님 이셨습니다^^.

어떻게... 임용고시 학생들이 이러한 이유로 힘들 것인지 예상이 되신 것인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응원을 주신 교수님의 말씀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5월까지인 거의 교육학 완전이해를 목표를 두고 오히려 전공보다 교육학에 몰두하고, 하반기서부터는 커리대로 강의듣고 복습하고, 시험치기 전날까지 무조건 무한 회독& 모의고사 2회 이상 실천처럼 풀기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학 만점을 다 받아보네요 ^_^.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이 쌓이는 만큼 교수님 또한 같이 힘드신 모습이 영상으로도 느껴지니 울컥했습니다ㅠㅠ. 임고생들이 힘든 만큼 교수님 또한 많이 힘드시실 수 있겠구나.... 교수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질 좋은 강의를 제공해주시는 만큼 저 또한 높은 점수로 보답 드리고 싶었습니다. 힘든 시기 교수님 강의로 방향성을 잡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임고생 생활 잊지 않으며, 저 또한 아이들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교육학 만점! 최종합격 했습니다! [교육학:20점]**

ID: 옥ss○○

권지수 선생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 올해 재수로 미술 최종합격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육학에 대한 기반이 전혀 없던 초수부터 재수까지 교육학은 오로지 권지수 선생님만 믿고 공부했고, 오히려 교육학 직강 시간은 제게 힐링이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고, 힘주시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수험생활 동안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출제하신건가 의문이 들 정도의 놀라운 적응률과 강의에 ... 1차 시험 후 정말 감탄 뿐이었습니다 ㅠㅠ!!

초수 때도 교육학 18로 나름 높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전공에서 부족하여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수 때 다시 마음을 다 잡고 교수님께 배우면서 공부 방법과 지구력에 대한 감을 더욱 잡게 되었고!

올해 교육학 만점 뿐 아니라 전공 공부에도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교수님. □ ♥

📁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육학:20점]**

ID: 최○

교수님 강의 덕분에 올해 교육학 만점으로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초수 때 교육학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재수에 18점 삼수인 이번에 만점 받게 되었어요. 교육학이 너무 버거운 과목이었는데 모의고사 풀고, 강의 들으면서 짚어주시는 부분 위주로 보면서 공부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짚어주신 부분에서 시험이 딱 나왔을 때 역시 갖지수!!속으로 외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명쾌한 설명,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교수님 교육학 만점으로 최종합격했습니다! **[교육학:20점]**

ID: 올해는 꼭 ○○○○

교육학 만점으로 최종합격했습니다 ㅎㅎㅎㅎ

작년엔 교육학 14점이었는데!!! 이번에 교육학 만점, 너무 감사합니다♥

노량진에서 직접 직강 듣고, 중간중간 항상 질문했었는데 답변도 자세히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교수님!!!♥♥♥

📁 교육학 만점 받고 초수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학:20점]**

ID: 한○

1차 발표 때도 교육학 만점인 것 확인하고 감사인사 드리러 왔었습니다.

당시에 문제를 받고 너무 쉬워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풀었습니다.

다 교수님 덕분이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2차 준비하면서도 1차의 교육학 만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수라서 저 혼자 알아보며 내린 결정이었는데,

권지수 교수님으로 교육학 듣기를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늘 건강하세요 교수님!!!!

📁 교육학 만점 최합! **[교육학:20점]**

ID: 아○○

첫해에 교육학 과락 받고 작년에 교수님 1년 커리 따라 꾸준히 했더니 교육학 만점 받고 최합했습니다

과락받기가 더 힘들다는 교육학을 그 정도로 아무 베이스 없이 시작했지만 1년 커리를 교수님 말씀대로 한번도 미루지 않고 꾸준히 들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학 때문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교수님께서 강의 중간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멘탈을 부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모고연습을 계속 해서 그런지 실전에서 떨리지도 않았고 작성하고 점검 하기도 5분이나 시간이 남았어요.

계 목표 교육학 점수는 15점이었는데 교육학이 잘 나와서 2차 면접 점수를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교수님 감사드려요. 초수 20점으로 1차 합격했습니다. [교육학: 20점] -ID: ra0000

교육대학원을 올해 5월에 졸업하고
초수 임용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점수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2월에 어느 교수님 수업을 들어야 하나 아무런 정보도 없었는데
교수님 OT 듣고 이분이다! 하면서
1년 커리를 한방에 다 결재했던 그때의 제 자신이 너무 고맙네요.

교육학 들으며
왜 이렇게 안 외워지나, 인출이 안 되나
자책도 많이 했고, 시험 치고 나와서는 과락만 면했으면 좋겠다하고
할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풀이 듣고 약 15~17점 예상했는데
오늘 이렇게 큰 선물을 받네요.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2차도 잘 봐서 최종 합격 수기 들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 초수 교육학 만점 ㅍㅍ [교육학: 20점]

-ID: 할수000

사실 시험 보고 무슨 소리를 쓴건지 ..과락 맞는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ㅍㅍ
진짜 교수님 일년 커리 그대로 따라갔는데
자연스럽게 손이 알아서 다 쓰고 나온걸까요ㅍㅍ
아직도 못 믿겠어요ㅍㅍ

면접 마무리 잘 할게요!
일년동안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ㅎㅎ

교수님 중간 중간 응원 해주시는 말씀들 듣고 참 많이 위로
받고 울기도 울었네요ㅍㅍ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 교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만점 받았습니다. [교육학: 20점] -ID: 95000000

7~11월 강의만 들었지만 풍부한 모의고사와 핵심만 짚은 요약정리 덕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올려주신 해설강의와 QnA도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의 좋은 강의 덕에 교육학 만점 받은 만큼 2차까지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2021년이 기쁨으로 마무리되네요.

📁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육학: 20점]

-ID: min○○○○○○○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육학 20점 만점이라니 정말 기쁩니다♥

전공 점수가 평소 모의고사 때 보다 10-15점은 떨어진 것 같아 정말 속상하지만, 교육학 만점으로 컷에서 1점 높게 합격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첫번째도, 두번째도 합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2차에서 뒤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강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작은 화면을 통해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새기며 힘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건강 꼭 챙기시며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육학: 20점]

-ID: 셴○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3수차에 처음으로 권지수 교수님 커리큘럼을 타게 됐었는데요, 초재수 모두 15.67점에 맴돌던 점수가 올해 20점 만점이 됐어요!

물론 전공 점수가 좋지 않아서ㅠㅠ 아마 1년 더 하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임용이란 시험에 대해... 정말 실패 경험만 가득한 사람이었고 임용 준비를 하면서도 내내 나 따위가 교사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뿐이었는데요 교수님 덕분에 이런 점수도 다 받아보고... 자기효능감이 조금이나마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ㅠ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교수님 항상 건강하세요!! [교육학: 20점]

-ID: 어우○

교수님 전에도 글 썼지만 점수가 최종적으로 20점 만점 나왔습니다..

타 교수님 커리를 타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끼고, 9월부터 본격 교수님 커리로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단 3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교수님이 강조해주시는 부분만은 철저히 의우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점수가 나와 너무 행복하네요..ㅠㅠ 영어 과목 1차는 교육학 덕에 부족한 전공점수임에도 간당간당하게 합격했지만 내년에도 하게 되면 무조건 교수님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구 행복하세요..♥

◆ 교육학 20점 합격수기 남깁니다

ID: 2025합격생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육학 20점 맞고 경기도 임용 합격한 합격자입니다.

합격조회

2025학년도 경기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수학

응시시험 2025학년도 경기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수학 합격조회

합격확인 [응시번호]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차 시험성적	73.000
2차 시험성적	
1차 취업지원가산점	0.000
2차 취업지원가산점	0.000
총성적	
순위	

과목	점수	취업지원가산점	관선점	과목점수	관학여부
교육학	20.00	0.00	20.00	8.00	N
전공	53.00	0.00	53.00	32.00	N
합계					

교육학의 시기별 학습법을 적기에 앞서서 세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학은 반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외우는 것에 취약했던 수험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을 하면, 결국엔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교육학 내용을 반복해서 외우고 익숙해질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권지수 선생님이 학습초기에 권하시는 학습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는 교육학에 있어서는 **교육학을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어려웠다고 평가받았던 작년 시험에서 16.33, 이번 시험에서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관통하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4, 2025의 교육학 시험을 보면서 '임용고시에서 시험으로 묻고자 하는 말은 결국 한정되어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여러 번 교육학 내용들을 반복하다보면 특정한 조건과 상황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정해져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 시험에서는 카츠의 리더십이론이 큰 변수였습니다. 지문에서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이와 관련한 능력도 키운다면~' 와 질문에서 '동료교사와~' 와 같이 나온

말을 보았을 때 우리는 타인과 관련된 능력에 관련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육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생각했을 때, 타인과 관련된 어떠한 능력을 생각해보면 대인관리능력, 타인의 감정인식능력(갈등관리전략도 떠올릴 수는 있지만, 지문에서 갈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갈등관리는 대인관리능력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과 같은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권지수 선생님이 실전모의고사 때 추가적으로 언급했던 이론들을 봐도 대인관리, 감정인식의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학 문제의 답을 적어보면..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에 적용하는 어떤 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으로 보아, 감정인식보다는 갈등과 협력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인관리능력 정도로 적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교육학에서 이 정도만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추측해서 답을 적어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은 항상 하나 정도는 우리가 안 배운 개념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학 전체 내용을 견고히 공부해야 하고 어떤 내용 정도를 계속 말하고 반복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문맥 속에서 답이 될만한 것을 적절히 적어내는 것이 20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기출된 개념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시험에서 20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권지수 선생님의 1-2월 강의에서 다루었던 모든 내용을 끝까지 빠짐없이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기출된 개념이라고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학습전략

※ 스터디

저는 **교육학은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터디 진행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분들은 활용하시되, 저는 의문을 계속 가지는 장독립형에 가까웠고,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항상 선생님에게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교육학 스터디가 불필요했었습니다. 교육학 스터디가 필수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시기별 학습방법

- 1~2월(중요도:★★★★☆)

이 시기에는 권지수 선생님의 기본 이론 **현강**(이론 1회독째)을 들었습니다. 주 2회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학원에 남아서 30분~1시간동안 교재를 보면서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시 이해하고 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업이 없는 날에는 그 주에 수업한 내용을 다시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안 외워지면 다시 **읽어서**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방법들은 권지수 선생님이 강의 때마다 제안해주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방법이었는데, 결국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이 때는 아직 **교육학 단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 3월~4월(중요도:★★☆☆☆)

이 시기에는 권지수 선생님의 심화 이론 **현강**(이론 2회독째)을 들었습니다. 1~2월과 마찬가지로 복습방식으로 3~4월을 보냈고 심화 이론 강의에서는 1~2월에 다루지 않았던 지역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교육학의 여러 이론들에서 반복되서 말하고자하는 점들을 깨우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 때는 아직 **교육학 단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 5~6월 (중요도 : ★★★★★)

단권화를 하기 때문에 위의 중요도를 설정했습니다. 단권화를 하는 것은 수험생활 막바지에 공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는 4월말부터 수교론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강의를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이 때의 강의는 권지수 선생님의 사례연습반 강의(이론 3회독)를 수강했고 이 시기를 활용하여 **교육학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 7~8월(중요도:★★★★☆)

이 시기에는 권지수 선생님의 영역별 모의고사 **현강**(이론 4회독)을 수강했습니다. 복습은 교육학 단권화를 한 것을 바탕으로 영역별로 해당하는 범위의 내용을 반복해서 외우고 읽었습니다. 또한, 수업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권지수 선생님에게 작성한 문제의 답이 가능한지, 왜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문**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부 문제에 대해서만 첨삭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문제를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교육학 만능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서론을 항상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최근 ~가 중요시됨에 따라 <주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교사는 A,B,C,D(교육학 과목, ex. 문제에 제시된 교육행정, 교육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제시문(ex, 대화, 설문 등 문제에 제시된 것)>을 토대로 <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교육학 만능틀을 만드는 것이 7~8월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팁으로, 유튜브에 교육학 만능틀을 찾아보시면 좋은 만능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9~11월(중요도:★★★★☆,11월에 한해서는★★★★★★)

이 시기에는 권지수 선생님의 실전 모의고사 **현강**(이론 5회독)을 수강했습니다.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실전연습을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담은 기간을 고려하여 분배한 뒤, 최대한 많이 회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시험보기 1달 남은 지점부터는 2주, 1주, 3, 2, 1일동안 회독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전 실제로 해보면서 방대한 교육학을 3일만에 다시 회독한다는 것이 제게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수정하여 **2주, 1주, 1주**로 3회독하며 최종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면 강의로만 5회독이고 복습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회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회독하게 되면 교육학을 관통하는 그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최근 교육학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권지수 선생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전 모의고사 시기에 상담을 신청해서 마지막 방향성을 점검했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당시에는 너무 불안해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게 마지막 방향성을 결정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 수기를 읽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선, 올해에 시험을 꼭 붙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해지세요. 그리고 간절해졌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활용하세요. 그 예로, 수업을 듣고 있는 강사에게 자신이 의문을 가진 점을 질문하세요. 귀찮아하실 정도로 질문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세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모두 받으세요. 친구와의 연락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 잠시 연락을 내려놓으세요. 합격하면, 다 웃으면서 연락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게 모든 조건을 활용하여 그 한 해에 끝내세요. 저는 그것이 나, 그리고 내 주변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수험생분들을 응원합니다. 교단에서 뵈겠습니다.

◆ **교육학 만점(20점)으로 최종합격했습니다.**

ID:allitlering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exam results. At the top, it says '합격조회' (Check Results). Below that, it displays '2025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영어'. There is a search bar with '응시시험' (Exam) and '2025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영어' entered. Below the search bar, it says '합격확인 ()' (Check Results ()). At the bottom, there is a message: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final success).

과목	점수	취업지원가산점	합산점
교육학	20.00	0.00	20.00
전공과목			
심층면접			
수업실면			

교수님,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임용대비를 위해 2024년 한 해 1-11월 패키지 직강으로 수강했던 학생입니다. 1차 합격조치 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만점이 나올 거라고는 시험 직후에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처음 문제를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 당황했지만, 교수님이 지도해주신대로 기본개념에 충실하면서도 상식 수준에서 답을 끌어내도록 노력했더니 만점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 좋은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학습전략

<강의 활용 방법 및 학습 방법>

저는 1월 강의 첫날부터 교수님 OT 들으며 '딱 교수님이 시키시는대로만 해보자' 라고 다짐했고 최대한 11월 시험까지 교수님의 커리큘럼과 학습전략을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 **1~2월:** 이때는 교육학의 용어나 내용에 친숙해진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모든 내용을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강의를 들으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반에는 교재를 꼼꼼하게 정독하고, 이해가 안되는 내용없이 모든 내용을 스터디나 교수님께 질문하면서 꼼꼼히 이해해놓는 게 좋습니다. 내용이해를 잘 해놓아야 후반부로 가면서 암기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교재를 정독할 시간과 여유는 정말 없기 때문에 초반에 교재를 정독하며 내용을 철저히 이해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4월:** 저는 이 기간동안 내용 암기에 본격적으로 매진했습니다. 1~2월에 내용이해는 충분히 해놓았기 때문에 무한반복으로 암기에 노력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대로 강의 직후 바로바로 최대한 암기하고, 혼자 공부할 때 복습하면서 반복 암기했습니다. 암기하실 때는 무조건 말이나 글로 인출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5~8월:** 이 때부터는 실전문제를 풀면서 답안을 쓰는 법을 본격적으로 익히고 교재내용을 계속, 정말 계속 반복 암기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오더라도 아는 내용을 토대로 답을 충분히 이끌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시켜주신 이 연습 덕에 만점을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모든 출제가 무조건 교재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교재 밖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교수님께서 강의 때 항상 강조하시는 대로 답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잘 따라가신다면 시험 때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모의고사:**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단원별 모의고사나 종합 모의고사 때는 점수를 잘 낼 수 있는 답안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안을 정말 짧게 쓰는 편이었어서 주변에서 답안을 길게 쓰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내 답안이 부족한 건 아닐지 괜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만 정확하게 들어있으면 답안의 길이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배분도 연습하고 점수를 정확하게 채길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하면서, 나의 내용이해나 암기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완벽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학 공부에서는 짧게라도 1년 간 정말 꾸준히 놓지 않고 반복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조금이라도 손을 놓게 되면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휘발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는 느낌입니다.. 적은 시간, 적은 분량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후기를 보시는 수험생 분들이 계신다면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학부병행 합격수기)합격의 1등 공신 권지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ID: 창원길냥이



@권지수 교수님을 알게된 배경

수석으로 합격하신 대학 선배님의 추천으로 권지수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오티 듣고 1년간 함께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강의 활용

학부병행이라 교육학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1년 패키지 강의를 끈고 쪽 따라가며 교육학 이론에 대한 개념을 우선 익히는데 활용했습니다. 권지수 교수님 특유의 장점은 강의를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는 점입니다. 수업 중간중간 덕담도 해주시니 매주 올라오는 강의를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임용 수험생 기간에서 **교육학 강의 듣는 시간이 약간 힐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자체가 어렵지 않고 설명을 잘해주셔서 였던 것 같습니다.

초수의 입장에서 교육학은 논술이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쉽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시고 함께 연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과라 글을 적어볼 기회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논리틀을 알려주시니 논술을 쉽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첨삭을 해주는 것이 좋았던 점입니다.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적은 답이 정답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 정확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권지수 교수님은 인강생들을 위해 온라인 첨삭을 진행해주시고 어떤 부분을 추가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주셔서 나의 답에 확신과 공부의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답안 작성에서 특히 좋았던 부분은 이유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답안을 작성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권지수 교수님은 이러한 모호한 문제가 나왔을 때 개념적 속성과 +알파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등 답안 작성요령 팁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의 부족한 실력을 커버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내용들보다는 사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이 권지수 교수님만의 전매특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추론적 답안 추출입니다. 권지수 교수님은 항상 제시문에서 답을 찾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수업 때나 모의고사에서 함께 연습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개념이 나오더라도 답안과 충분히 유사하게 작성하여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권지수 교수님과 함께 답안 유추 연습을 통해 모르는 문제도 맞추며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권지수 교수님은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딱딱 시원하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학습방법

한 마디로 무한회독이 방법입니다. 전공뿐만 아니라 교육학도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한 반복하며 이해하며 쪽쪽 넘어가며 외운다기보다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권지수 교수님 카페에 질문하며 이해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단권화 하지 않고 솔직히 비추천합니다.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외운 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것을 씁니다. 긴장하고 시간도 부족하여 외운 것을 인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권화 정리할 시간에 여러번 회독하며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은 자신이 문제와 답을 만들면 에밍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활용하여 쉬운 문제는 긴 시간을 두고 재출재해주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다시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 어플을 통해 인출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문제를 풀면서 비교적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사

교수님~저는 학부병행이라 병원실습에 교생실습까지 굉장히 절대적 시간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꼭 봐야할 것 안봐도 크게 상관없는 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저도 주어진 시간을 확신을 가지고 취할 부분과 놓아야할 부분을 갈팡질팡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부병행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간중간 해주신 덕담들 또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가르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잘가르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긴 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초수 합격후기, 교육학 18점 감사합니다!

ID:뽕교사

()님. 2025학년도 전라남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영양

응시시험 2025학년도 전라남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영양

합격확인 (응시번호:)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 18점으로 초수합격했습니다.

전공이 높지 않았지만 교육학 덕에 붙은 것 같아요!!

저는 교육대학원 진학으로 교육학 기본베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 합격생들이 권지수쌤을 많이 들어서

저도 선택하게되었습니다!

23년 7-8월에 개념이론강의를 한번 들었고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을 하기 시작한 24년은

플레키지로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복습” 이 정말 도움되었습니다.

복습방법을 전공공부에도 적용하여 실행하였고 효과적인 공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논술 작성법도 전혀 몰랐지만 알려주신 방법으로

연습했더니 공식처럼 대입이 잘 되었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제 스스로 확신이 없기도 했지만

권지수쌤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마지막엔 정들어서 인사하시는데 모니터 너머로 눈물 흘렸어요ㅋㅋㅋㅋ)

초수라 공부방향 설정도 어렵고

모든게 어려웠지만 복습, 신뢰감, 청킹등으로

끝까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권지수쌤 감사합니다 🙏🙏

◆ 감사합니다. 교육학 18.67점으로 삼수만에 최종합격했습니다.

ID:기분ભ취

과목	과목	점수	위업지원가산점	합산점	과목점수	과목여부	결시
교육학		18.67	0.00	18.67	8.00	N	N
전공과목		60.00	0.00	60.00	32.00	N	N

일단 성적 먼저 인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년 만에 겨우 합격했습니다. 참 힘들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육학이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도 많았고, 낮은 점수로 좌절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우직하게 전진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권지수 선생님의 교육학 논술 강의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는 제가 삼수를 하는 동안 권지수 선생님의 강의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3년간 교육학을 공부하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글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 공부법

교육학 공부 방법을 초수 때부터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 연차	공부 방법	스터디	점수
초수	권지수 교육학 푼키리큘럼, 교재 교육학 여러 차례 회독	교재 내용 암기 스터디, 권지수 교육학 모의고사 풀이 스터디	18점
재수	교재 여러 차례 회독, 권지수 교육학 모의고사 풀기(강의는 거의 듣지 않음)	교재 내용 암기 스터디, 작년 모의고사 풀이 및 복습 스터디, 권지수 교육학 모의고사 풀이 스터디	13점
삼수	교재 여러 차례 회독, 권지수 교육학 모의고사 풀기, 타 강사 모의고사 풀기(강의 듣지 않음)	교재 내용 암기 스터디 v2, 권지수 · 이선화 교육학 모의고사 풀이 스터디	18.67점

초수 때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기에 그저 권지수 선생님의 강의를 따라갔습니다. 처음 교육학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강의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공부 방법에 대한 끝

초수 시절의 교육학 공부는 결국 투 트랙 전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강의를 통해 인출 방법, 답안 작성 방법, 지문 분석 방법 등을 익히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암기 스테디*로 내용 지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답안 작성법을 완벽히 익혔다 하더라도 내용 지식을 모르면 도입과 마무리밖에 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모의고사는 두 번씩 반복해 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행히 당시 교육학 시험이 비교적 쉽게 출제되어 초수임에도 **18점**이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강조하신 내용이나 주요 키워드 위주로 인출하는 인출하는 전화 스테디**

재수 때는 초수 때의 성적에 방심한 탓인지, 내용 지식을 점검하고 채우기보다는 문제 풀이에만 집중했습니다. 내용지식 암기의 경우 같은 교재로 반복했기에 크게 모르는 내용이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작년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 시험 감각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의는 간혹 모의고사에서 난해한 답안이 나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답안 작성법이 이미 익숙하다고 생각했고, 내용지식은 교재 스테디로 채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13점**. 당시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긴 했지만, 내용 지식을 충분히 숙지했다면 16점은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보다는 모의고사에만 치중하다 보니 허를 찔린 결과였습니다.

삼수 때는 교육학 공부에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재수 때의 실패로 교육학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4학년도 교육학 시험은 충분히 공부했다면 16점은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 제가 13점을 맞았으니 공부가 부족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학에서 3점을 더 얻기 위해 시간을 쓰느니, 전공 공부로 5~6점을 더 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학은 20점 만점, 전공은 80점 만점이니깐요. 그래서 삼수 때는 ‘교육학 10: 전공 90’ 정도의 비율로 공부했습니다.(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육학과 전공 모두 완벽하게 공부하여 고득점을 받는 것입니다. 제 경우는 전공에 시간을 더 쏟겠다는 핑계로 싫어지게 된 교육학을 외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재수 때와 달랐습니다. 투 트랙 전략 v2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교재내용 암기 스테디의 방식을 바꿔 내용 지식을 더 탄탄히 다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타 강사의 모의고사를 추가해 다양한 시각으로 교육학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교재 내용 암기 스테디는 기존의 주요 키워드 암기에서 페이지 전체 암기로 바꾸었습니다. 키워드만 외우던 방식으로 두 해를 보내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졌고, 다 아는 내용 같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테디를 그만두고, 이론 전체를 암기하는 새 스테디에 참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을 스테디 범위로 정하면 해당 이론의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서로 질문·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부담스러웠지만,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키워드 중심 스테디로 기본적인 틀을 다져 놓았기에 가능했던 것 같지만,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테디를 통해 각 이론의 지식 구조를

체계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각 이론별 지식의 구조를 활용해 인출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모의고사는 권지수 선생님 것 이외에도 타 강사 선생님 것까지 총 두 본의 모의고사를 풀어 봤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교육학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었지만, 각자의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교육학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기에 각 모의고사는 한 번씩만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불안했지만, 결과는 **18.67점**. 신기하게도 교육학에 가장 투자를 하지 않았던 3번째 시험에서의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교육학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의 문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생소한 교육학 이론가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권지수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통해 문해력을 키우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 덕분에 이를 답안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한 답안들이 인정되었기에, 기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교육학 공부 시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교육학 2 : 전공 8’ 정도의 비율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과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역사과 수험생들은 교육학을 잘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고, 평균 점수를 봤을 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교육학은 같은 과목 수험생들끼리만 상대평가로 채점하기 때문에, 남들만큼만 맞추면 충분합니다. 굳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전공 공부 시간을 지나치게 방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지수 교육학논술만의 장점

권지수 선생님은 평가원 시험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모의고사를 출제해 주십니다. 다른 강사들의 모의고사는 각자의 색깔이 반영되면서 평가원 스타일과 다소 멀어지거나, 문제와 답안이 번잡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권지수 선생님의 모의고사는 문제와 답안이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해력 활용법 역시도 모의고사에서 계속 짚어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내는 최근 문제들에 대한 대비 역시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술 작성법 역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타 강사들의 경우 답안 작성 시 서론과 결론에서 세 줄 이상을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지수 선생님은 적으면 두 줄, 많아봤자 세 줄 정도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본론의 경우도 타 강사들은 문단의 앞과 뒤에 모두 설명문을 넣을 것을 얘기하지만, 권지수 선생님께서는 작성방법에 해당하는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두괄식으로 적기만 하면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다 보니, 모의고사 스터디를 할 때, 타 스터디원들은 두 페이지 이상의 답안을 적어낼 때 저는 한 페이지의 답안만 간결하게 적고도 고득점을 맞은 적이 꽤 많았습니다.

권지수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 저에게 교육학은 오직 권지수 선생님이라는 빛 하나만을 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되짚어 봤을 때,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습니다. 18.67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권지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예비 교사 여러분들도 권지수 교육학과 함께 수험생활을 하루빨리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도전이 반드시 값진 결실을 맺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2025초수합격/권지수교육학1년패키지수강/감사합니다

id :2025김시현

경기도교육청
임용공고 원서접수 마이페이지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합격조회

김시현(980605)님. 2025학년도 경기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미술

용서시험 2025학년도 경기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미술 합격조회

합격확인 (용서번호 : ██████████)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025대비 1년동안 교수님 수업(직강)을 수강한 학생입니다. 교육학은 17.33으로 교수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 한 해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학습전략

월별 학습 방법

1) 1~2월

저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학원에 등원하였습니다. 인강으로 수강하면 강의 진도가 밀리거나 집중력이 흐려질 것 같다고 판단하여 교육학은 3~4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직강 강의를 시작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도착하여 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당일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습니다. 교육학은 2023년 대학원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기본이론 강의를 한번 수강해본 상태였기에 시작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3~4월

3월 강의를 수강하러 학원에 등원했는데,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주 4일(전공, 교육학 모두 직강) 하기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4월까지 운동(헬스, 필라테스 병행 - 주 2~3회)을 병행했기에, 교육학 심화이론 강의는 인강을 통해 1.2배속 정

도로 들어도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하루, 교육학을 공부하는 날을 지정하여 공부했습니다.

3) 5~6월

4권으로 분철한 정리했던 내용을 5~6월 즈음 출시된 핵심쑥쑥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학의 회독 시간을 점차 줄이기 위해서는 한권에 압축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5~6월에는 기출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대면 스터디를 하지 않았다면 5~6월의 교육학 과정보도 인강으로 수강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5월 중순부터 같은 강의를 듣는 타교과 선생님과 교육학 대면 스터디를 진행했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학원에 등원하였습니다. 교육학 스터디는 강의를 마친 후 남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타교과 선생님에게 직접 다가가 스터디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 선생님과 학습 스타일이 잘 맞아서 10월 말까지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학원에서 짜주는 스터디도 좋지만, 상대방이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운이 따라야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직접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스터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6월에는 매일 나간 진도만큼 서로 구두로 문답을 진행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1시간 정도 당일 학습 내용을 복습하며 암기하고,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질문하며 책을 보지 않고 답변합니다. 40분~1시간 정도 인출 시간이 소요되어 교육학을 수강하는 날에는 강의가 끝나는 날보다 매번 약 2시간 더 공부를 하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4) 7~8월

7~8월은 영역별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부터 더욱 꾸준함과 성실함, 암기와 인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6월에 이어서 스터디를 계속 진행했으며, 1주차에는 교육과정 / 2주차에는 교육심리 / 3주차에는 교육공학.. 등 시험 진도에 맞추어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5) 9~11월

7~8월 성실하게 암기를 해놓아야 9~10월 전 영역 모의고사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9~10월도 마찬가지로 현장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직강을 수강하였습니다. 교육학을 나가는 날은 18시 정도부터 전공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학 직강이 없는 수~토요일은 오전 6:30~7:00는 필수(기상스터디), 오전 8~10시는 선택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전공이 더 급하다면 전공 진행) 약 100일 남짓 남은 시점에 늦잠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대학원 동기와 6:30에 전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저의 경우 6:25에 알람을 맞추고 물만 챙겨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육학 직강을 나오는 날은 6:10에 진행) 30분정도 전화스터디를 통해 잠도 깨고, 교육학을 빠르게 회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교육학 덕에 최종합격했습니다.

ID 뺀사

합격조회

2025학년도 경기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역사

응시시험 2025학년도 경기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역사 합격조회

합격확인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응시시험 2025학년도 경기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역사 합격조회

필기성적

1차 시험성적	73.000
2차 시험성적	95.290
1차 위임지원가산점	0.000
2차 위임지원가산점	0.000
총성적	168.290
순위	46

과목	점수	위임지원가산점	합산점	과목점수	과목여부	결시
교육학	19.00	0.00	19.00	8.00	N	N
전공	54.00	0.00	54.00	32.00	N	N
수업설문	28.75	0.00	28.75	0.00	N	N
수업나눔	28.67	0.00	28.67	0.00	N	N
개별면접	37.87	0.00	37.87	0.00	N	N

1차 컷에서 +4.33 최종은 컷에서 2점 차이 만나게 해서 합격했습니다.

교육학이 19점을 맞은 덕분이에요. 평상시처럼 17점정도였다면 최종합격 못했을 거예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4년간의 수험기간동안 두명의 교육학 강사분을 거친 후 권지수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시작은 교재를 봤는데 정리가 너무 잘되어있었습니다. 교재가 좋아 인강을 선택하게 된거죠.

기간제를 하다 다시 시험을 작년에 봤기때문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하라는대로 했어요. 복습도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암기가 다 안되더라도 계속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으로 교수님이 준 자료를 이용하여 복습도 해보았습니다. 거의 **백지복습**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복습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워지더라고요. 인강도 절대 안땀렸습니다. 처음에 해주시는 구조도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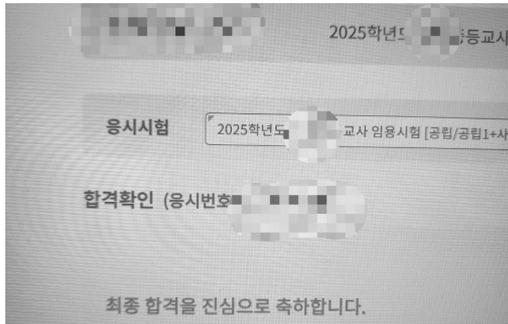
부끄럽지만 그 전에는 어떤 학자의 내용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항상 처음에 해주시는 구조도를 하면서 저절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핵심은 **1. 인강 밀리지 않기 2. 복습은 교수님이 하라는대로 하기 3. 채점 해주는 모의고사때는 최대한 신청해서 점수 받아보기**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사실 문제를 보고 너무 당황했어요 사례를 쓰라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처음 보는 개념도 나왔더라고요. 처음엔 망했다 올해 공부 뭐한거지 생각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냥 차분히 개념부터 시작하라는 교수님 말을 되뇌이며 개념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개념은 교수님 말처럼 문제에서 답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너무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점수뿐 아니라 교육학 1년간 너무 재밌게 배우다 갑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세요!!

◆ **교육학 18.67로 최종합격했습니다.**

ID:호호호호호남



과목	점수	취업지원가산점	합산점	과락점수	과락여부	경시
교육학	18.67	0.00	18.67	8.00	N	N

교육학 작년 16.67, 18.67점으로 올해 최종합격했습니다.

작년에도 난이도가 높았던 전공을 대신해 교육학 점수가 좋게 나와 1차 합격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엔 1차가 안될줄 알고 2차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한데다가 독감으로 고열을 앓는 바람에 소수점차이로 최탈하였지만, 올해는 2차 준비도 성실히 하여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방법 및 강의 활용 노하우>

저는 처음 공부를 할 때는 **그냥 1년 전체 강의를 따라가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경비가 부족하신 분은 선택할 수 밖에 없겠지만, 교육학에 걱정이 많이되고 고민이 든다면 사실 돈이든 노력이든 시간이든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얼른 빨리 합격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쓰게 될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간이나 노력도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저는 첫 해에 소수점으로 최종에서 탈락했지만, 모든 강의를 수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깝거나 후회되지 않았고 올해 어떤 강의를 듣는게 저에게 도움이 될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마지막 7~11월강의만 수강하였고 결국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럴 수 있었던 건 작년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 강의를 듣는 요일을 전공과 교육학을 월수금, 화목토 등으로 정해두고 그 다음날은 복습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획도 자연스럽게 짜지고 계획이 밀리면 자연스럽게 강의가 밀려버리기 때문에 어느정도 강제성도 부여되어 전 좋았습니다.

교육학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암기,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 이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문을 잘 분석하는 능력이 있다해도 교육학 개념을 엉터리로 쓴다거나, 개념은 잘 알지만 전혀 적용이 안된다면 역시나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이 과정이 어려웠지만 먼저는 교육학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숙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반기에는 이것을 적용해보면서 내 사고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되짚으며 사고를 좀더 교육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저에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감사인사>

교수님 안녕하세요.

권지수 교수님을 생각만 해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사실 교육학 시간이 제 마음에 위안을 주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실력과 별개로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조언, 격려, 충고 등이 저에겐 많이 마음에 와닿았고 카페에도 달아주시는 따뜻한 격려의 말에 눈물이 찼끔 나기도 했던 거 같아요. 힘들 때마다 그 댓글을 읽으면서 "교수님이 이번엔 될거라고 했으니 정말 이번엔 될거야."하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제 수험의 전반을 이끌어주신 느낌입니다. 최종합격 수기로 보답드릴 수 있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수님의 그 마음이 수강생들에게 잘 전달되고 모두가 합격으로 보답드리게 되면 좋겠네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육학 19.67로 최종합격♥

ID:또로롱

안녕하세요 :)

최종 합격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부랴부랴 최종 합격 후기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 임용시험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기억이 증발하고 있어 더 잊어버리기 전에 끄적여봅니다.

저는 보건 과목이기 때문에 학부 시절 교육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교육학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었고 어떤 강의를 들을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권지수 교육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론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했수로는 오래 걸렸지만, 사실상 썩 공부로는 2년 만에 합격 길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육학 노 베이스인 저에게 이론반, 심화반, 모고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리큘럼은 차근차근 교육학 지식을 채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권지수 선생님은 강의를 쉽고 재미있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해도 잘 되며 지루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전공보다 교육학을 더 흥미 있게 공부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ㅎㅎ

무엇보다 무한 반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머릿속에 저절로 암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독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 주시는 권지수 선생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내용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 글자를 따서 외우기 등 암기법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따로 암기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데, 수업 중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끔 해주시는 게 재충전도 되고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중에서 자기 머리를 흙수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고ㅋㅋㅎ

그래서 암기해도 까먹는 자신을 자책하기보단 '그래 내 머리는 흙수저도 안되니까~'

하고 넘기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구요ㅎㅎ

물론 자신을 마구 깎아내리라는 뜻이 아니라, 좌절하지 말고 겸손하게 더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1. 교육학 노 베이스다. 2. 회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3. 재미있는 수업이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 합격 기운을 받아 이제는 선생님들이 합격하실 차례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합격조회

.....	2025학년도 충청남도 중등교사(사립위탁 포함) 임용시험(일반) [분야] 보건(유치원·초등)
응시시험	2025학년도 충청남도 중등교사(사립위탁 포함) 임용시험(일반) [분야] 보건(유치원·초등)
합격확인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권지수선생님의 3-11월 패키지를 듣고 올해 경기 보건 초등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교수님의 격려와 조언으로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 올해 권지수교수님을 선택하고 시작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육학 점수는 만점도 아니고... 저보다 교육학을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작년 교육학 공부법은 정말 많은 방법들 중 한 가지의 공부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전략

[교육학 공부법]

저는 1-11월 대부분을 직강으로 들었습니다. 8~9월에는 체력부족으로 인강으로 잠시 들었습니다.

| 1~2월 |

이 시기에는 타 교육학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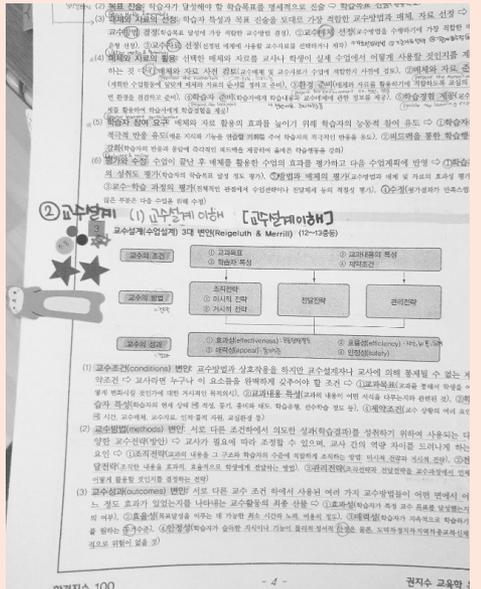
교육학을 전혀 모르던 상태였어서, 이해 위주로 강의를 들었고 복습하며 노트정리를 1회 하였었습니다.

노트정리를 하면서 제가 구조화와 외울 내용으로 짧게 정리를 잘 못한다는 점을 깨달았고, 당시 구조화를 잘해주시고 자료가 좋다는 평이 많았던 권지수 선생님이로 변경하기로 맘을 먹게 되었습니다.

| 3~4월 |

권지수선생님의 심화이론반 직강을 나왔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서에 강조하는 내용은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키워드 or 외울 부분을 표시해 나갔습니다. 또한 기출, 강조하시는 이론들에 스티커를 붙여서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복습을 할 때 이론서와 비교해가며 단권화를 '키워드쑥쑥' 프린트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론서에 표시해둔 대로 다양한 색상의 형광펜과 스티커로 중요점



표시와 키워드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3~4월에 대부분 끝났고 이후로는 11월까지 보완만 했습니다.

또한 직강 후에 강의실에 남아서 5시경 시작되는 교수님과 함께하는 구두테스트는 직접 참여는 몇 번 하지 않았고 대부분 1~2조 정도 진행하는 것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그날 배운 내용 중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스터디는 월요일 아침 7시반~9시에 짝스터디 선생님과 전 주에 진도 나간 모든 내용을 암기하여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교육학은 상반기에 대부분 암기해 놓으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 5~6월 |

3~4월과 비슷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월, 화요일 직강 → 그날 바로 복습 & 키워드쑥쑥 단권화 보완(이때부터는 키워드쑥쑥 기반의 단권화한 것만 보았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인출스터디 : 3~4, 5~6월 인출스터디를 통해 저는 상반기 때 주요 교육학 과목의 암기를 대부분 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반기에 전공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이 높아질 때 상대적으로 교육학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전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7~8월 |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복습을 예습으로 바꿔서 영역별로 예습 암기를 하고 직강 참여를 하였습니다.

모의고사 후, 해설과 이론 설명 반복을 해주실 때 혹은 직강 바로 후 시간을 이용하여 복습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또한, 모범답안과 제 답을 비교하여 성찰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는 저에게 교육학 슬럼프 기간이었습니다. 3~6월 암기스터디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구체적으로 인출은 되지 않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럴 때는 다시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꼼꼼하게 외우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을 주셔서 그 후로 하반기에 이 말을 상기하며 회독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하여 8~9월은 인강으로 전환하여 템포를 조금 늦추고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 9~11월 |

10월부터는 다시 월, 화 직강을 참여하여 모의고사를 풀면서 텐션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종합모고가 시작되면서 개인적으로 교육학 회독 스케줄을 짜고 회독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혼자 중얼거리는 구두 암기 방식으로 4~5회독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전공의 압박으로 교육학을 자주 소홀히 하게 되며 계획하였던 대로 회독이 안 되고 자꾸 미루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학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의 부담 없는 밴드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주 4회 공부한 흔적으로 밴드로 올려서 인증하는 스터디입니다.)

또한 여러 강사 모의고사를 봐야 한다는 불안감이 오게 됩니다. 권지수 교수님께서 정 불안하면 1명 정도의 타 강사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까지 추천해줍니다. 따라서 다른 교육학 교수님 강의를 듣고 계시던 전공 짝스터디 선생님과 서로 모의고사를 교환하여 키워드 정도 써보며 사 고의 유연성(?)을 키우려고 하였습니다.

* 저의 1년 공부에서 교육학 공부시간은 직강, 스터디, 개인 공부시간을 다 합쳤을 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70% → 20% 정도로 줄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교육학 19 / 전공 67 = 총 86

지역: 평가원(도 지역), 3수, 일 병행(주2회 학원)

안녕하세요. 저는 평가원 도 지역에 세 번의 시험 끝에 합격하게 된 재수 같은 삼수생입니다. 제가 준비한 공부방법은 참고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올인 재수를 한 번 했어서 올해엔 학원에서 시간강사를 주2일 하면서 병행하였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좋으셔서 일은 편한 편이었고, 주2일이 크게 부담은 안 됐어요. 오히려 학원 일을 하게 되면서 정확한 독해 실력과 학교 문법 실력, 칠판 판서 실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주2회 정도까지의 병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부방법은 기본적으로 초수와 재수 이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후기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3수생이었기에 주로 재수 이상에게 추천드리는 공부법입니다. 초수는 서브노트 작성이 필요 없고, 교육학, 내용학은 기본서 중심, 일명 문학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2차는 점수가 높지 않아, 1차 중심으로 수기를 보여드릴게요.

학습전략

[시기별 공부내용] 매일매일, 꾸준하게! 반복과 복습 시처럼 공부하기

| 2~4월 | (개념다지기)

개념정리(인강) 듣고, 기본서 서브노트로 정리(복습하면서 정리)
전화스터디 구두인출

| 5~6월 | (서브노트 정리하기)

개념정리(인강), 기본서 서브노트 정리 + 교육학 객관식 기출 표현 정리
전화스터디 구두인출

| 7~8월 | (서브노트 완성, 문제풀이)

7~8월 영역별 문제풀이 (직강, 스터디) → 서브노트로 정리, 반복학습
전화스터디 구두인출

| 9~10월 | (서브노트 반복, 실전연습) 교육학 비중 높이기!

9~11월 실전 모의고사 (직강) + 스터디
모의고사 개요작성 스터디 (매일 2개 씩)
서브노트 무한반복
백지 쓰기, 전화스터디 구두인출

| 11월 | (예상 핵심문제, 백지인출) 교육학 비중 (50%)

권지수 핵심문제 백지쓰기 인출, 서브노트 무한 반복
전화스터디 구두인출(핵심문제 바탕)

[영역별 공부내용]

1. 나만의 서브노트 만들기, 반복과 암기, 인출스터디

교육학은 올해 19점 고득점을 했네요. 교육학은 정말 반복과 암기가 답입니다. 저는 강사들 책 중에 제가 쓸 만한 내용을 워드로 계속 과목별로 정리하면서 공부했어요. 지하철이나 돌아다닐 때, 심지어 예비군에서도 교육학은 계속 전화스터디로 인출연습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반복과 숙달이 답입니다 교육학은)

★ 특히나 잘 안 외워지는 부분 ARCS / 교수학습, 공학 모형들 / 토마스 갈등처리전략 등 모두 포스트잇 활용해서 집이나 독서실 책상에 다 붙여놨어요.

★ 서브노트 정리

교육학은 각 교수님들 별로 명칭이나 말이 다를 수 있어서 저한테 가장 편한 사람으로 골라서 파트별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권지수교수님 쪽쪽책을 기반으로, 다른 강사들 자료내용 조금 추가해서 정리했어요. 쪽쪽을 기준으로, 모고 내용 추가하면서 정리하고, 소화하시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많이 보는 것보다는)

초수나 전공 외울 거 많으신 과목은 굳이 서브노트 안 작성하고, 요약쪽쪽에다가 수기로 추가하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어과는 외울 게 별로 없어서, 전 교육학을 꼼꼼하게 서브노트 작성했습니다.

★ 교육학 실전모고와 직강스터디

7~8월 9~11월에는 실전모고고사를 저는 직강으로 들었어요. 직강에서 좋은 스터디원들 만나서 함께 이전에 나온 개념을 암기하고 백지인출하고, 구두로 돌아가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했어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함께 암기하게 되어서 암기 잘 못하는 저에게는 매우 도움되었던 방식입니다.

교육학은 초수이시면 50% 정도 투자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지엽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수이상이라면 기본서나 서브노트 위주로 초반엔 (20%) 정도로 돌리시고(이해 중심의 공부) 후반부에 갈수록 (50%) 까지 공부 비율을 높여주세요(후반부엔 암기 중심)! 교육학은 이전에 한번 봤느냐 안 봤느냐가 중요하고, 제시문에 없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인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은 스터디를 통해 저는 인출과 암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오프라인 스터디는 권지수쌤 직강이 끝나고 배운 내용을 스터디원들과 백지쓰기 후 돌아가며 랜덤으로 인출하는 연습했어요. (권지수쌤 영역별로 돌리고, 이전 모고 문제 암기하고, 9~11월엔 핵심문제 중심으로 스터디했어요. 스터디하는 날 웬만해서 다 외우고 가려고 했어요)

온라인스터디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인출연습 하고자 했고, 저는 2월부터 11월까지 밤에 교육학 전화스터디를 잡아서 핵심문제를 중심으로 서로 물어봐주고 부족한 부분, 빠트린 키워드는 피드백주는 방식으로 짝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저녁에 스터디하고 바로 외우고 자니까 암기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 같아요! 교육학은 저녁에 암기하고, 전화스터디 잡는 거 강추입니다.

2. 마음가짐 - 성실성, 침착함, 효율성이 중요!

전 무엇보다 임용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 모고 점수에 흔들리지 말자. (모고는 교수님 모고 기준 보통 상위 10~30% 왔다갔다 했습니다. 모고 잘 봐도 절대 흥분, 자만하면 안 되고, 침착함,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타인의 말, 등수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방법대로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해 보여요. 물론 모고 성적을 잘 받으면, 시험에서 고득점 가능성이 높지만, 모고 점수 높은 사람이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자신을 믿었고, 침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문제씩 최선을 다해 푸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다 맞아버리겠다는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풀었습니다.)

답안을 바로 적는 것이 아니라, 기입의 경우 후보자를 생각하여, 더 포괄적이고 명확한 답을 고르거나 했어요. 서술의 경우 답안 근거를 표시하고, 답안에 들어갈 키워드 서술을 머릿속으로 구조화해서 깔끔하게 적거나 했어요)

공부 시간은 재면서 하진 않았지만, 최소 8~9시간 이상으로 잡았어요. 피곤하거나 졸리면, 카페에 나가서 인강 듣거나, 서브노트 정리하거나, 집중 안 되는 저녁시간에 스터디를 잡거나 해서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공부가 안 되시면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미드를 보던가, 잠깐 산책을 하는 것이 효율성을 더 높인다고 생각해요.

3. 친구나 관계, 연애 - 주말 중 하루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저는 친구들 생일파티도 가며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재수 이상이라 가능하기도 하지만요.) 연애도 했고, 가족들이랑 저녁도 주말에 꼭 함께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계획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못 지키더라고요, 밀리기만 하고) 전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일영, 문학하고, 점심 먹고 교육학이나 인강듣고, 오후엔 영어학하고, 저녁엔 영교론이나 부족한 과목하는 방식이었어요.

(순서는 제가 못하는 과목을 먼저 하고, 잘하는 과목은 뒤로 뺐습니다) 주말엔 모고스터디했고요(주말에 모고 풀고, 토일 저녁부터 친구들 약속 잡거나 쉬었어요 8월까지)

9월 이후에는 종합반 직강, 모고스터디 등 주 3회 잡아서 풀었어요. (이 방법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돼요) 저는 실전에 당황하는 성격이라 이런 방식으로 많이 실전연습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문제 풀고 복습하는 게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실제로 답안을 깔끔하게 쓰고, 시간을 여유 있게 푸는 연습을 하는 데 도움됐어요(나중에 가선 10분씩 남겼습니다)

복습의 경우 전화스터디나 오프라인 스터디를 통해 think-aloud 하며 일영, 문학 위주로 복습하였고, 내용학은 모르는 문제만 서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교환하여 시간을 아끼고자 했습니다.(딱판에 시간은 금이에요!!)

1년을 단 하루의 시험을 위해 올인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성실하게 공부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일 년은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중간중간 성적이 안 올라 힘들고, 슬럼프도 있었으나, 이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입니다. '나는 붙을 것이다.'란 마음가짐과 모고 등수가 아닌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을 맞겠다는 만점 목표로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믿음대로 실력도 올라갈 것입니다. 점수보단, 영어 실력 자체를 올리고자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를 거예요. 선생님들 수험생활에 제 수기가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두 화이팅해서 교직에서 만나길 응원하겠습니다.

◆ 2019학년도 최종합격수기 이제야 올립니다.

(2018년 가정 합격 수기입니다. 지수쌤 덕분에, 교육학 19.33을 받았어요. 교육학 공부에 대해서만 수기 남길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2018년 가정 임용고시 최종 합격자입니다. 합격수기를 미리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야 올리게 되었네요.

저는 우선 2명 뽑는 지역에 응시해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최종합격을 하기까지, 교육학 권지수 교수님과, 교육학 스터디원들이 도움이 가장 컸어요. 기간제를 하면서 올인한 적이 없어서 작년 한 해만 올인해 보자 맘먹고 노량진으로 무작정 왔습니다. 학교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았어요. 2017년도 교육학 점수는 14.66이었고요, 올해는 19.33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2017년에 여름 한 달 정도 스 쌤 교육학 강의를 듣고, 중요한 핵심을 잘 짚어주시지 않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적중률도 실상 낮더라고요(내용 설명도 너무 간략했음).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권지수 선생님을 택했습니다(꼼꼼하셨고 명쾌한 답변과 내용들이 쑥쑥 들어왔어요). 그 선택은 역시나 탁월했습니다. 저는 주변 임고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권지수 선생님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저의 갖지수님!).

그럼 제가 교육학 공부를 했던 방법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기간제를 병행하며 교육학 공부를 해왔던 터라 알았던 지식이 권지수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갔습니다. 세세하게 교육학을 공부한 건 처음이었어요. 권지수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쑥쑥 이해가 되고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쉬워졌습니다. 저의 교육학 암기 비법은 바로 '칭킹' 입니다. 사람마다 암기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 후, 앞 글자를 따서 칭킹으로 교육학의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두문자 적극 활용). 또한 교수님께서 주시는 별따지 ★★★개, ★★개, ★개도 늘 구조화하여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연도 시험에서도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별따지 3개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적중률 100%).

제가 글 솜씨가 없어서 주저리주저리 쓰게 되네요.

아, 참! 저는 시험이 다가오기 2달 전에, 교수님께서 손수 써주신 "OOO쌤!, 수석합격을 기원합니다-권지수" 라는 글귀를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설정해 놓고 부적처럼 매일 보면서 열공했습니다. 이 부적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일 년 권지수 교수님만 믿고 가시면 무조건 교육학은 고득점입니다.

◆ 2019학년도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면 너도나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2018 인천광역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유안나입니다. 저는 이번 2월 졸업예정자로 시험에 응시하여 초수로 합격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2월 22일 교육대학원 졸업예정으로 지난 1년 중 1학기는 학부생처럼 교육학과, 전공과목 수업을 들었고, 2학기는 논문 쓰기와 발표(임용 3일 전 논문 발표)를 동시에 하느라 공부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약조건이었지만 제 과목은 임용 티오가 많이 안 나기도 하고, 시험도 자주 없어서 티오가 나면 무조건 한 번에 붙는다는 각오로 공부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약조건에도 기적처럼 합격했던 것처럼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힘든 수험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합격수기를 올립니다.

| 1~2월 |

(회사를 다니던 시기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했는데, 일을 병행하느라 몸이 많이 피곤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시기이다.)

박문각 권지수 교육학 커리큘럼 따라가기

교수님의 깔끔한 자료 스타일이 좋아서 수강을 결심하였고, 샘플강의 때도 깔끔한 강의에 이끌려 교수님 수업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느라 시간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일요일반을 수강하였습니다. 1월 1일 첫 개강, 한 시간 먼저 교실에 도착해서 노량진의 분위기를 음미하였습니다. 1~6월까지의 일요일반을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수업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면 따로 스터디가 필요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약 1시간 후 교수님 앞에서 암기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날 배운 내용을 암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수님은 교육학 수업 초기인 기본이론반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암기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통해 자연스레 개요를 짚 훑게 도와주고, 점점 반복하여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 3~4월 |

(회사를 그만두고, 노량진으로 이주하여 본격 고시생의 길을 걷다.)

교육학은 심화이론!

3월은 학교가 개강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과목은 사실 3월부터는 임용 최종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합류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저희 과목은 전년도에 임용시험이 없었기도 하지만 재수생분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시기일 것 같아서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임용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여 전공교육론 & 교육학 등에서 비중이 높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수강 신청하여 수업을 들었습니다.

권지수 교육학 3~4월 심화이론반 수업은 반복 및 정교화 수업이었습니다.

1~2월 수업 때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으면서, 더 깊게 다루므로 자신감이 있었다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같이 공부하는 쌤들에 비해 암기를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기를 가지고 일요일반에서 못 외우면 화요일(월화반) 수업 끝날 때쯤 나와서 외울 때까지 암기하고 집에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이때부터 교수님 수업을 녹음해서 들었는데,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되어서, 학교수업 오가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에 녹음한 부분을 다시 듣고 반복하였습니다. 이때는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물 흐르듯 들었습니다. 다시 들으니까 안 들렸던 부분도 들리곤 하였습니다.

| 5~6월 |

(여전히 학교수업을 들으며, 논문을 미리 조금씩 작성하기 시작. 350부 이상의 설문지 돌리기 완료!)

이것 역시 교수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월화반으로 전환하여 교육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교수님이 임용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이해 주시는데 이때 제 머릿속의 오개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업이 끝나고 매일 암기테스트를 하였는데, 잘 외우는 타 과목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서 경쟁심을 가지고 암기하려고 아등바등하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수강하시는 선생님과 추가로 매일 한 문제를 풀 후 카톡방에 인증하여 올리는 작업으로 조금씩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7~8월 |

같은 전공 선생님들을 교육학 수업에서 마주치다! 긴장감은 두 배! 집중력도 두 배!

모의고사 수업이 개강되는 7~8월에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을 직접 글로 풀어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공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 수업의 장점이 문제풀이도 문제풀이지만 이론강의 반복도 대충하는 법이 없으셔서 이때도 이론을 까먹지 않게끔 계속 반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 학교에 다니다 보니 같이 1월부터 공부하시던 쌤들에 비해 실력 차가 월등히 느껴서 자존감도 하락하고 괴로워해 혼자 울며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수강생들이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권지수 교수님의 탁월한 강의력과 고퀴리티 자료들이 아무래도 입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같은 과목 선생님들과 함께 수강하다 보니 덕분에 저는 7~8월 여름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긴장하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수업 5분 전까지 학원에 도착하곤 했는데, 1시간 먼저 학원에 도착해서 전공이나 교육학 등을 복습하였습니다.

전화스터디

이때 교육학 수업을 같이 듣던 가장 친한 영어쌤과 전화스터디를 하여 아침마다 30분~1시간씩 서로 외운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고시원에 혼자 살고 지질 체력이다 보니 선생님이 일찍 모닝콜을 해주셨고 전화스터디를 통해 저의 오개념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협동학습의 효과인지 선생님은 저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의 지식을 정교화하고, 저는 간혹 선생님이 빠트리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며 교육학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 9~11월 |

(학교에서는 논문 마무리, 임용시험 3일 전에 논문 발표를 하다!)

교육학은 철저하게 권지수 교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9월부터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강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교수님도 학생들 관리, 모의고사 출제 등으로 매우 바빠서 상호작용이 어려웠습니다. 1월부터 함께해온 친한 쌤들인 미술쌤, 조리쌤, 영어쌤 등등 든든한 실력자쌤들과 함께 몰려다니며 어려운 부분은 함께 공부하고 암기를 체크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조금만 더 암기를 정교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라고 조언해 주실 때마다 내가 정말 못하는 건가하고 매번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교과교육론 공부를 같은 전공의 다른 교육학 수강생들과 하다 보니, 제가 재수생, 삼수생 선생님들에게 설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권지수 교육학을 수강하시는 쌤들이 반복된 훈련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작아보였던 것이었습니다.

| 11월 |

뭔가 아쉽지만 마무리!

저는 교수님과 풀어본 모의고사 문제와 교수님이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신 전년도 강의 속의 모의고사를 인쇄하여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시험 전까지 계속 반복하여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수업 마지막에 ‘핵심쟁점 목록’을 과목별로 키워드 정리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암기를 마무리했습니다(완전 강추!). 정말로 보통 교육학문제 중 1번 논점은 틀리는 게 대다수라고 하였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보니 1번부터 4번 논점까지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하신 그대로 나와서 저는 1교시부터 차분하게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전략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초수 동안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한 것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사 등 필요한 자격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자.

임용시험 응시를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전 해에 미리 한국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 놓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없으신 분이 계시면 최대한 빨리 응시 자격을 갖추고 시험공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 합격한 지인에게 조언 구하기, 카페의 합격수기 꼼꼼히 읽기, 합격설명회 찾아가기!

먼저 임용에 합격한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무작정 아무 준비 없이 찾아가서 질문하여 혼나기도 했지만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공부하는 동안 질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지만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친한 선생님께서는 공부하셨던 책과 서브노트 등을 제게 보내 주시기도 하고, 정신이 나태해질 때 따끔히 충고도 해주셨습니다(2차 준비할 때 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실연 등을 피드백 받으며 구체적으로 지도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구체적인 공부를 세우기 전에 합격수기 등을 카페나 출간된 서적을 통해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이 중 가장 공통되는 비법들을 추리고 나의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찾아 시도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저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대신 구조화 맵을 만들고 단권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스타일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카톡공부 인증, 생활스터디로 공부하는 습관 들이기

저는 임용시험 준비와 동시에 1년 공부계획표를 작성한 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카카오톡 하루 계획인증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3~4명으로 구성된 선생님들과 함께 기상인증과 동시에 하루 공부계획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이는 매일 단기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반기 때부터는 생활스터디를 구해 함께 자습실에 출석하는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독서실은 돈이 들기도 하였고 간혀 있는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인 학원 자습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오전 8시까지 자습실에 출석하기로 약속하여, 서로 기상을 체크하고 자습실에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혼자서 자습실에 가면 게을러지기 마련인데, 다른 선생님과 함께 가면 강제 효과가 있어서인지 더 집중을 가지고 공부하였습니다.

4. 공부시간을 위해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자.

수험생에게는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먹는 것, 잠자는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밥 같은 것보다는 고시텔 건물에서 운영하는 고시식당에서 주로 밥을 먹었습니다. 으름고시텔의 오르막백반은 가족들이 운영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데다 건강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가본 다른 고시식당에 비해 깔끔하고 입맛에 맞았습니다. 또한 4~10월까지의 노량진에 있는 휘트니스 클럽에 다니면서 매주 댄스도 하고 운동도 하였습니다. 힘든 고시생활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하루 1시간 씩 건전하게 운동으로 풀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 공부를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친한 미용쌤과 함께 운동했는데 그분도 지역수석 합격!). 이 밖에도 가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 노량진 코인 노래방에 가서 혼자 신나는 걸그룹 노래를 부르며 해소하였습니다.

5. SNS는 근절!!

저는 블로거 & 뷰티 유튜버 출신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까지 안 하는 SNS가 없는 소통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SNS가 방해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공부에 필요 없는 카톡방은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나갔습니다. 일 년 동안 딱 몇 개월만 사람들과 멀어지면 됩니다. 이때 잠깐 친한 지인들과 헤어진다고 인연이 영영 끊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응원해 줄 것이므로, SNS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은 다른 사람들이 뭐하고 사나 궁금하기도 하였는데, 점차 오프라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다른 사람의 생활은 궁금하지 않게 되고 오로지 저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공부 먹방일기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블로그에 가끔 사진을 업로드하고는 했습니다.)

6. 능력을 믿되 자만하지 말고 완전학습하자.

전 교육학을 공부할 때 항상 덜 외워지는 것 같아서 매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차 실력이 늘고 있었지만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보다 빠르게 성장하니까 초조하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완전학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수생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이 부분은 안 나와'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수생은 사실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공부하여 시험 당일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9~10월 즈음에 어느 정도 공부했다 싶으면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봐도 이게 어느 전공서의 어디 파트에 쓰여져 있는지 눈에 보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실제 임용시험 볼 때, '아! 이 문제는 내 자료 어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하고 보이는 것이 신기하였습니다.

7. 좋은 스터디원을 만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전공 | 저는 스터디원들을 만난 것이 대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초수였지만 마음 맞는 쌤들과 만나서 서로 감추지 않고 공부했던 것이 저를 합격으로 인도해준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다시 돌아봐도 이 선생님들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과 저는 정말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전공서 등 서로 도움이 될 부분을 복사하여 나눔하고 자료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들과 스터디가 끝나면 함께 저녁 후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왔습니다. 스터디 장소를 노량진뿐 아니라 건대, 동대문, 신당동, 왕십리 등등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여 공부를 빠르게 하였고,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들과 맛집 탐방을 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맛있는 고깃집(신설동 육전식당, 왕십리 땅고, 신당동 그릴1492 등)을 찾으러 다니고, 스티커 사진도 찍으며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이 저에게 오히려 공부하는 데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스터디 할 때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끝나고 놀고, 다시 '아 다른 수험생들은 이렇게 안 놀 텐데 널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는 반성을 반복하였는데, 오히려 이것이 다음날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학 | 교육학도 마음 맞는 선생님들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전부 재수, 삼수 이상의 열정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수업한 내용을 암기하고 서로 암기테스트를 해주며,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 주었습니다. 스터디를 구성할 때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생님을 옆에 두고 부족한 부분을 언제든지 여쭙어봄으로써 저도 바로바로 지식을 채우고, 상대쌤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저에게 설명함으로 인해 정교화하여 서로에게 이득이 되어야 합니다.

8. 내가 선택한 학원 교수님을 믿고 가기

간혹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내가 선택한 교수님이 맞을까 하는 불안감과 다른 스타강사 교수님은 어떻게 가르칠까, 다른 강사들의 자료가 더 좋은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노량진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오로지 선생님의 합격을 위해 연구하시며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신 전문가분들이십니다. 제가 지난 한 해 직접 만나 뵈 교육학의 권지수 교수님, 전공 교수님께서서는 저의 합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과제면 과제, 암기면 암기 모두 하라는 대로 그 커리큘럼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9. 교육학 전화스터디

매일 전화로 30분~1시간 정도 교육학 암기체크를 하였습니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암기한 내용을 인출하고, 인출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보면서 빈틈을 채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 녹음해서 듣기

저는 1학기 때는 매주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노량진에서 학교까지 왔다갔다 이동하였습니다. 이동시간이 짧지 않아서 저는 교육학 교수님의 직강수업을 녹음한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유머에 같이 따라 웃기도 하고 ‘아, 이때 이런 상황이 있었지~’ 하며 다시 회상하며 이론을 암기하곤 하였습니다. 간혹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들어보니 교수님 수업이 명료하고 깔끔한데,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하고 피식 웃기도 하며, 다시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며 이동시간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11. 책 사는 데 돈을 아끼지 말자(1년 학원비보다 더 싸다).

저는 임용시험을 보기 전부터 교보문고 상위 1% 고객이 될 정도로 책을 구매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그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본 사람 중 절대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보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책이 있으면 절대 주저하지 않고 구매하여 사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먹을 것을 사먹는 것은 뱃살을 찌게 하지만, 책을 사서 읽는 것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12. 스터디할 때는 보안을 철저히 그리고 내 사람들에게는 전부 주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 개월의 짧은 수험기간을 보면 임용시험은 경쟁을 통한 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잘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 본 바 절대 사람은 혼자 힘으로만 잘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제 합격의 비결은 저와 함께한 선생님들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합격을 위해 도움을 주셨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저와 1차 공부를 한 전공, 교육학 선생님들은 전부 초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8년도 임용 합격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과는 모두 합격해서 동료로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아낌없이 공유하였습니다. 나 혼자만의 자료가 아니라 함께하시는 선생님들과 자료를 공유하니까 자료가 배가 되고 얻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경쟁자뿐 아니라 스터디원의 경쟁자도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여 의리를 지키고자 자료 보안에 철저하였습니다. 우리 스터디원들의 핵심 병기 등을 소중히 하고, 우리 울타리 안에서는 아낌없이 퍼주어, 나도 합격하고, 스터디원들도 전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13. 운때가 맞았다. 늦게 피는 꽃이 오래 간다.

저는 저 혼자 잘나서 합격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합격을 빌어주고 합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으로 보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량진학원에서의 교육학과 전공교수님, 그리고 임용공부를 위해 배려해 주신 대학원 전공주임교수님, 그리고 제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부모님, 연락이 안 되도 배려해 주고 응원해준 친구들, 함께 힘든 길 잘 싸워준 스터디원들. 한 분 한 분이 좋은 에너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덕에 끝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버텼고, 올해 운때가 맞았기 때문에 노력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감사합니다. 비록 초수에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렸지만, 이 길을 가기 위해 저는 대학을 한 번 더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사이에 회사와 현장에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하였습니다. 돌고 돌아오는 동안 부족한 부분을 차곡차곡 채우며 단단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전에 저는 회사 취업을 위해 서류 광탈만 약 80번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남들 쉽게 판다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수없이 좌절하였고 두려웠으며, 부족한 스펙에 자존감이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에 무언가 합격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정말 저에게 의미 있고 감사합니다.

재수생, N수생 선생님 등 이번 임용시험에 아쉽게 탈락한 선생님이 계실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면, 절대 자신의 능력을 탓하지 마시고, 비록 티오가 1명일지라도 내가 된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만날 때는 교단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지수 교육학

합격
가이드북

PART



2027학년도 권지수 교육학 논술 연간 강의안내

1. 100% 적중신화의 탁월한 만점전략
2. 2027학년도 권지수 교육학 논술 연간 강의안내

권지수 교육학
강의의
탁월한 특징

✓ 명료한 이해와 암기, 오픈형 논술의 최적화
그리고 최고의 경이적인 적중률!!
권지수 교육학이면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가능해진다!!!

- 01 **교육학의 구조가 확실하게 잡히는 구조화된 강의!**
- 02 **배경지식과 사례로 이해를 추구하는 이해중심의 강의!**
- 03 **교육학의 핵심 키워드와 암기를 딱딱 잡아주는 명쾌한 강의!**
- 04 **오픈형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만점 지향의 강의!**
- 05 **논술 답안이 술술 쉽게 써지는 교육학 논술에 최적화된 강의!**
- 06 **해마다 빈틈없이 적중하는 탁월하고 경이적인 적중률 강의!**

1. 구조화된 강의

- ① 교육학 전체 프레임 한눈에 익힘: **Thinking Map**을 통해 **교육학의 구조**를 한눈에 조망하고 교육학의 체계를 확실히 다짐
- ② 교육학 전체 프레임 정교화함: **교육학 전체 구조와 틀**을 더욱 정교화하며, **교육학적 안목**을 완벽하게 형성

2. 핵심개념 및 암기법 강의

- ① 핵심키워드 이해 및 파지: **주요 개념과 이론의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파지**하도록 함
- ② 주요 암기법 제시: **암기법**을 제시하여 논술 답안에 쓸 분량의 **핵심만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함

3. 책 읽지 않는, 이해 중심의 강의

- ① 풍부한 배경지식 제시: 책을 읽어주는 강의가 아니라 **책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풍부한 배경지식**을 제시함
- ② 구체적인 사례 제시: 추상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교육학적 사례**를 접목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함

4. 탁월한 논술 능력 배양

- ① 논술의 논리를 파악: 논술의 **논리**들과 **모범답안**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도, **논술 부담이 전혀 없다**고 평가받는 강의
- ② 탁월한 논술능력 함양: 교육학 논술의 **모범답안** 및 **글쓰기 방법**과 **고득점 전략**을 제시하여 탁월한 **논술능력**을 함양함

5. 탁월한 100% 적중률 강의

- ① 학계 동향 반영: **최근 학계의 동향**을 살피고 **출제 가능한 논점**을 **엄선**하여 **문제화함**으로써 **매년 100% 적중**의 경이적인 만점 강의를 추구함
- ② 주요 쟁점 목록 제시: **매년 100% 적중**되는 **특A급 출제 논점**을 11월 초에 추려서 **쟁점목록**으로 제시해줌

Course	Teaching & Learning	Materials
1~2월 기본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의 전체 구조 한 눈에 파지하기: 교육학 전체 구조와 틀을 한 눈에 조망하며 교육학의 체계를 확실하게 다진다. • 주요 핵심 개념 정확하게 이해: 주요 핵심 이론과 개념을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지하도록 한다(암기법 제시). • 탁월한 논술능력의 기초 함양: 단문형 논술을 시작으로 기초 논술 능력을 함양하며, 직강의 경우 자율적 팀학습 및 학습상담도 병행한다. 	『합격지수100』 ppt, 프린트 무한반복 시스템
3~4월 심화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 전체 구조 정교화하기: 교육학 전체 구조와 틀을 더욱 정교화 하며, 교육학적 안목을 완벽하게 형성하도록 한다. • 교육학 이론의 심화 및 종합: 교육학 이론을 좀 더 심화하며,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육학 전체를 완성한다(암기법 제시). • 탁월한 논술능력의 기본 함양: 단문형 논술을 중심으로 기본 논술능력을 함양하며, 직강의 경우 자율적 팀학습 및 학습상담도 병행한다. 	『합격지수100』 ppt, 프린트 무한반복 시스템
5~6월 사례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출 객관식(변형) 및 논술형(행시 포함) 종합 적용: 이제까지 학습한 핵심개념을 응용 기출문제와 논술형 사례문제에 적용한다. • 사례 연습 및 모범답안(100제)을 통한 적용력 강화: 핵심개념을 다양한 사례문제에 적용하며 핵심개념의 사례 적용력을 강화한다. • 탁월한 논술능력의 고급 함양: 중단문 사례논술을 중심으로 기본 논술 능력을 함양하며, 직강의 경우 자율적 팀학습 및 학습상담도 병행한다. 	『논점쑏쑏』 『핵심쑏쑏』 논술 스킵 ppt, 프린트 무한반복 시스템
7~8월 영역별 모의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이적인 적응률을 보이는 영역별 종합 모의고사: 경이적인 적응률을 자랑하는 영역별 모의고사로서, 영역별로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주요 예상 쟁점을 확인하고 실전 감각을 익힌다. • 출제 1순위 쟁점의 완벽한 정리 및 완성: 출제 1순위의 예상 핵심 쟁점을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총정리하고 완성한다(암기법 제시). • 탁월한 논술능력의 완벽 함양: 완결문 논술을 통해 완벽한 논술능력을 함양하며, 직강의 경우 자율적 팀학습 및 학습상담도 병행한다. 	『핵심쑏쑏』 논술 스킵 ppt, 프린트 무한반복 시스템
9~11월 종합 모의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이적인 적응률을 보이는 종합 실전 모의고사: 경이적인 적응률을 자랑하는 종합 실전 모의고사로서, 종합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체험하며 주요 예상 쟁점을 확인하고 실전 감각을 완성한다. • 출제 1순위 예상 쟁점 점검 및 확인: 출제 1순위의 예상 핵심 쟁점을 재정리하며, 꼭 알고 가야 할 출제 1순위 특급 쟁점을 확인한다. • 탁월한 논술능력의 완벽 함양: 완결문 논술을 통해 완벽한 논술능력을 함양하며, 직강의 경우 자율적 팀학습 및 학습상담도 병행한다. 	『핵심쑏쑏』 『요점쑏쑏』 논술 스킵 ppt, 프린트 무한반복 시스템
12월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적성 심층면접 만점전략: 심층면접 대비 만점전략과 지름길을 확실하게 안내해 준다. •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 기출문제를 점검하고 예상문제를 보완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교직 심층면접』 프린트

권지수 교육학

합격
가이드북

PART



중등임용 시험일정 및 출제범위

1. 제1차 시험
2. 제2차 시험
3. 지역별 제2차 시험

2026학년도 임용시험 기준

전형별	시험과목		대상	시간	비고
제1차 시험	교육학		응시자 전체	1교시 09:00~10:00(60분)	전국 공통
	전공	전공 A		2교시 10:40~12:10(90분)	
		전공 B		3교시 12:50~14:20(90분)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3급 이상)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점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고시 제2021-31호(2021. 10. 27.)의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특수(중등),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전공	전공 A	2교시 (90분)	기입형	4문항 8점	40점
			서술형	8문항 32점	
	전공 B	3교시 (90분)	기입형	2문항 4점	40점
			서술형	9문항 36점	
소계			23문항	80점	-
계(배점)			24문항	100점	-

2026학년도 임용시험 기준

전형별	시험과목	대상	시간	비고
제2차 시험 (지역 별지 참조)	실기·실험 평가	제1차 합격자 중 실시과목 응시자	09:00~	[실험평가] 지역별로 포함여부 다름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제1차 합격자 (비교수 교과 제외)	09:00~10:00 (60분)	[제외] 경기, 대구, 인천, 세종,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수업 실연		12:00~ [평가시간: 20분]	경기(수업실연: 15, 수업나눔: 10) 충북(20분/ 수업실연: 평가원, 수업성찰: 자체출제) 대구(25분), 강원(15분)
	교직적성 심층면접	제1차 합격자 전체	12:00~ [평가시간: 10분]	[10분] 경기(개별면접) [15분] 서울, 강원, 세종 [25분] 대구(인문, 정신, 소양, 평가)

※ 교과 구분

- 1) 일반 교과: 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 2) 비교수 교과: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 심층면접 출제기관

- 1) 평가원 출제: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인천, 충북 (12개 지역)
- 2) 자체 출제: 서울, 경기, 세종, 강원(평가원+자체출제), 대구(평가원+자체출제) (5개 지역)

지역별 제2차 시험

※ 2026학년도 임용시험 기준

※ 지역별로 출제기관, 출제범위와 배점 분배가 다를 수 있으니 공고 확인 ※

1. 서울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실험 교과	비 교과	
실기·실험 평가	○음악, 미술, 체육, 기계, 전기, 전자, 기계 ○과학교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30	-	해당 교과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6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5	10	-	비교과 제외
수업실연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구상 20분, 실연 2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5	2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서울교육 정책의 이해[구상 15분, 면접 15분] ※ 구상형 2문항, 즉답형 1문항, 추가질문 2문항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0	자체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2. 경기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교과	비 교과	
실기평가	○음악, 미술, 체육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30	-	해당 교과
수업실연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 수업설계역량 1문항, 수업실연 1문항 ※ 외국어 과목의 경우, 수업설계역량 문항은 한국어로 실 시하며, 수업실연 문항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60	30	-	비교과 제외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0분, 면접 10분] ※ 외국어 과목: 수업실연은 해당 외국어로 전부 실시 ※ 비교수교과의 개별면접은 구상형 평가와 즉답형 평가 를 평가실을 분리하여 실시	40	40	100	자체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3. 인천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교과	비 교과	
실기평가	○음악, 미술, 체육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30	-	해당 교과
수업실연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2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형 2문항, 즉답형 2문항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50	100	자체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4. 대전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실험 교과	비 교과	
실기·실험 평가	○음악, 미술, 체육 ○과학교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30	-	해당 교과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6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5	10	-	비교과 제외
수업실연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구상 20분, 실연 2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5	2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0분, 면접 10분] ※구상형 3문항, 즉답형 1문항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0	평가원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5. 대구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실험 교과	비 교과	
실기·실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 체육 ○과학교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문계교과(기계, 전기, 전자) ○정보컴퓨터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40	-	해당 교과
수업실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구상 25분, 실연 25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2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20분, 면접 25분] ※평가원(구상형 3문항, 즉답형 1문항), 자체 3문항(구상형 3)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60	40	100	평가원 +자체
계(배점)		100	100	100	

6. 부산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교과	비 교과	
실기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 미술, 체육, 정보컴퓨터, 전자, 기계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30	-	해당 교과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6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5	10	-	비교과 제외
수업실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구상 20분, 실연 2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5	2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0분, 면접 10분] ※구상형 3문항, 즉답형 1문항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0	평가원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7. 울산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교과	비 교과	
실기평가	○음악, 미술, 체육, 전기, 기계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30	-	해당 교과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6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5	10	-	비교과 제외
수업실연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구상 20분, 실연 2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5	2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0분, 면접 10분] ※구상형 3문항, 즉답형 1문항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0	평가원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8. 세종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실험 교과	비 교과	
실기·실험 평가	○체육 ○과학교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30	-	해당 교과
수업실연	○수업실연 [구상 20분, 수업실연 2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2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5분, 면접 15분]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50	100	자체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9. 광주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교과	비 교과	
실기평가	○ 예·체능 각 선발 예정 과목의 실기능력 평가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30	-	해당 교과
수업실연	○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평가 [구상 20분, 실연 2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60	3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0분, 면접 10분] ※ 구상형 3문항, 즉답형 1문항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0	평가원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10. 강원도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실험 교과	비 교과	
실기·실험 평가	○ 체육(자체 출제)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40	-	해당 교과
수업실연	○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평가원 출제) [구상 15분, 실연 15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2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5분, 면접 15분] ※ 구상형 3문항, 즉답형 1문항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40	100	자체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11. 경상남도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실험 교과	비 교과	
실기평가	○음악, 미술, 체육, 전기, 정보·컴퓨터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30	-	해당 교과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6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5	10	-	비교과 제외
수업실연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구상 20분, 실연 2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5	2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0분, 면접 10분] ※구상형 3문항, 즉답형 1문항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0	평가원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12. 경상북도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실험 교과	비 교과	
실기·실험 평가	○음악, 미술, 체육 ○과학계열(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30	-	해당 교과
수업실연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구상 20분, 실연 2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2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0분, 면접 10분] ※ 구상형 3문항, 즉답형 1문항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50	100	평가원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13. 충청남도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실험 교과	비 교과	
실기·실험 평가	○음악, 미술, 체육 ○과학교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50 (실험: 30)	-	해당 교과
수업실연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구상 20분, 실연 2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25 (실험: 3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0분, 면접 10분] ※구상형 3문항, 즉답형 1문항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25 (실험: 40)	100	평가원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14. 충청북도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교과	비 교과	
실기평가	○과학교과/전문교과/예체능교과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30	-	해당 교과
수업실연 [구상 20분, 평가 20분]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2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평가원 출제]	50	50	100	평가원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15. 전라남도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교과	비 교과	
실기평가	○음악, 미술, 체육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40	-	해당 교과
수업실연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구상 20분, 실연 2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1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0분, 면접 10분] ※구상형 3문항, 즉답형 1문항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50	100	평가원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16. 전라북도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교과	비 교과	
실기평가	○음악, 미술, 체육(운동복, 운동화 본인 준비[신분 및 학교 노출되는 운동복, 유니폼 금지])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40	-	해당 교과
수업실연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구상 20분, 실연 2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60	2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0분, 면접 10분] ※ 평가원(구상형 3문항, 즉답형 1문항)(10분)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0	평가원
계(배점)		100	100	100	

17. 제주도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교과	비 교과	
실기평가	○체육, 음악, 미술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30	-	해당 교과
수업실연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구상 20분, 실연 2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3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0분, 면접 10분] ※구상형 3문항, 즉답형 1문항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40	100	평가원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권지수 교육학

합격
가이드북

PART

IV

2013~2027학년도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분석

1.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분석
2. 교육학 영역별 출제경향 분석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분석

* 교육학 논술(20점)=내용 영역(15점), 체계 영역(5점)

연도	전체 주제	출제 논점(소주제)	출제 영역	논술 유형
2013학년도 (중등 특수) [2013. 5. 25.]	IQ의 해석 ↓ 학습 동기	IQ의 해석 [3점]	교육심리학	[대화문] • 설명형 • 관점 제시형 • 실질적 제시문
		기대×가치이론 (학습동기 상실 원인/해결방안) [6점]	교육심리학	
2014학년도 [2013. 12. 7.]	학습 동기 유발 ↓ (수업 참여 촉진)	잠재적 교육과정 (진단: 수업 소극적 참여) [3점]	교육과정	[대화문] • 설명형 • 관점 제시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
		문화실조(진단: 수업 소극적 참여) [3점]	교육사회학	
		협동학습 실행(학습동기 유발 방안) [3점]	교육방법론	
		형성평가 활용(학습동기 유발 방안) [3점]	교육평가	
2014학년도 (상반기 추시) [2014. 6. 28.]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향상 및 교사의 수업 효과성 증진 ↓ (학교생활 적응)	차별접촉이론/낙인이론 (원인: 학교 부적응) [3점]	교육사회학	[성찰 일지] • 설명형 • 관점 제시형 • 관점 추론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
		행동주의 상담 기법 (학교생활 적응 향상) [3점]	생활지도와 상담	
		인간중심 상담 기법 (학교생활 적응 향상) [3점]	생활지도와 상담	
		발견학습 (학문중심교육과정에 근거한 전략) [3점]	교육방법론	
		장학 활동(교사 전문성 개발) [3점]	교육행정학	
2015학년도 [2014. 12. 6.]	교육개념에 충실한 자유교육의 이상 실현	자유교육 관점에서 교육 목적 (내재적 목적) [4점]	교육철학	[워크숍] • 논증형/설명형 • 관점 제시형 • 관점 추론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특징) [4점]	교육과정	
		Keller ARCS (학습동기 향상-과제제시 방안) [4점]	교육방법론	
		Senge 학습조직 (학습조직 구축 원리) [4점]	교육행정학	
2015학년도 (상반기 추시) [2015. 6. 27.]	교사의 과제 (학교 및 수업에 대한 이해)	학교교육의 선발·배치 기능/한계 (기능론 관점) [4점]	교육사회학	[학교장 특강] • 설명형 • 관점 제시형 • 관점 추론형 • 형식적 제시문
		관료제 및 이원결합체제(특징) [4점]	교육행정학	
		ADDIE 모형(분석 및 설계의 주요 활동) [4 점]	교육방법론	
		준거지향평가(개념 및 장점) [3점]	교육평가	

연도	전체 주제	출제 논점(소주제)	출제 영역	논술 유형
2016학년도 [2015. 12. 5.]	교사의 역량 (교과·생 활지도· 조직활동)	경험중심 교육과정 (장점 및 문제점) [4점]	교육과정	[자기계발계획서] • 설명형 • 관점 추론형 • 형식적 제시문
		형성평가(기능 및 시행 전략) [4점]	교육평가	
		에릭슨(심리적 유예기)/반두라(관찰학습)(개념)[3점]	교육심리학	
		비공식 조직(순기능 및 역기능) [4점]	교육행정학	
2017학년도 [2016. 12. 3.]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실질적 구현	교육기획(개념과 효용성) [4점]	교육행정학	[신문 기사] • 논증형/설명형 • 관점 추론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
		내용조직의 원리(통합성+2가지) [4점]	교육과정	
		조나선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학습지원 도구·자원과 교수활동) [4점]	교육방법론	
		타당도의 유형과 개념 (내용 타당도) [3점]	교육평가	
2018학년도 [2017. 11. 25.]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	워커 모형(명칭과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 이유) [4점]	교육과정	[대화문] • 설명형 • 관점 추론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
		문제중심학습 (학습자 역할, 문제 특성과 학습효과) [4점]	교육방법론	
		평가유형(준거지향·개인차 해석, 능력지향·성장지향) [4점]	교육평가	
		동료장학(명칭과 개념, 활성화 방안) [3점]	교육행정	
2019학년도 [2018. 11. 24.]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	다중지능이론(명칭과 개념, 개발과제와 그 이유) [4점]	교육심리학	[교사협의회] • 설명형 • 관점 추론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
		경험선정의 원리(기회·만족 원리)/잠재적 교육과정(개념, 결과 예시) [4점]	교육과정	
		척도법(리커트 척도)/문항내적 합치도 (신뢰도 추정방법의 명칭과 개념) [4점]	교육평가	
		변혁적 지도성(명칭, 신장 방안) [3점]	교육행정	
2020학년도 [2019. 11. 23.]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	비고츠키 이론(지식론 명칭과 지식의 성격, 교사와 학생의 역할) [4점]	교육심리학	[교사협의회] • 설명형 • 관점 추론형 • 관점 제시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
		영 교육과정(시사점)/중핵 교육과정 (교육내용 조직방식의 명칭, 이 방식이 토의 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4점]	교육과정	
		정착수업(원리)/위키 활용 시 문제점 [4점]	교육방법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학교문화 유형 (명칭, 개선방안) [3점]	교육행정	
2021학년도 [2020. 11. 21.]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	교육과정 운영 관점(충실도 관점의 장단점, 생성 관점의 운영방안) [4점]	교육과정	[이메일] • 설명형 • 관점 추론형 • 관점 제시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
		자기평가(교육적 효과, 실행 방안) [4점]	교육평가	
		온라인 수업(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의 예, 토론게시판을 활용한 학생 지원 방안) [4점]	교육방법	
		의사결정 모형(명칭, 개선방안) [3점]	교육행정	

연도	전체 주제	출제 논점(소주제)	출제 영역	논술 유형
2022학년도 [2021. 11. 27.]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교육과정(수직적 연계성, 교과내 교육과정 재구성) [4점]	교육과정	[학교 자체 특강] • 설명형 • 관점 추론형 • 관점 제시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
		교육평가(총평관에서 진단검사, 평가결과 해석기준) [4점]	교육평가	
		교수전략(딕과 캐리 모형의 교수전략, 온라인 수업에서 고립감 해소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및 테크놀로지) [4점]	교육방법	
		교원연수(학교중심연수 종류, 활성화 지원 방안) [3점]	교육행정	
2023학년도 [2022. 11. 26.]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	교육심리(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4점]	교육심리	[학교 운영 자체 평가 보고서] • 설명형 • 관점 추론형 • 관점 제시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
		교육평가(형성평가 활용방안, 내용타당도) [4점]	교육평가	
		교육과정(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4점]	교육과정	
		관료제(순기능, 역기능) [3점]	교육행정	
2024학년도 [2023. 11. 25.]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	교육과정(잠재적 교육과정) [3점]	교육과정	[신임교사와 교육 전문가 대담] • 설명형 • 관점 추론형 • 관점 제시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
		교육방법(온라인 수업 상호작용) [4점]	교육방법	
		교육평가(능력참조평가, CAT 검사) [4점]	교육평가	
		학교운영위원회(구성위원 3주체, 그 구성의 의의, 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4점]	교육행정	
2025학년도 [2024. 11. 23.]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	교육과정(타일러 목표중심모형) [4점]	교육과정	[경력교사와 신임 교사의 대화] • 설명형 • 관점 제시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
		교육방법(조나센 구성주의학습환경)[4점]	교육방법	
		교육평가(준거참조평가, 교육평가 기본가정) [4점]	교육평가	
		교육행정(카츠 리더십 이론) [3점]	교육행정	
2026학년도 [2025. 11. 22.]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	교육과정(학교수준 교육과정, 자연주의 모형) [4점]	교육과정	[교사의 성찰일지] • 설명형 • 관점 제시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
		교육방법(학습자 특성, 라이겔루스 이론) [3점]	교육방법	
		교육평가(성장참조평가, 학생 참여 평가) [4점]	교육평가	
		교육행정(직무연수, 학교 중심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 [4점]	교육행정	

연도	영역	교육 과정	교육 심리	교육 방법	교육 평가	생활 지도	교육 행정	교육 사회	교육사 철학
2013 학년도 (중등특수)			IQ해석, 기대가차이론 욕구위계이론						
2014 학년도	잠재적 cur.			협동학습	형성평가		상황적 지도성	문화실조	
2014 학년도 (상반기)				발견학습		상담기법 (행동주의, 인간중심)	장학활동	차별접촉 이론, 낙인이론	
2015 학년도	백워드 설계			ARCS			학습조직		교육목적 (자유 교육)
2015 학년도 (상반기)				ADDIE	준거참조 평가		관료제, 이완결합 체제	기능론 (선발· 배치 기능/ 한계)	
2016 학년도	경험중심 cur.	에릭슨, 반두라			형성평가		비공식 조직		
2017 학년도	내용조직 원리			조나센	내용 타당도		교육기획		
2018 학년도	위커 모형			PBL	준거참조평가 · 자기참조평가		동료장학		
2019 학년도	경험선정 원리, 잠재적 cur.	다중지능 이론			리커트척도 신뢰도 추정방법		변혁적 지도성		
2020 학년도	영 교육과정, 중핵교육 과정	비고츠키 이론		정착수업, 위기활용			스타인호 프와 오웬스의 학교문화 유형		
2021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관점			온라인 수업	자기평가		의사결정 모형		
2022 학년도	수직적 연계성, 교육과정 재구성			디과 캐리 모형, 온라인 수업	총평관에서 진단검사, 평가결과 해석기준		학교중심 연수		
2023 학년도	경험중심 cur, 학분중심 cur.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형성평가, 내용타당도		관료제		
2024 학년도	잠재적 cur			온라인 수업 상호작용	능력참조 평가, CAT검사		학교운영 위원회		
2025 학년도	타일러 모형			조나센	준거참조평가 평가 기본가정		카츠 리더십		
2026 학년도	학교수준 교육과정 자연주의 모형			학습자 특성 라이프투스 이론	상향참조평가 · 학생 참여 평가		직무연수, 학교 중심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		

권지수 교육학

합격
가이드북

PART

V

교육학 논술

탁월한 만점전략 ⑤

1. 탁월한 만점전략 1: 공부방법을 알아야 한다
2. 탁월한 만점전략 2: 암기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3. 탁월한 만점전략 3: 교육학 논술 출제의 5대 원칙
4. 탁월한 만점전략 4: 교육학 논술공부의 5대 원칙
5. 탁월한 만점전략 5: 교육학 논술 스키마 획득

탁월한 만점전략 1: 공부방법을 알아야 한다

주의집중 ⇨ 이해 ⇨ 정리 ⇨ 암기 ⇨ 인출

주의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함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함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해	주의 집중한 정보 자극에 대해 개인이 의미와 해석을 부여함	이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 철자에 불과할 뿐이다.
정리	<p>조직화: 복잡한 별개의 정보들을 간결하게 하고, 구조적·기능적으로 관련짓고 묶음(분류, 구조화, 군집화 등)</p> <p>정교화: 새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하여 의미를 부여·심화함(구체화, 요약 등)</p>	핵심을 구조화하고 양축·요약하라.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단편적 지식에 빠져 허우적 거릴 것이다.
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을 장기기억 속에 저장함(정교화 암송) → 암기법, 초과반복학습 등 암기법: 두문자법, 윤율법, 스토리법, 연상법, 장소법, 종합법 등 	정리한 내용을 꼭 암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인출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의식수준에 떠올림(정보탐색 및 재생과정)	수시로 떠올려 보고 연습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바로 인출되지 않을 것이다.

탁월한 만점전략 2 : 암기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두문자법	첫 글자만 따서 암기 (두 번째 글자도 이용 가능)	<p>예 사색당파 간 다툼으로 벌어진 사화(士禍) 순서: 무갑기를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p> <p>예 국보 1~5호 순서: 송례문-원각사지집층석탑-진흥왕 순수비-고당사지부도-법주사쌍사자석등</p> <p>☞ 송원진고법</p>
운율법	운율(리듬)을 이용하여 암기	<p>예 조선시대 왕명: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 (4·3조 운율)</p> <p>예 화학원소 주기율표: '수~헬리 베푼탄~, 질~산플 네나 마~ ...' ('산~토끼 토끼야' 리듬)</p>
숫자 변환법	무의미한 숫자를 의미 있는 단어로 변환해서 암기(→ 1(ㄱ), 2(ㄴ), 3(ㄷ), 4(ㄹ), 5(ㅇ), 6(ㅂ), 7(ㅅ), 8(ㅇ), 9(ㅈ), 0(츠) 등)	<p>예 임진왜란(1592) : 국민재난(1592)</p> <p>예 대한제국선포(1897) : 겨우존손(1897)</p> <p>예 임시정부(1919) : 궁지궁지(1919)</p>
스토리법	이야기로 구성하여 암기	<p>예 우리 근대문학사 중 동인지의 발간 순서: 창조-폐허-백조-시문학</p> <p>☞ '천지를 창조하고 곧 폐허가 되었으나 백조가 날아 올라서 시문학이 탄생했다'</p> <p>예 고인돌 양식 - 북방식 고인돌(탁자식), 남방식 고인돌(바둑판식): '북한은 대화의 탁자에 나와야 한다. 남한은 지금 바둑북이 한창이다.'</p>
연상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본연상법: 여러 개의 단어들 시각적 형태로 변형(심상 형성)하거나 의미 있게 연결하여 암기 ② 중심연상법: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점차 확장되어 가는 내용일 때 사용(생각그물 만들기(Mind Mapping)과 같은 맥락) ③ 장소법: 친근한 장소나 상상한 장소에 순서를 정하고 암기할 내용과 연결하여 암기 	<p>예 '사자와 토끼' 암기: 사자가 토끼의 목을 물어뜯는 장면 상상/수성의 특징으로 '대기가 없어 밤낮의 온도차가 큼 / 표면이 달과 비슷함' 암기: 수성은 수성사인펜, 온도차는 온도계, 표면은 달을 연상</p> <p>☞ 수성사인펜으로 달 표면을 밤낮없이 찍었는데 기온이 완전 다른 온도계가 나오는 것을 상상함</p> <p>예 지증왕의 업적 암기: '국호제정, 마립간 대신 왕 칭호 사용, 우산국 정벌, 우경시작으로 생산력 확대' → 신라는 신라면. 지증왕은 지령이, 국호제정은 국물, 마립간 대신 왕 칭호 사용은 왕(王), 우산국 정벌은 우산, 우경시작으로 생산력 확대는 소고기로 연상</p> <p>☞ '신라면이 있다. 그 주변에 지령이와 밭이 있다. 지령이는 국물에 몸이 젖어 있고, 머리에는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다. 그 지령이가 우산을 쓰고 있다. 지령이는 소고기를 먹고 있는 중이다.' 로 연상</p>

연상법		<p>예 '수박-콩-참외-미나리-옥수수-참깨-호두-갈치-고등어-멸치' 암기: 우리 신체 1.머리-2.눈-3.입-4.목-5.가슴-6.배꼽-7.엉덩이-8.무릎-9.장딴지-10.발가락' 의 10개 순서를 미리 입력하고 암기할 내용과 연결함</p> <p>☞ 머리에는 수박을 이고 / 눈에는 콩알을 눌러 밝아 놓고 / 입으로는 참외를 입이 깨지도록 벌려서 깨물고 / 목에는 미나리를 칭칭 감고 / 가슴에는 옥수수를 창처럼 꽂고 / 배꼽에는 참깨를 소복하게 담아 놓고 / 엉덩이 사이에는 호두를 끼우고 / 무릎에는 갈치를 한 바퀴 감아서 매어두고 / 장딴지에는 고등어가 꼭 깨물고 있으며 / 발가락 사이사이에 멸치가 끼워져 팔딱거리고 있다.</p>
종합법	'두문자+축약+결합+연상' 등을 종합한 암기	<p>예 식물의 10대 영양소 : C-H-O-N-S-P-K-Ca-Mg-Fe</p> <p>☞ 혼스(C-H-O-N-S)런 피케이(P-K, 골키피)가 카페마을(Ca-Fe-Mg)에 나타났다.</p>

탁월한 만점전략 3: 교육학 논술 출제의 5대 원칙

1. 기본 개념과 이를 활용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교육학 논술 시험은 주관식으로 채점되기 때문에 평가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출제의 원칙상 복잡하며 잡다한 내용, 보편화되지 않은 최신 이론 등은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 교육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보편적인 기본 개념(지식)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사고력(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은 의외로 매우 방대하며 잡다하다. 수험생들은 이를 모두 암기하려 들거나 잡다한 지식을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우선, 교육학의 핵심 개념과 이론을 잘 살펴야 한다. 그 다음, 의미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며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분과학문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한다.

교육학은 여러 개의 분과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려고 가능하면 많은 분과학문에서 골고루 출제하고자 한다. 교육학 논술 문제는 큰 논제 하나로 출제되지만 그 논제에 적어도 4개 이상의 분과학문을 각각의 논점으로 하여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어느 한 영역이나 이론에 치우침이 없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다소 한정적이거나 세부적이라고 하여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넘겨서는 절대 안 됨에 유의해야 한다.

3. 논제 파악이 분명한 문제를 출제한다.

교육학 논술에서 논제나 논점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할 경우 수험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답안 채점에서 복수답안이 많아져서 채점에 어려움이 매우 많게 되며 변별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 일반 논술과는 달리 논제가 매우 분명하며 논점의 방향이 일의적이다. 쉽게 말해 무엇을 묻는지가 딱 떨어지는 분명한 문제가 출제된다.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논술 답안 역시 대체로 일정하게 정해진 답안의 기준에 수렴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요 개념과 이론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하나의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교육학 논술의 논점은 대체로 4개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각 논점들은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수 있도록 출제한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도록 출제한다.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의 내용 요건에 논술의 형식 요건

(서론, 본문, 결론)을 갖춰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교육학 논술 문제는 수험생들이 완결된 자신의 글에서 하나의 주제가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출제한다. 필요시에는 문제에서 특정 주제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도 고려한다. 논술문은 출제 형식에서 특정 주제가 제시되든 제시되지 않든 반드시 한 편의 완결된 글에서 하나의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써야 함이 원칙이다.

5. 배점 기준을 제시하여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도록 출제한다.

교육학 논술 평가에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제고하고자 평가 주체와 대상, 평가 주체들 간에 상호 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하려고 한다. 상호 주관성이란 평가의 주체와 대상, 평가 주체들 간에 평가 활동에 대한 진정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공유된 관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술 문제에 미리 배점 기준표를 제시하여 상호 주관성이 확보된 가운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배점 기준표는 평가 지침이자 채점의 준거 척도로서 기능하며 이를 평가의 실질적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주체와 대상, 평가 주체들 간에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탁월한 만점전략 4: 교육학 논술 공부의 5대 원칙

1. 구상하기 전략(이해하기): 교육학 개념의 이해 + 논술 도식의 이해

① 교육학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모든 공부가 그러하듯이 교육학 공부도 이해가 가장 우선이다.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암기는 무의미 철자의 암기와 같다. 교육학 공부의 출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교육학 지식은 사실과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개념들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학 내용을 이해하려면 개념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문의 내용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사전을 찾든지 질문을 하든지 혹은 강의를 듣든지 해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의미가 뚜렷해지고 구체화될수록 글은 정확히 이해된다. 다음, 내용이 이해되면 핵심을 간파한다. 책의 내용이 이해되면 핵심 개념을 찾고 핵심 개념이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추려본다. 책의 단어가 어렵거나 문장이 산만할 때에는 쉬운 말로 간추리면 된다.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요약하는 것이 최고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1원칙(1)이다.

② 논술의 인지 도식을 정확히 이해한다.

논술은 막연한 글쓰기가 아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논술이다. 논술 문제에는 특정 관점이 반영되어 있고 그 관점에 대해 논증법과 설명법을 동원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한다. 그리하여 논술문은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한 편의 완결된 작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논술문을 잘 쓰려면 논술의 형식과 전개 방법, 논증법과 설명법, 논제 파악 방법, 문장 표현 방법 등 논술의 이론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 내용의 단순한 나열도 아니요, 자기 생각의 임의적 열거도 아니다. 교육학 내용을 논술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논술의 인지 도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1원칙(2)이다.

2. 스케치 전략(조직화): 교육학 개념의 조직 + 논술 도식의 조직

① 교육학의 핵심 내용을 지식의 구조 속에서 논리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파악한다.

교육학 내용은 매우 방대하고 잡다하다. 분과학문도 많을뿐더러 이론과 개념도 다기하며 복잡하다. 교육학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금방 길을 잃고 그 내용 속에 매몰되고 만다. 따라서 교육학을 공부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육학의 핵심 내용을 논리 구조적으로 엮어 재조직하는 것이다. 핵심을 논리 구조로 엮을 때에는 선행조직자가 필요한데, 단원을 조직할 때에는 목차, 문단이나 본문의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핵심 개념을 활용하면 된다.

이들 핵심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엮으면 교육학 전체가 구조화된다. 교과서 순서나 체계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고 체계나 글의 논리 구조에 따라 엮으면 된다. 파격적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교육학은 어떤 분과학문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분과학문은 어떤 논리와 구조로 세워져 있고 어떤 개념과 이론 체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또, 그러한 개념과 이론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으며 그 고유한 핵심 아이디어와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할 수 있게 된다. 교육학의 핵심 내용을 논리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파악할 때 교육학 전체의 인지구조가 형성되며 교육학을 보는 안목도 형성된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2원칙(1)이다.

- ② 논술의 인지 도식을 습득하여 교육학 내용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교육학 논술은 어떤 주제에 대한 교육학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논술의 형식에 맞춰 쓰는 것이다. 교육학의 내용 요건을 논술의 형식 요건에 맞춰 전개하기 위해서는 논술의 형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교육학의 내용이 자료라면 논술의 형식은 설계 도면과 같다. 설계 도면에 맞춰 자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집을 짓듯이 교육학 내용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이미 논술의 인지 도식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논술의 인지 도식이 형성된 사람은 교육학을 공부할 때에도 다르게 접근한다. 이런 사람은 교육학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논술의 인식 도식에 맞춰 교육학 내용을 수용한다. 그래서 교육학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의미를 논술의 인지 도식에 맞춰 논리적으로 학습한다. 이렇게 논술의 인지 도식을 습득하고 논증 능력과 설명 능력을 함양하여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2원칙(2)이다.

3. 채색 전략(정교화) :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을 2~3문장으로 간결·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한다.

교육학은 학자마다, 교과서마다 다양한 형태로 설명되는데다가 설명하는 방식도 매우 달라 복잡하다. 그런데 수험서는 이런 복잡한 책들을 이것저것 짜깁기하여 만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의 논리나 일관된 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긴 문장으로 장황하게 나열해 놓은 글, 분절된 지식의 형태로 산만하게 짜깁기한 글, 핵심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장황하게 덧붙여 놓은 글 등 매우 난잡하고 복잡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험생들이 이런 분절된 지식을 단편적으로 모두 암기하려 든다는 점이다. 암기량만 많아 수험 기간 내내 고생만 하다가 결국 실제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표현해 내지도 못하고 고통만 겪게 된다. 날개의 흩어진 파편들을 장황하게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로는 절대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수 없다.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일수록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학은 기본 개념과 핵심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논리 구조적으로 엮어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지식의 구조 속에서 날개의 개념과 이론을 2~3 문장으로 간결·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본 개념과 이론이 지닌 의의나 특징, 장단점, 영향, 시사점, 교육적 적용 등은 3~5개 정도로 논리적으로 항목화하여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3원칙이다.

4. 완성 전략(암기): 정리된 교육학 핵심 내용을 수시로 암기하며 인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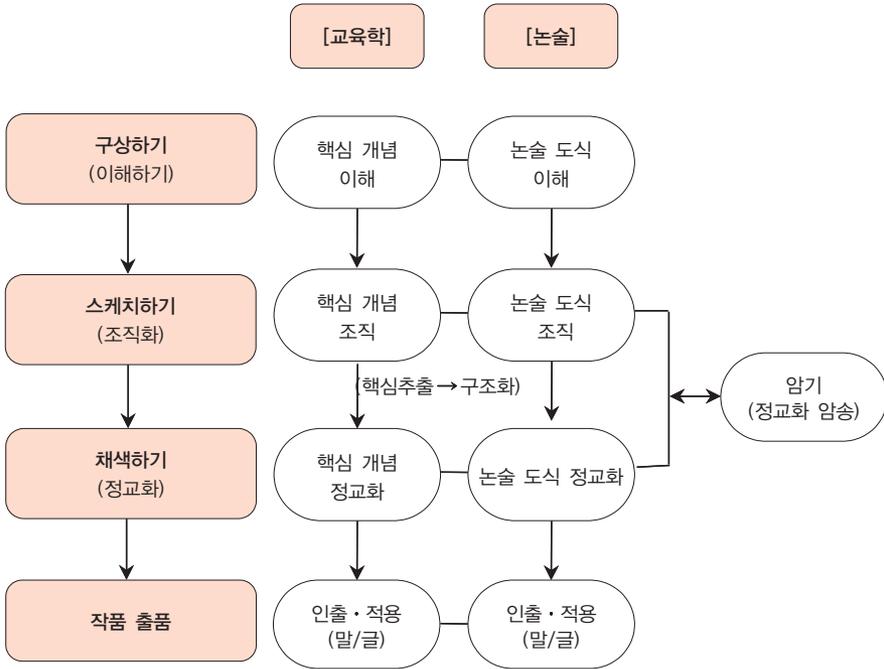
아무리 잘 정리된 내용일지라도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 내용을 머릿속에서 인출하여 써야 하므로 머릿속에 저장된 내용이 없으면 한 글자도 쓰지 못한다. 따라서 잘 정리된 교육학의 핵심 내용을 장기기억 속에 저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학 개념을 조직화·구조화하여 이해하면 장기기억에 잘 저장된다. 개념을 논리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또, 장기기억 속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정교화 암송이나 암기법, 초과반복학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암기법에는 두문자법, 운율법, 스토리법, 연상법, 장소법, 종합법 등이 있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다. 완전학습 수준 이상으로 학습을 반복하는 것도 자동화되기 때문에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암기된 내용은 수시로 꺼내보아야 한다. 결국 시험은 input한 것을 output하는 과정이므로 암기와 인출은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인출은 수시로 활용하면 좋다.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갈 때, 밥 먹을 때, 잠깐 쉴 때 등 활용하기 나름이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4원칙이다.

5. 작품 출품 전략(인출): 논술 문제를 통해 핵심 개념을 인출·적용하고 이를 활용한 사고력을 배양한다.

이제 교육학 논술의 실전 경험을 통해 학습을 완성하며 자신의 실력을 성장시킨다. 집을 많이 지어본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에 맞게 집을 효과적으로 잘 지을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육학 논술 문제를 많이 다루어보고 처리해 본 사람일수록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춰 안정적이면서 자유롭게 논술할 수 있게 된다. 실전 문제를 통해 그동안 학습한 교육학 개념과 이론을 인출·적용해 보고 사고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보완하여 학습을 완결하도록 한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5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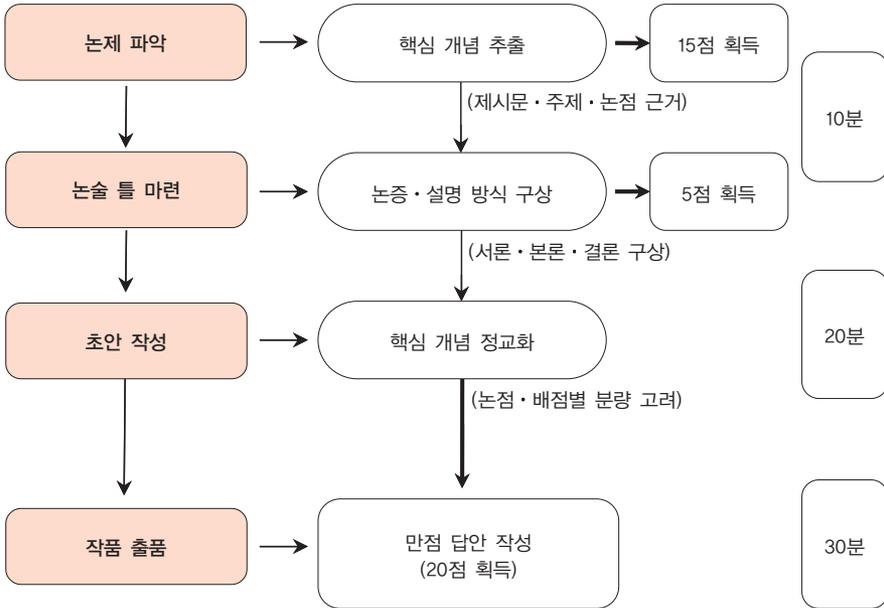
탁월한 만점전략 5: 교육학 논술 스키마 획득

1. 교육학 논술 만점 공부 전략



- 권지수 모형 1(작품완성 전략)

2. 실전에서 바로 써 먹는 만점 논술 전략



- 권지수 모형 2(일이관지 전략)

권지수 교육학

합격
가이드북

PART

VII

2026~2018학년도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1. 2026학년도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2. 2025학년도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3. 2024학년도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4. 2023학년도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5. 2022학년도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6. 2021학년도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7. 2020학년도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8. 2019학년도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9. 2018학년도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I 2026학년도 1차 1교시 교육학 논술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육학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1 교시	1분항 20점	시험 시간 6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중학교 김 교사의 성찰 일지이다. 이 내용을 읽고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를 주제로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에 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20점]

- 1 교육과정이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연수를 받았다. 이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이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점점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학기부터 우리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게 되므로,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이번 연수에서는 워커(D. Walker)의 '자연주의 모형'을 배웠다. 그 모형의 특징은 명칭이 잘 반영되어 있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강령(platform)'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의'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 2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수업설계를 했는지 돌아보았다. 그동안 나는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학생들 각자가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수업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 가르친 것이 많아 학습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개별화할지 고민하면서 라이겔루스(C. Reigeluth)의 정교화 이론을 살펴 보았다. 그의 이론에 따라 학습 내용의 '정수(epitome)'를 찾아 계열화하고 그것을 전달할 때 '비유(analogy)'를 활용해 보아야겠다.
- 3 얼마 전에 들었던 교육평가 연수에서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강연자는 성장참조평가를 소개했다. 이 평가 유형은 학생의 상대적 위치 또는 사전에 설정된 교육목표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방식과는 평가 기준이 달랐다. 다음 학기에는 성장참조평가를 활용해 보아야겠다. 나의 또 다른 관심사는 수행평가이다. 지난주에는 일부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앞으로 수행평가에 학생 참여 평가 결과를 반영하려면 먼저 학생들의 세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겠다.
- 4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그동안 받은 연수를 돌아보았다. 지금까지 이수한 모든 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39호)에 제시된 기간 중심의 연수였고, 교육 이론·방법 및 교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에 목적이 있었다. 그 연수들은 이수 실적을 학점화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교사로서 지속적 성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 신배 교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신배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에 대해 알려 주면서 그 가운데 몇 가지 활동을 추천했다. 교과협의회나 전문적 학습공동체, 수업컨설팅이 그것이다. 신배는 이 활동들이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학교 조직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나도 앞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전문성 개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1과 관련하여,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가지,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 1가지와 '강령'의 의미 1가지, 김 교사가 '숙의' 단계에 대한 설명에서 배운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의 바람직한 자세 1가지 [4점]
- 2와 관련하여, 김 교사가 분석한 학습자 특성의 영역 1가지, 라이겔루스(C. Reigeluth)의 이론에서 '정수'의 의미 1가지와 '비유' 전략의 장점 1가지 [3점]
- 3과 관련하여, 김 교사가 다음 학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성장참조평가의 적용 방법 1가지와 그 교육적 의의 1가지, 학생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 방법 1가지, 학생 참여 평가에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김 교사가 해야 할 일 1가지 [4점]
- 4와 관련하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39호)에 제시된 연수의 종류로서 김 교사가 이수한 연수들을 포괄하는 명칭 1가지, 김 교사가 추천받은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이 학교 조직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가지, 이러한 전문성 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2가지 [4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와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II 출제경향과 기출분석

① 출제경향

1. 출제 경향

- ① 출제 개관: 전체적으로 출제 논점은 작년보다 더 평이해 보이는데, 오픈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을 경우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됨. 꾸준히 교육학을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통해 오픈형 대비를 한 사람이라면 별로 어렵지 않게 썼을 것으로 보임. 올해 논점은 암기형과 오픈형이 적절히 혼합된 형태로 출제되었음. 제 강의에서 강조했듯이 제시문 분석 능력을 잘 키웠다면 좀더 쉽게 접근했으리라 생각함.
- ② 출제 논점: ㉠ 교육과정(학교수준 교육과정의 긍정적 영향, 자연주의 모형), ㉡ 교육방법(학습자 특성, 라이켈루스 정교화 이론), ㉢ 교육평가(성장참조평가, 학생 참여평가), ㉣ 교육행정(직무연수,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
- ③ 주요 변별력 요소: 기관 연수의 명칭.
- ④ 4개 영역(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에서 골고루 출제, 배점 기준 세분화, 암기형과 오픈형의 혼합 문제, 제시문 힌트를 일부 섞어 골고루 안배한 출제
⇒ 교육학의 기본적인 내용과 교육학적 마인드를 요하는 문제, 제시문 활용이 가능한 논점, 단순 암기 문제와 오픈형 문제의 혼합

2. 특이 사항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논점들은 이론강의 때마다 강조했고, 모의문제에서 출제 1순위로 다루었으며, 또 특별히 주요 쟁점 체크로 표시하여 짚은 논점들임

3. 내년 경향

올해보다 좀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② 적중 분석

1. 적중 수업

늘 그렇듯이 7-8월 모고와 9-11월 모고에서 다룬 논점들이 각각 균형 있게 출제되었음

2. 적중 분석

- (1) 논점(교육과정: ① 학교수준 교육과정, ② 자연주의 모형):
 - ① 학교수준 교육과정(7-8월 모고 2회, 9-11월 모고 7회),
 - ② 자연주의 모형(5-6월 사례연습 13) / 주요 쟁점목록 체크에서 우선순위로 강조
- (2) 논점(교육방법: ① 학습자 특성, ② 라이켈루스 정교화 이론):
 - ① 학습자 특성(7-8월 모고 3회, 4회, 9-11월 모고 22회),
 - ② 라이켈루스 정교화(7-8월 모고 5회) / 주요 쟁점목록 체크에서 우선순위로 강조

(3) 논점3(교육평가: ① 성장참조평가, ② 학생 참여 평가):

- ① 성장참조평가(7-8월 모고 9회, 9-11월 모고 7회, 9회, 18회, 22회),
- ② 학생 참여 평가(7-8월 모고 9회, 9-11월 모고 6회, 9회) /
주요 쟁점목록 체크에서 우선순위로 강조

(4) 논점4(교육행정: ① 직무연수, ②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

- ① 직무연수(합격지수 100 '하' p.161, 핵심쑥쑥 p.485),
- ②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7-8월 모고 11회, 9-11월 모고 2회, 9회, 12회, 18회) /
주요 쟁점목록 체크에서 우선순위로 강조

[답안 구성]

[주제문]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 는 교육과정 개발 참여, 교육공학 이론 적용, 교육평가 혁신, 그리고 학교 중심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의지 등 다방면에서 수업 개선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교사이어야 한다.

대주제	핵심 논점	세부 논점	배점	출제 영역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	①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학교수준 교육과정) ※ 7-8월 모고 2회, 9-11월 모고 7회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학교수준 교육과정 강조)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가지: 교육의 자율성, 탄력성, 융통성, 전문성, 적합성, 효율성, 다양성, 학생의 특성·요구 등 반영, 학생 중심 교육 등	4점	교육 과정
	② 자연주의 모형 ※ 5-6월 사례연습 13	㉠ 특징 1가지: 서술적(교육과정 개발의 자연스런 과정을 묘사·기술), 과정지향적(의견이 타협되고 조정되는 속의 과정이 강조), 역동적(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과 조정이 강조) 등 ㉡ 강령 의미 1가지: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 개념(신념), 이론 등 → 공감대 형성 ㉢ 속의 단계의 교사 자세 1가지: 논쟁을 통해 가장 유망한 교육과정 실천 대안을 검토하는 자세, 서로 다른 대안을 존중하고 토론하는 자세, 대안들에 대해 숙고하는 자세 등 속의 의미와 관련된 자세		
	① 학습자 특성 영역 ※ 7-8월 모고 3회, 4회, 9-11월 모고 22회	김 교사가 분석한 학습자 특성의 영역 1가지: 인지 양식, 인지 전략, 학습 양식(유형) 등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과 관련된 특성	3점	교육 방법
	② 라이겔루스 ※ 7-8월 모고 5회	㉠ '정수' 의미 1가지: 전체 개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의 발췌 등 ㉡ '비유' 전략 장점 1가지: 이해, 학습, 파악, 기억 등의 촉진		

<p>① 성장참조평가 ※ <u>7-8월 모고 9회</u>, <u>9-11월 모고 7회</u>, <u>9회, 18회, 22회</u></p>	<p>㉠ 적용 방법 1가지: 초기의 성취수준에 비추어 얼마나 성장하였느냐(얼마나 능력의 향상을 보였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 → 초기 성취수준을 기준으로 적용, 성장(능력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용 등 개념에 근거한 적용 방법 ㉡ 교육적 의의 1가지: 개별화 학습 촉진, 평가의 교수적 기능 촉진, 학습 동기 유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등</p>	4점	교육 평가
<p>② 학생참여평가 ※ <u>7-8월 모고 9회</u>, <u>9-11월 모고 6회</u>, <u>9회</u></p>	<p>㉠ 학생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 방법 1가지: 자기평가, 동료평가 ㉡ 학생 참여 평가에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 1가지: 구체적인 평가기준(rubric) 작성, 사전 교육 및 훈련, 채점 가이드 라인 제시 등</p>		
<p>① 연수 종류 ※ <u>협력차수 100(하) p.161</u>, <u>핵심속삭 p.485</u></p>	<p>명칭: 직무 연수</p>		
<p>② 학교 중심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교과협의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수업컨설팅 등) ※ <u>7-8월 모고 11회</u>, <u>9-11월 모고 2회</u>, <u>9회, 12회, 18회</u></p>	<p>㉠ 학교조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가지: 전문성 신장, 협력적 문화, 학교의 교육력 제고, 개방적·자율적 문화 풍토 조성 등 ㉡ 학교 중심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2가지(학교 차원): 시간 지원, 인적·물적 자원 지원, 네트워크 지원 등</p>	4점	교육 행정

제공: 권지수 교수

수업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는 끊임없는 성찰과 전문성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전문가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이러한 그의 노력이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투영되어야 한다. 본 논의에서는 제시문의 성찰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교사가 수업을 개선하려면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은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학교가 지역 및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대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김 교사가 관심을 가진 워커(D. Walker)의 자연주의 모형(naturalistic model)은 교육과정 개발을 합리적-기술적 과정이 아닌, 실제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행하는 자연스러운 현상(real-world activity)으로 보고 이를 묘사·기술하는 기술적 모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모형의 첫 번째 단계인 ‘강령(platform)’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가진 신념, 이론, 준거, 사명 등 개발의 토대가 되는 일련의 전제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 또한, 두 번째 ‘숙의(deliberation)’ 단계에서 김 교사가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증거를 교환하며,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실천적 판단을 하는 자세이다.

교육공학 측면에서, 교사는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수업설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김 교사가 수업 설계를 위해 분석했던 학습자 특성의 영역은 학생들이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 양식(cognitive style) 영역에 해당한다. 학습 내용의 계열화에 도움을 주는 라이겔루스(C. Reigeluth)의 정교화 이론에서 ‘정수(epitome)’란 수업의 ‘전체개요(overview)’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을 의미하며, 학습자가 먼저 습득해야 할 학습 내용의 개요이다. 김 교사가 활용하고자 하는 ‘비유(analogy)’ 전략은 새로운 학습 내용과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친숙한 내용 간의 유사성을 제시하여,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친숙한 맥락을 제공하여 학습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교육평가 측면에서는 수업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김 교사가 다음 학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성장참조평가는 학생 개인의 초기 성취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현재 성취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평가의 교육적 의의는 학생 개인의 능력 향상 정도와 변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학생이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평가 방법은 자기 평가(self assessment) 또는 동료 평가(peer assessment)이다.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학생 스스로 평가하거나 동료끼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행평가에서 학생 참여 평가 결과를 반영할 때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김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채점 기준(rubric)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행정 측면에서, 더 좋은 수업을 위해 교사는 학교 중심의 전문성 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연수의 종류로서 김 교사가 이수한 연수들을 포괄하는 명칭은 직무 연수이다. 이는 교육 이론·방법 및 교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기관 중심의 연수이다. 김 교사가 추천받은 교과협의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은 학교 조직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 개선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협력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전문성 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적 지원이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이나 수업 컨설팅을 위한 정기적이고 충분한 시간(예: 교과협의회 시간 확보, 업무 경감 등)을 확보해 준다. 둘째, 물질·재정적 지원이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에 필요한 연수 자료, 장소, 외부 전문가 초빙 비용 등을 지원한다.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 참여, 교육공학 이론 적용, 교육평가 혁신, 그리고 학교 중심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의지 등 다방면에서 수업 개선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교사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사는 개인의 성찰을 넘어, 학교의 제도적 지원과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교 교육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25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I 2025학년도 1차 1교시 교육학 논술

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육학

수험 번호: () 성 명: ()

제1차 시험	1 교시	1 문항 20점	시험 시간 6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고등학교에서 경력 교사와 신입 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환경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20점]

- 경력 교사: 선생님, 교직 생활의 첫해를 보내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특히,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 신입 교사: 예, 다행히도 재구성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두드러져 보이더군요.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가지와 교과에 대한 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경력 교사: 잘하셨네요. 그래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요구, 학습자의 특성, 교과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교육철학과 학습심리학도 고려하면 앞으로 더 좋은 교육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 신입 교사: 예, 알겠습니다. 또한, 저는 수업 측면에서 학생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최근 경향에 따라 구성주의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 경력 교사: 그러한 학습환경을 설계할 때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을 고려하셨나요?
- 신입 교사: 저는 구성주의 학습환경을 설계하면서, 수업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직접 지시를 보여 주기도 했으나, 학생 주도적인 학습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 경력 교사: 그러셨군요. 그런데 구성주의 학습환경에서는 그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갖춘 문제를 선정해야 하고, 그 문제가 전체 학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필요하다면 시범 이외에 다른 지원 활동도 해야 합니다.
- 신입 교사: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평가 방식에 따라 지난 학기에 준거참조평가를 실시해 봤는데, 아직 저한테는 준거 설정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경력 교사: 아! 그러시군요. 준거참조평가에서는 성취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준거 설정 방법이 쉽지만은 않지요. 하지만 점차 나아질 겁니다. 더불어 어떠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교사는 교육평가의 기본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입 교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사가 최신 디지털 기술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학급과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경력 교사: 네, 그러한 기술적 능력과 상황 파악 능력도 중요하죠. 그리고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이와 관련된 능력도 키운다면 선생님의 교직 생활이 점차 좋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타일러(R. Tyler)의 교육목표 설정 근거(sources)를 바탕으로, 경력 교사가 언급한 '교육철학'을 교육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1가지, 경력 교사가 언급한 '학습심리학'을 교육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1가지 [4점]
 - 구성주의 학습환경을 조나센(D. Jonassen)의 모형에 따라 설계할 때, 경력 교사가 언급한 '문제'의 특성과 역할 각각 1가지, 모델링 이외의 교사의 지원 활동 사례 2가지 [4점]
 - 경력 교사가 언급한 준거참조평가에서 '준거 설정 방법' 1가지,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 3가지 [4점]
 - 카츠(R. Katz)의 리더십 이론에 근거하여, 경력 교사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의 명칭과, 동료 교사와 관련된 이 능력의 구체적 실천 사례 2가지 [3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II 출제경향과 기출분석

① 출제경향

1. 출제 경향

- ① 전체적으로 출제 논점은 대체로 평이하지만, 일부 논점(교육과정)의 경우 사고를 요하는 적용력의 오픈형 문제라서 시험현장에서는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됨. 교육과정(적용사례)과 교육행정(실천사례)을 제외한 나머지 논점은 단순 암기형의 문제 내지 제시문의 분석능력으로 서술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함
- ② 출제 논점: ㉠ 교육과정(타일러 모형: 교육철학과 학습심리학을 교육목적에 적용한 사례와 그 이유), ㉡ 교육방법(조나센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문제의 특성과 역할, 교사의 지원활동-코칭, 스캐폴딩), ㉢ 교육평가(준거참조평가: 준거설정방법 / 교육평가의 기본가정), ㉣ 카츠 리더십이론(명칭-인간적 기술, 동료교사와 실천 사례).
- ③ 주요 변별력 요소: 교육평가의 기본가정
- ④ 4개 영역(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에서 골고루 출제, 배점 기준 세분화, 오픈형 문제 일부 출제, 제시문 힌트를 일부 섞어 골고루 안배한 출제
⇒ 교육학의 기본적인 내용과 교육학적 마인드를 요하는 문제, 다소 지엽적인 논점, 단순 암기 문제와 오픈형 문제의 혼합

2. 특이 사항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논점들은 이론강의 때마다 강조했고, 모의문제에서 출제 1순위로 다루었으며, 또 특별히 주요 쟁점 체크로 표시하여 짚은 논점들임. 반면, 일부 논점(교육평가의 기본가정)의 경우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모고에서 다루지 않았음에 아쉬움이 큼

3. 내년 경향

올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출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② 기출분석

1. 논술 주제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 ⇒ 각 본문의 내용과 연계할 것(2점)

2. 논점 분석

(1) 논점(교육과정: 타일러 모형)

모고(7-8월 1회) / 주요 쟁점목록 체크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 ① 교육철학을 교육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와 이유(2점): ㉠ 교육철학(교육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의 사례: 학교는 학생에게 기존의 사회질서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길러주어야 하는가?(Tyler,

1949:35) 사회적 계층 구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층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공통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립학교 교육은 일반 교양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특수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Tyler, 1949: 36)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단지 정치적인 용어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가정, 학교, 사회의 정치, 경제, 분야 모두에 적용되는 생활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받아들여야 하는가?(Tyler, 1949: 37) ㉠ 이유: 교육철학은 잠정적 교육목표들 중에서 상호 모순된 목표들을 골라내어 교육목표들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

- ② 학습심리학을 교육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와 이유(2점): ㉠ 학습심리학(학습자가 잠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의 사례: 교육목표가 연령별, 학년별로 고려해 교육적으로 달성 가능한가?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의 길이와 교육적 노력이 학생의 연령 수준에 적절한가?(Tyler, 1949: 38) ㉡ 이유: 잠정적 교육목표가 의도적인 교육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지 적합성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

(2) 논점2(교육방법: 조나선 구성주의 학습환경):

모고(7-8월 8회: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 모고(7-8월 6회: 교사의 지원활동-코칭, 스캐폴딩) / 모고(9-11월 17회: 교사의 지원활동: 스캐폴딩) / 코칭과 스캐폴딩은 주요 쟁점목록 체크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강조

- ①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에서 '문제'의 특성과 역할(2점): ㉠ 문제의 특성: 실제적, 복잡한, 비구조화, 맥락적 문제 ㉡ 역할: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 다양한 전략적 사고 요구 등
- ② 모델링 이외의 교사의 지원활동(2점): ㉠ 코칭(coaching), ㉡ 스캐폴딩(scaffolding)

(3) 논점3(교육평가: 준거참조평가/교육평가의 기본가정)

준거참조평가는 모고(9-11월 6회) / 주요 쟁점 체크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다만, 교육평가의 기본가정은 언급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움

- ① 준거참조평가에서 '준거설정방법' (1점): ㉠ 학문상 답안(상태제): ㉡ 기준적 준거 설정방법: 피험자의 상대적 서열이나 피험자 집단의 일정 비율로 준거를 설정하는 방법, 예컨대, 어떤 검사에서 피험자 집단의 상위 20%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20%가 준거가 됨 ㉢ 피험자의 집단 특성평가에 의한 준거설정방법: ㉣ 집단비교방법: 피험자 집단 개개인을 주관적으로 완전학습자 혹은 불완전학습자로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완전학습자의 점수분포와 불완전학습자의 점수분포가 교차되는 점을 준거로 설정하는 방법, ㉤ 경계선 방법: 완전학습자로 분류되는 최저점수(예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와 불완전학습자로 분류되는 최고점수(예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 사이에 있는 피험자들의 검사점수의 중앙값을 준거점수로 설정함, ㉥ 검사 도구 내용분석평가에 의한 (절대적) 준거설정방법: ㉦ Angoff 방법: 최소능력 보유 피험자들로 구성된 가상 집단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피험자가 문항의 정답을 맞힐

수 있는가를 판정한 다음, 각 문항의 답을 맞힐 피험자 비율의 합을 준거점수로 설정하는 방법, ㉠ Jaeger 방법: 최소능력을 보유한 피험자가 각 문항을 맞힐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한 후, 맞힐 수 있는 문항의 수를 합한 것이 준거점수가 된다. ㉡ 북마크(bookmark) 방법: 문항난이도에 따라 문항을 배열한 문항순서집에 의해 준거를 설정한다. 문항순서집에 있는 첫 번째 문항부터 차례로 살펴보고 최소능력 보유자가 풀 수 있을 것 같다면 지나가고, 이 문제는 최소능력 보유자가 풀기 어렵겠다고 판단되면 그 문제를 북마크한다. 그렇게 북마크한 문제들을 기준으로, 최소능력 보유자가 몇 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따라 준거를 설정한다. 즉, 북마크 방법은 시험 문제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이 문제는 최소 능력 보유자가 풀 수 있을까?"를 판단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준거점수를 설정하는 방식, ㉢ 절충적 준거설정방법 ㉣ 일반적 수준의 답안: 학습목표에 비추어 성취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학생의 성취수준을 구분하여 정답률, 도달-미도달, 5단계 분류, 지식이나 기능에 대한 서술 등으로 설정한다. 예컨대, 정답률을 기준으로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 ② 교육평가의 기본가정(3점): ㉠ 인간의 잠재능력 개발 가능성: 교육평가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의 개발 가능성을 전제한다. 교육이 인간 발달의 가능성을 제한하면 교육평가의 기능은 극대화될 수 없다. ㉡ 계속성: 교육평가는 계속적이어야 한다. 시험, 수업, 대화 등 언제나 모든 장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종합성: 교육평가는 종합적이어야 한다. 평가대상의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지필검사에서 벗어나 관찰, 면접,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자료의 다양성: 교육평가의 자료는 다양하다. 그림 한 장, 일기 한 줄, 대화 한마디 등이 모두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다. ㉤ 교육활동의 도움: 교육평가는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교육평가의 결과가 다시 교육활동과 연결되어야 한다. 교육평가의 결과 학생의 학습 개선, 교사의 교수 개선 등에 기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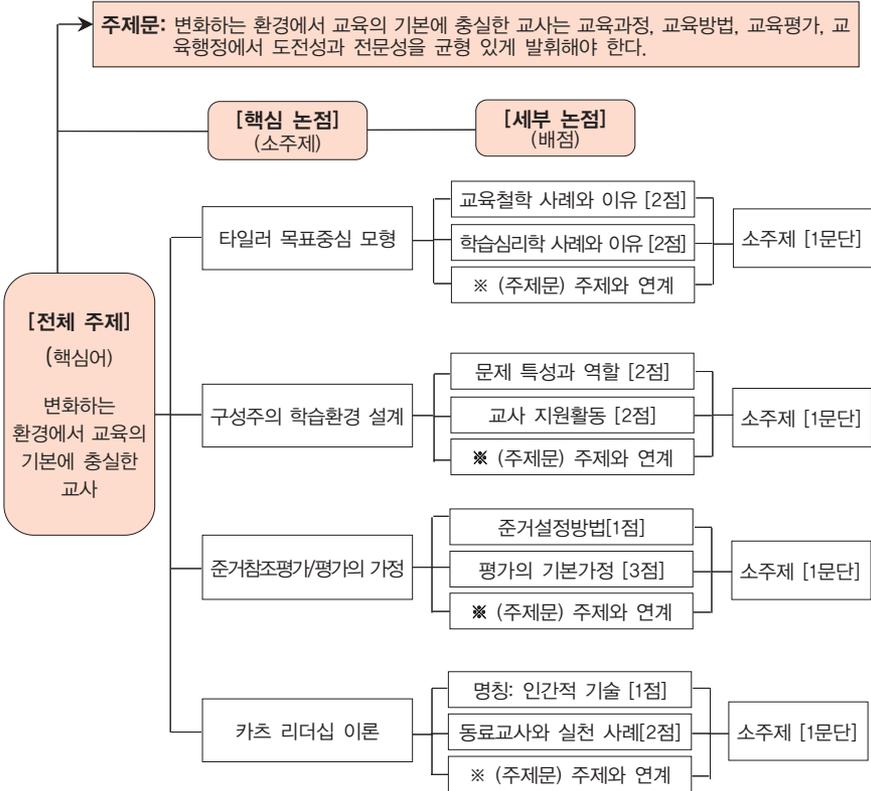
(4) 논점4(교육행정: 카츠의 리더십이론-인간적 기술)

모고(9-11월 17회 문제: 인간적 지도성과 유사한 맥락에서 강조하였기에 제시문만 봐도 비슷한 개념을 추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 ① 인간적 기술 명칭(1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과 관련된 능력 - 인간적 기술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인화를 조성하고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 ② 동료 교사와 관련한 실천 사례(2점): ㉠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적 학습을 실천하는 일 ㉡ 동료 교사들과 정기적으로 교육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동료장학을 통해 동료관계를 증진하는 일 ㉢ 동료교사와 팀 티칭을 통해 협력적 학습환경을 조성함 ㉣ 동료교사와의 갈등상황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 등 ⇨ ※ 유의점: 동료 교사와의 소통, 협력, 공유, 인화 등과 관련되는 활동 내용이라면 모두 정당 인정

논제 파악

[도해조직자(graphic organizer)]



[배점 분석(내용 영역)]

〈 배 점 〉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타일러(R. Tyler)의 교육목표 설정 근거(sources)를 바탕으로, 경력 교사가 언급한 '교육철학' 을 교육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1가지, 경력 교사가 언급한 '학습심리학' 을 교육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1가지 [4점]
- 구성주의 학습환경을 조나센(D. Jonassen)의 모형에 따라 설계할 때, 경력 교사가 언급한 '문제' 의 특성과 역할 각각 1가지, 모델링 이외의 교사의 지원 활동 사례 2가지 [4점]
- 경력 교사가 언급한 준거참조평가에서 '준거 설정 방법' 1가지,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 3가지 [4점]
- 카츠(R. Katz)의 리더십 이론에 근거하여, 경력 교사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 의 명칭과, 동료 교사와 관련한 이 능력의 구체적 실천 사례 2가지 [3점]

[답안 구상]

[주제문]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는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에서 도전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발휘해야 한다.

전체 주제 (대주제)	핵심 논점 (소주제)	세부 논점 (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 (제시문 분석·적용)	배점	출제 영역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	타일러 모형에 근거하여, '교육철학' 과 '학습심리학' 을 교육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와 이유	① 교육철학 [2점]	교육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 사례: 학교는 학생에게 기존의 사회질서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길러주어야 하는가 ㉡ 이유: 잠정적 교육목표들이 모순없이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철학적 가치를 따져야 하기 때문	4점	교육과정
		② 학습심리학 [2점]	학습자가 잠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 사례: 교육목표가 학생의 연령이나 학년을 고려해 교육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가 ㉡ 이유: 잠정적 교육목표가 의도적인 교육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지 적합성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		
		※ 주제와의 연계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요구된다.			
조나센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① 문제의 특성과 역할 [2점]	㉠ 문제 특성: 실제적, 복잡한, 비구조적, 맥락적 ㉡ 역할: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전략적 사고를 요구	㉠ 문제 특성: 실제적, 복잡한, 비구조적, 맥락적 문제 ㉡ 역할: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전략적 사고를 요구	4점	교육방법
		② 모델링 이외 교사의 지원활동 [2점]	㉠ 코칭 (coaching) ㉡ 스캐폴딩 (scaffolding)	㉠ 코칭은 학습자의 과제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도와주는 것 ㉡ 스캐폴딩은 학생이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능력 수준을 넘어서도록 발판을 제공하는 것		
		※ 주제와의 연계	교수방법 측면에서는 최근 경향이 맞추어 구성주의 학습환경을 충실히 조성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	준거참조 평가 / 교육평가의 기본가정	① 준거 설정방법 [1점]	Angoff 방법	최소능력 보유 피험자들이 가상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문항의 정답을 맞힐 수 있는가를 판정한 다음, 각 문항의 답을 맞힐 비율의 합을 준거점수로 설정하는 방법	4점	교육 평가
		② 평가의 기본가정 [3점]	㉠ 인간의 잠재능력 개발 가능성 ㉡ 계속성 ㉢ 종합성 ㉣ 자료의 다양성 ㉤ 교육활동의 도움	㉠ 교육평가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의 개발 가능성을 전제 ㉡ 교육평가는 계속적이어야 ㉢ 교육평가는 종합적이어야 ㉣ 교육평가의 자료는 다양 ㉤ 교육평가는 교육활동에 도움		
		※ 주제와의 연계	교육평가 측면에서는 변화된 평가 방식에 따라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카츠 리더십 이론	① 명칭 [1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과 관련된 능력	인간적 기술 -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인화를 조성하고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3점	교육 행정
		② 동료교사와 관련한 실천 사례 [2점]	동료 교사와의 소통, 협력, 공유, 인화 등과 관련되는 활동 내용이라면 모두 정답	㉠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적 학습을 실천하는 일 ㉡ 동료 교사들과 정기적으로 교육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동료장학을 통해 동료관계를 증진하는 일 ㉢ 동료교사와 팀티칭을 통해 협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함 ㉣ 동료교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 등		
		※ 주제와의 연계	교육행정 측면에서 교사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제공: 권지수 교수

오늘날의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더 높은 도전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변화하는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교육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본 논의에서는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러한 교사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요구된다. 타일러(R. Tyler)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추출된 교육목표는 교육철학과 학습심리학을 고려해 걸러야 한다고 한다. 첫째, 교육철학은 교육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묻는다. 예를 들어, 학교는 학생에게 기존의 사회질서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길러주어야 하는가이다. 그 이유는 잠정적 교육목표들이 모순없이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철학적 가치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심리학은 학습자가 잠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예를 들어, 교육목표가 학생의 연령이나 학년을 고려해 교육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가이다. 그 이유는 잠정적 교육목표가 의도적인 교육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지 적합성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수방법 측면에서는 최근 경향이 맞추어 구성주의 학습환경을 충실히 조성해야 한다. 조나센(D. Jonassen)의 모형에 따라 구성주의 학습환경을 설계할 때, 문제는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런 문제는 전체 학습과정에서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시범 이외에 코칭(coaching)과 스캐폴딩(scaffolding)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첫째, 코칭은 학습자의 과제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학생의 수행을 분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반성적 사고를 유발한다. 둘째, 스캐폴딩은 학생이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능력 수준을 넘어서도록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평가 측면에서는 변화된 평가 방식에 따라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준거참조평가를 실시한다면 준거 설정이 중요하다. 준거 설정 방법에는 Angoff 방법이 있다. 이는 최소능력 보유 피험자들이 가상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문항의 정답을 맞힐 수 있는가를 판정한 다음, 각 문항의 답을 맞힐 비율의 합을 준거 점수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평가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의 개발 가능성을 전제한다. 교육이 인간 발달의 가능성을 제한하면 교육평가의 기능은 극대화될 수 없다. 둘째, 교육평가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어야 한다. 시험, 수업, 대

화 등 언제나 모든 장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평가는 종합적이어야 한다. 평가대상의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교육행정 측면에서 교사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카츠(R. Katz)의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과 관련된 능력은 인간적 기술 능력이다. 이는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인화를 조성하고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의 실천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적 학습을 실천하는 일이다. 둘째, 동료 교사들과 정기적으로 교육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동료장학을 통해 동료관계를 증진하는 일이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는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에서 도전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발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 주도의 교육을 실현하고,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사의 지속적인 자기 성장과 교육철학에 대한 고민은 이런 실천의 핵심이 될 것이다.

[권지수의 탁월한 만점전략]
만점 미션 완료!!!



II 출제경향과 기출분석

① 출제경향

1. 출제 경향

- ① 전체적으로 출제 논점은 대체로 평이하지만, 교육학의 중요 이론에서 벗어난 논점들이 다소 출제되어 시험현장에서는 매우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됨.
- ② 주요 변별력 요소: 온라인 수업 상호작용, CAT 검사, 학교운영위원회.
- ③ 4개 영역(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에서 골고루 출제, 배점 기준 세분화, 오픈형 문제 일부 출제, 힌트를 일부 섞어 골고루 안배한 출제
⇒ 교육학의 기본적인 내용과 교육학적 마인드를 요하는 문제, 다소 지엽적인 논점, 논술식의 사고력과 오픈형의 혼합 문제

2. 특이 사항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논점들은 이론강의 때마다 강조했고, 모의문제에서 출제 1순위로 다루었으며, 또 특별히 주요 쟁점 체크로 표시하여 짚은 논점들임. 반면, 일부 논점의 경우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모고에서 다루지 않았음에 아쉬움이 큼

3. 내년 경향

올해보다 다소 난이도를 낮춘 출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② 기출분석

1. 논술 주제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 ⇒ 각 본문의 내용과 연계할 것(2점)

2. 논점 분석

(1) 논점1(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모고(7-8월 1회) / 모고(9-11월 2회, 26회) / 주요 쟁점 체크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 ① 학습목표 설정(1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목표를 수립
- ② 교육내용 구성(1점): 특정 교육내용이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신중히 구성
- ③ 학생평가 계획(1점): 탈목표평가의 관점을 수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교육적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

(2) 논점2(교수학습: 온라인 수업 상호작용)

온라인 수업은 모고(7-8월 8회) / 모고(9-11월 2, 4, 8, 12, 18, 22, 24회) 등에서 강조했으나, 상호작용 유형은 다루지 않아서 아쉬움이 큼

①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어려운 점(1점):

- ㉠ 온라인 상에서의 상호작용을 위한 활용도구 및 전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플랫폼, 앱 등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부족,
- ㉡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업의 유형이나 학습상황 등을 고려한 상호작용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 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가 비디오 화면을 끄면 목소리만으로 학습자의 심리를 추측해야 하는 것처럼 제스처, 몸짓,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을 통한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질문에 교수자가 응답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운 점 등.

② 온라인 수업 상호작용 유형과 그 기능(3점)

- ㉠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작용: 수업내용에 질의응답, 과제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 지식과 정보를 공유 → 학생의 학습이해력 점검,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심리적 거리 줄이는 기능
- ㉡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내용에 대한 의견교환, 토론수행, 협동학습 등을 공동으로 수행 → 친밀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협력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
- ㉢ 학습자-내용 간 상호작용: 콘텐츠 요구에 반응하고 몰입하며 학습 → 학습내용을 이해, 조직, 정교화하며 고차적 사고를 촉진
- ㉣ 학습자 내적 상호작용: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수행과 학습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 성찰, 개선 → 자기조절학습 능력,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

(3) 논점3(교육평가: 능력참조평가/CAT 검사)

능력참조평가는 모고(9-11월 4, 12, 23회) / 주요 쟁점 체크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개별화 검사를 매우 강조했지만 CAT 검사는 모고(9-11회 18회)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간 점이 많이 아쉬움

① 능력참조평가의 적용과 결과 해석 시 유의점(2점)

- ㉠ 적용 시
 - ㉡ 학생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 능력참조평가는 학생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임
 - ㉢ 학생이 소유한 능력의 정도, 능력의 발휘 등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고려되어야 함
- ㉡ 결과 해석 시: 능력 이외 다른 요소들은 배제하고 개인의 능력 발휘 정도에만 초점을 두어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 능력참조평가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능력 발휘 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하기 때문임

② 컴퓨터 능력적응검사 특성(2점)

- ㉠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한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험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문항을 제시함 → 피험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 ㉡ 피험자 능력수준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개별적인 검사 → 짧은 시간에 적은 수의 문항으로도 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 ※ **유의점:**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는 ‘컴퓨터 이용검사’(CBT)와 구별되는 ‘컴퓨터 능력적응검사’(CAT)의 특성을 제시해야 함

※ 컴퓨터 능력적응검사(Computer Adaptive Testing: CAT)

1. 개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험자의 능력수준에 맞는 문항이 자동으로 출제되는 방식의 검사이다. 즉,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만들어진 문항은행으로부터 개별 피험자의 능력에 맞는 문항을 제시하여 문항을 맞히면 더 어려운 문항을, 틀리면 더 쉬운 문항을 제시하여 피험자의 응답결과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장점

- ① 정확하고 공정한 검사: 피험자 개인의 능력 수준에 맞는 문제가 자동 출제되므로 피험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 ② 측정 오차 감소: 피험자의 능력에 맞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검사 상황에서 유발되는 측정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 ③ 검사 시간 단축: 피험자의 능력 수준에 적합한 효율적인 검사이므로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검사 실시에 따르는 경비절감에도 기여한다.
- ④ 부정행위 방지: 개인마다 다른 형태의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검사 도중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 ⑤ 정보 유출 최소화: 검사문항 내용에 대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단점

- ① 비전문가 활용상 어려움: CAT의 기본원리가 되는 이론적 배경이 수학과 통계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반 실무자들이나 비전문가들이 접하기가 어려워서 쉽게 활용할 수 없다.
- ② 좋은 CAT 모형 판단 어려움: 현재 연구된 CAT 모형들이 아주 다양해서 어떤 모형이 좋은지 현장의 교사와 활용자들이 구별하여 사용하기 힘들다.
- ③ 장시간 체계적인 연구 요구됨: 문항반응이론에 의하여 출제 문항의 모수들을 계량해야 하는 CAT 모형은 사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여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장시간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없는 일반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활용의 제한이 많다.
- ④ 실제 개발에 많은 제한이 존재: 대부분의 CAT 모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개발해야 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설계를 위해 표준화된 자료의 부족으로 실제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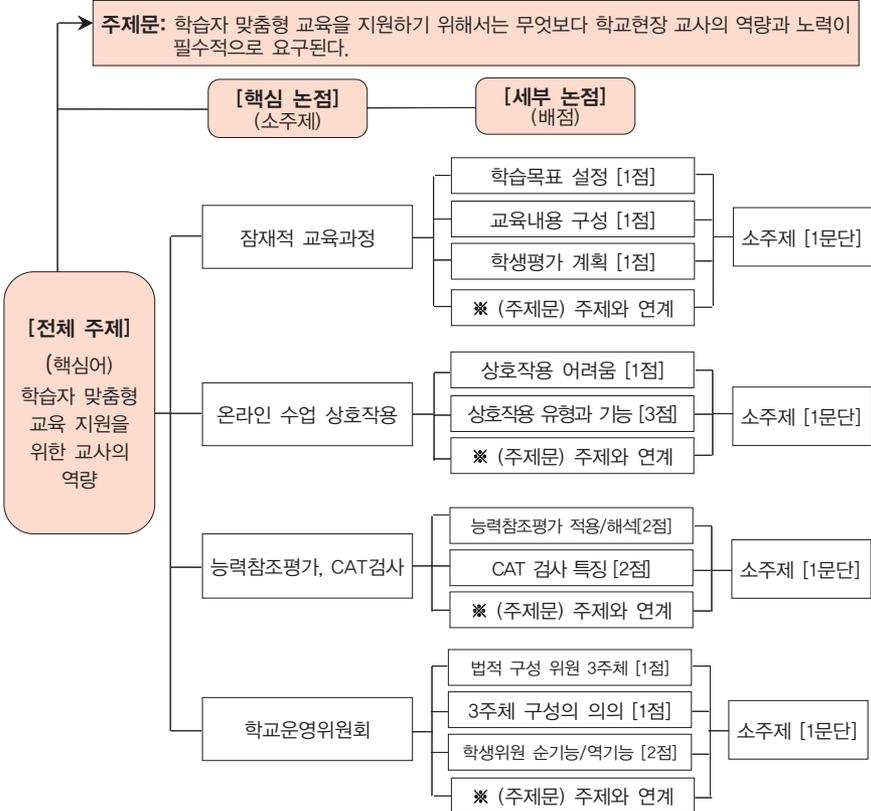
(4) 논점4(교육행정: 학교운영위원회)

사례연습(5-6월 학교경영 2번 문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성격, 의의)에서 강조

-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구성 위원 3주체(1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 →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지역 위원
- ② 3주체 위원 구성의 의의(1점):
 - ㉠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증진할 수 있다.
 - ㉡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므로 단위의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실현하고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
 - ㉢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교육활동을 전개하므로 수요자 중심의 학교 운영이 가능해진다.
 - ⇒ ※ **유의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모두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서술해야 함
- ③ 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2점):
 - ㉠ 순기능: 학생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된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 / 학생의 소속감과 주인 의식 제고 /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므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등
 - ㉡ 역기능: 학생의 정제되지 않은 무리한 요구나 비교육적인 의견 제시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학교 교육의 기능이 마비 / 학생의 인기에 영합하는 학교 운영 전략 / 학교운영에 관한 폭넓은 지식의 부족이나 합리적 판단능력의 미숙 등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움

논제 파악

[도해조직자(graphic organizer)]



[배점 분석(내용 영역)]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 교사 A의 궁극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하여 학습 목표 설정, 교육 내용 구성, 학생 평가 계획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 각 1가지 [3점]
 - ▶ 전문가 C가 언급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어려움 점 1가지,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유형 3가지와 유형별 서로 다른 기능 각 1가지 [4점]
 - ▶ 전문가 E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제시한 평가 유형의 적용과 결과 해석 시 유의점 2가지,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과 구별되는 컴퓨터 능력적응검사(Computer Adaptive Testing)의 특성 2가지 [4점]
 - ▶ 전문가 G가 언급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구성 위원 3주제, 이러한 3주제 위원 구성의 의의 1가지, 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각 1가지 [4점]

[답안 구성]

[주제문]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현장 교사의 역량과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체 주제 (대주제)	핵심 논점 (소주제)	세부 논점 (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 (제시문 분석·적용)	배점	출제 영역
	잠재적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개발시 고려할 점	① 학습목표 설정 [1점]	다양한 관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목표를 수립	3점	교육 과정
		② 교육내용 구성 [1점]	다각적인 분석	특정 교육내용이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구성		
		③ 학생평가 계획 [1점]	탈목표평가	탈목표평가의 관점을 수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교육적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		
		※ 주제와의 연계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려면 교사에게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역량이 필요하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	온라인 수업 상호작용	① 상호작용의 어려운 점 [1점]	㉠ 지식, 정보, 활용능력 부족 ㉡ 상호작용 수행 경험 부족 ㉢ 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제한적임 ㉣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움	㉠ 온라인 상에서의 상호작용을 위한 활용도구 및 전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플랫폼, 앱 등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부족, ㉡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업의 유형이나 학습상황 등을 고려한 상호작용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가 비디오 화면을 끄면 목소리만으로 학습자의 심리를 추측해야 하는 것처럼 제스처, 몸짓,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을 통한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질문에 교수가 응답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운 점	4점	교육 방법

		② 온라인 수업 상호작용 유형과 그 기능 [3점]	㉠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유형 ㉡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유형 ㉢ 학습자와 내용 간 상호작용 유형	㉠ 수업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피드백 제공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이해력을 점검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기능을 수행 ㉡ 학습내용에 대한 의견교환, 토론수행, 협동학습 등을 학습자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친밀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협력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줌 ㉢ 학습내용과 인지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조직하고 정교화하며 고차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줌		
	※ 주제와의 연계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교수전략 및 수업 역량이 요구된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	능력참조평가, CAT검사	① 능력참조평가의 적용과 결과 해석 시 유의점 [2점]	㉠ 적용 유의점 ㉡ 결과 해석시 유의점	㉠ 학생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적용 ㉡ 능력 이외 다른 요소들은 배제하고 개인의 능력 발휘 정도에만 초점을 두어 결과를 해석	4점	교육평가
		② CAT 검사의 특성 [2점]	㉠ 특징1 ㉡ 특징2	㉠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한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험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문항을 제시 → 피험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 피험자 능력수준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개별적인 검사 → 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측정 오차 줄임		
	※ 주제와의 연계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① 법적 구성 위원 3주체 [1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지역 위원		4점
② 3주체 위원 구성의 의의 [1점]		민주성, 합리성, 자율성, 자치성, 책무성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증진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			

		③ 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2점]	㉠ 순기능 ㉡ 역기능	㉠ 학생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된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학생의 소속감과 주인의식,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 ㉡ 생의 정체되지 않은 무리한 요구나 비교육적인 의견 제시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학교 교육의 기능이 마비		
		※ 주제의와의 연계	교사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논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공: 권지수 교수

최근 학생 중심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장 교사는 교육과정, 교수전략, 교육평가, 교육행정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지원 역량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 제시문의 대담 내용을 토대로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려면 교사에게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역량이 필요하다. 교사 A가 궁금한 잠재적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학습목표 설정 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교육내용 구성 시, 특정 교육내용이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구성해야 한다. 셋째, 학생평가 계획 시, 탈목표 평가의 관점을 수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교육적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교사는 공식적 교육과정은 물론이며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학습 측면에서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교수전략 및 수업 역량이 요구된다. 전문가 C가 언급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이 어려운 점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상호작용을 위한 활용도구 및 전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플랫폼, 앱 등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부족할 때 학습자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유형과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유형이다. 이는 수업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피드백 제공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이해력을 점검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유형이다. 이는 학습내용에 대한 의견교환, 토론수행, 협동학습 등을 학습자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친밀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협력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학습자와 내용 간 상호작용 유형이다. 이는 학습자가 콘텐츠의 요구에 반응하고 몰입하여 학습함으로써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조직하고 정교화하며 고차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교육평가 측면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개별 능력을 고려하는 평가 역량을 갖추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E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제시한 능력 참조평가를 적용하고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 시에는 학생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능력참조평가는 학생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결과 해석 시에는 능력 이외 다른 요소들은 배제

하고 개인의 능력 발휘 정도에만 초점을 두어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능력차조평가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능력 발휘 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컴퓨터 능력적응검사(CAT)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한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험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문항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피험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둘째, 피험자 능력수준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개별적인 검사이다. 짧은 시간에 적은 수의 문항으로도 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다.

교육행정 측면에서 교사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논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 G가 언급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구성 위원 3주체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이다. 이 구성의 의의는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증진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위원으로 학생 참여 시 순기능은 학생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된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학생의 소속감과 주인의식,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학생의 정제되지 않은 무리한 요구나 비교육적인 의견 제시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학교 교육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교사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 현장에 구현해 나갈 수 있다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현장 교사의 역량과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사는 교육과정, 교수전략, 교육평가, 교육행정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역량을 다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교사의 실천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권지수의 탁월한 만점전략]

만점 미션 완료!!!



II 출제경향과 기출분석

① 출제경향

1. 출제 경향

- ① 전체적으로 출제 논점의 주요 개념들은 강의와 모의고사에서 모두 다룬 핵심내용들이라서 평이했으나, 일부 논점 파악이나 개념의 활용 부분에서 실수하거나 적용력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은 있어 보임.
- ② 주요 변별력 요소: 자기조절과정, 형성평가 활용방안.
- ③ 4개 영역(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행정)에서 골고루 출제, 배점 기준 세분화, 오픈형 문제 일부 출제, 힌트를 일부 섞어 골고루 안배한 출제
⇒ 교육학의 기본적인 내용과 교육학적 마인드를 요하는 문제, 논술식의 사고력과 오픈형의 혼합 문제

2. 특이 사항

이론강의 때마다 강조했던 중요한 핵심논점들이 출제되었고, 모의문제에서 출제 1순위로 다양하게 다루었던 문제들이며, 또 특별히 주요 쟁점 체크로 표시하여 짚은 논점들이 모두 출제되었음

3. 내년 경향

올해보다 약간 난이도를 높인 출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② 기출분석

1. 논술 주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 ⇒ 각 본문의 내용과 연계할 것(2점)

2. 논점 분석

(1) 논점(교육심리: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모고(7-8월 4회) / 모고(7-8월 4-1회) / 모고(7-8월 14회) / 모고(9-11월 3회) / 주요 쟁점 체크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① 자기효능감 형성 교수전략(2점)

- ㉠ 숙달 경험 제공 측면: 학습자 수준에 맞는 과제, 도전적 과제 제시 등 → 과제 숙달로 성공경험의 기회를 제공
- ㉡ 대리 경험 제공 측면: 학생 자신과 유사한 또래 모델의 성공적인 모습이나 사례 제시 → 대리 강화를 받도록 함 등

② 자기조절과정 지원 방안(2점)

- ㉠ 자기 관찰(진행 점검): 학생들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 →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재의 학습 상황을 관찰하며 점검하도록 지원,
- ㉡ 자기 평가(자기 판단): 자기평가지나 자기성찰지를 제공 → 목표달성정도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지원
- ㉢ 자기 강화(자기 반응): 자기평가를 토대로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스스로 강화나 처벌을 하도록 지원
 - ⇒ ※ **유의점:** 자기효능감 향상 교수전략에서는 성공경험의 기회, 대리 강화의 기회가 잘 드러나도록 서술해야 하며, 자기조절과정 지원방안에서는 자기관찰, 자기평가, 자기강화 중 2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도록 서술해야 함

(2) 논점2(교육평가: 형성평가, 내용타당도)

모고(9-11월 3회) / 모고(9-11월 7회) / 모고(9-11월 15회) / 모고(9-11월 25회) / 주요 쟁점 체크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① '교사 측면' 에서 형성평가 활용 방안(2점)

- ㉠ 교수내용 · 교육과정의 개선: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정도나 학생 간 학습수준의 차이, 학습내용 이해도를 점검하여 보충 · 심화 등 교수내용이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용도로 활용
- ㉡ 교수방법 · 교수전략의 개선: 학생의 학습 진전 상황이나 교사의 교수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자신의 교수방법이나 교수전략을 개선하는 용도로 활용
- ㉢ 기타: 피드백 · 강화 제공, 수업진행 속도 조절, 학생의 학습근단 지점 진단 · 교정 등

② 내용타당도 명칭 및 확보 방안(2점)

- ㉠ 명칭: 내용타당도, 교수타당도 모두 가능
- ㉡ 확보방안: 이원분류표(이원목적분류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검사 문항을 제작, 수업 중 배운 내용에서 골고루 표집하여 표집타당도를 높임
 - ⇒ ※ **유의점:** 형성평가 활용 방안은 '교사 측면' 에서 제시해야 함

(3) 논점3(교육과정: 경험중심/학문중심 교육과정)

모고(7-8월 2회) / 모고(9-11월 13회) / 주요 쟁점 체크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① 경험중심 교육과정 장점(2점)

- ㉠ 학생의 경험과 흥미를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므로 학생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학습활동 촉진
- ㉡ 생활의 문제를 실험적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므로 문제해결능력과 반성적 사고력을 함양
- ㉢ 기타: 민주적 태도 함양, 전인형성 등

② 학문중심 교육과정 교육내용 선정·조직 방안(2점)

- ㉠ 교육내용 선정: 지식의 구조 -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상호 관련하여 체계화 해 놓은 것
 - ㉡ 교육내용 조직: 나선형 교육과정 - 지식의 구조는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점점 폭과 깊이를 확대·심화하도록 조직
- ⇒ ※ **유의점**: 교육내용 선정과 교육내용 조직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4) 논점4(교육행정: 관료제 이론)

모고(7-8월 12회) / 주요 쟁점 체크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① 관료제- '규칙과 규정' 강조의 순기능(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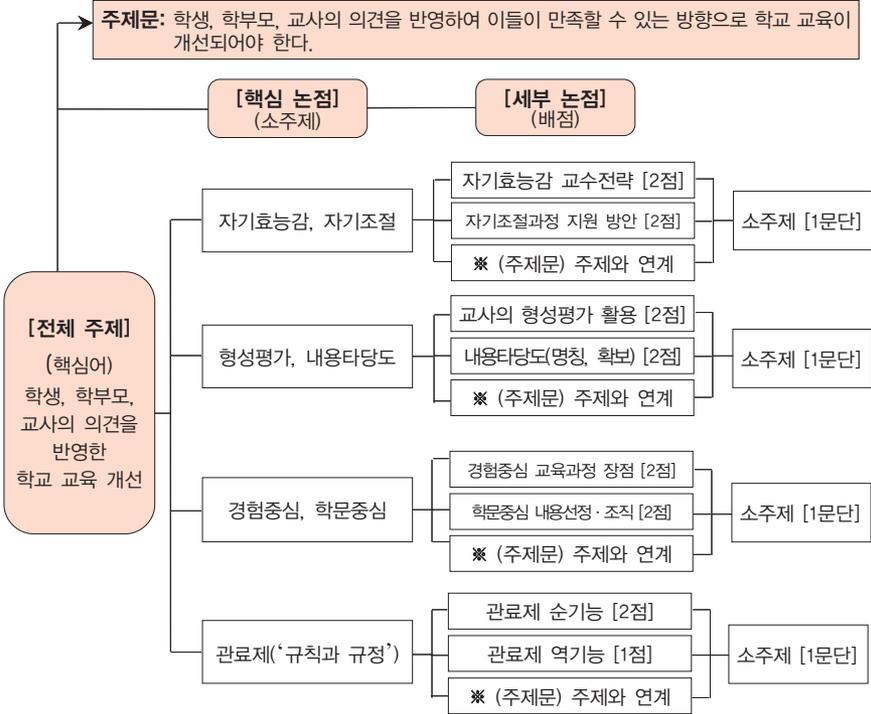
- ㉠ 모든 업무가 규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 → 학교 내외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조직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
- ㉡ 규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 → 업무의 통일성 확보

② 관료제- '규칙과 규정' 강조의 역기능(1점): 규칙과 규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조직 운영이 경직되거나 목표전도 현상 발생

- ⇒ ※ **유의점**: 관료제 특성 중 '규칙과 규정' 의 강조 측면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서술해야 함

논제 파악

[도해조직자(graphic organizer)]



[배점 분석(내용 영역)]

- < 배 점 —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 평가 보고서에서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요인에 따른 교수전략 2가지, 자기조절 과정에서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이후의 지원 방안 2가지 [4점]
 - ⇒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 제공을 위한 교수전략 각각 1가지(2점), 자기조절 과정 지원 2가지(2점) [4점]
 - ▶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형성평가를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평가 보고서에서 제안한 타당도의 명칭과 이 타당도의 확보 방안 1가지 [4점]
 - ⇒ 교사 측면에서 형성평가의 활용 방안 2가지(2점), 내용타당도 및 그 확보 방안 1가지(2점) [4점]
 - ▶ 평가 보고서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한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2가지,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교육과정 이론의 교육내용 선정·조직 방안 2가지 [4점]
 - ⇒ 경험중심 교육과정 장점 2가지(2점),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선정·조직 방안(2점) [4점]
 - ▶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관료제 이론의 특징 중 '규칙과 규정' 이 학교 조직에 미치는 순기능 2가지, 역기능 1가지 [3점]
 - ⇒ 규칙과 규정' 의 강조에 따른 순기능 2가지(2점), 역기능 1가지(1점) [3점]

[답안 구성]

[주제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전체 주제 (대주제)	핵심 논점 (소주제)	세부 논점 (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 (제시문 분석·적용)	배점	출제 영역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 학습	① 자기 효능감 교수전략 [2점]	㉠ 숙달 경험 제공 측면 ㉡ 대리 경험 제공 측면	㉠ 학습자 수준에 맞는 과제, 도전적 과제 제시 등 → 과제 숙달로 성공경험의 기회를 제공 ㉡ 학생 자신과 유사한 또래 모델의 성공적인 모습이나 사례 제시 → 대리 강화를 받도록 함	4점	교육 심리
		② 자기조절 과정 지원 (목표 설정 이후 단계) [2점]	㉠ 자기 관찰 (진행 점검) ㉡ 자기 평가 (자기 판단) ㉢ 자기 강화 (자기 반응)	㉠ 학생들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 →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재의 학습 상황을 관찰하며 점검하도록 지원 ㉡ 자기평가지나 자기성찰지를 제공 → 목표달성정도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지원 ㉢ 자기평가를 토대로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스스로 강화나 처벌을 하도록 지원		
		※ 주제와의 연계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을 증진하여 학생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형성평가, 내용 타당도	① 형성 평가의 활용 (교사 측면) [2점]	㉠ 교수내용·교육과정 개선 ㉡ 교수방법·교수전략 개선 ㉢ 기타: 피드백 제공, 수업진행 속도 조절, 학생의 학습 곤란 지점 진단·교정 등	㉠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정도나 학생 간 학습수준의 차이, 학습내용 이해도를 점검하여 교수내용이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용도로 활용 ㉡ 학생의 학습 진전 상황이나 교사의 교수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자신의 교수방법이나 교수전략을 개선하는 용도로 활용	4점	교육 평가
		② 내용타당도 [2점]	㉠ 명칭 ㉡ 확보 방안	㉠ 내용 타당도 (교수 타당도) ㉡ 이원분류표 (이원목적분류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검사 문항을 제작		
		※ 주제와의 연계	교육평가 측면에서는 형성평가의 활용과 타당도의 확보를 통해 학생의 평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전체 주제 (다주제)	핵심 논점 (소주제)	세부 논점 (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 (제시문 분석·적용)	배점	출제 영역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① 경험중심 교육과정(장점) [2점]	㉠ 장점1 ㉡ 장점2	㉠ 학생의 경험과 흥미를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므로 학생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학습활동 촉진 ㉡ 생활의 문제를 실험적 과정(문제-가설-자료수집-검증-결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므로 문제해결능력과 반성적 사고력을 함양	4점	교육과정
		② 학문중심 교육과정(교육내용 선정·조직 방안) [2점]	㉠ 교육내용 선정 ㉡ 교육내용 조직	㉠ 지식의 구조: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상호 관련하여 체계화해 놓은 것을 선정 ㉡ 나선형 교육과정: 지식의 구조는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점점 폭과 깊이를 확대·심화하도록 조직		
	※ 주제와의 연계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관료제 이론 ('규칙과 규정' 강조)	① 순기능 [2점]	계속성, 안정성, 통일성	㉠ 모든 업무가 규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 → 학교 내외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조직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 ㉡ 규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 → 업무의 통일성 확보	3점	교육행정	
		② 역기능 [1점]	조직운영의 경직성, 목표전도현상			규칙과 규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조직 운영이 경직되거나 목표전도현상
	※ 주제와의 연계	학교 조직의 측면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				

제공: 권지수 교수

최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의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학교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교수 전략, 교육평가, 교육과정, 학교 조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며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제시문의 ‘학교 운영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을 증진하여 학생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이다. 숙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전략으로는 학습자 수준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과제나 도전적인 과제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제를 숙달 하도록 함으로써 성공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대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전략으로는 또래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생 자신과 유사한 모델의 성공적인 모습이나 사례를 제시하여 대리 강화를 받도록 한다. 또 자기조절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조절 과정에서 목표 설정 이후의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첫째, 자기 관찰(self monitoring)이다. 학생들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재의 학습 상황을 관찰하며 점검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자기평가(self evaluation)이다. 자기평가지나 자기성찰지를 제공하여 목표달성정도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을 증진하도록 학교 교육이 개선된다면 학생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교육평가 측면에서는 형성평가의 활용과 타당도의 확보를 통해 학생의 평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교사는 수업 진행 중에 실시하는 형성평가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정도나 학생 간 학습수준의 차이, 학습내용 이해도 등을 점검하여 보충·심화 등 교수내용이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둘째, 학생의 학습 진전 상황이나 교사의 교수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자신의 교수방법이나 교수전략을 개선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한편, ‘평가 보고서’에 제안한 타당도는 내용타당도(교수타당도)이다. 검사가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수타당도이다.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목표를 내용 영역과 행동영역으로 이분화시켜 표현한 이원분류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검사 문항을 제작하도록 한다. 수업 중에 형성평가를 적절히 활용하고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학생의 평가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경험중심 교육과정 이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학생의 경험과 흥미를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므로 학생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학습활동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실제 생활의 문제를 실험적 과정(문제-가설-자료수집-검증-결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므로 문제해결능력과 반성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한편,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교육과정 이론은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과 관련된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상호 관련하여 체계화 해 놓은 지식의 구조를 교육내용으로 선정한다. 지식의 구조는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점점 폭과 깊이를 확대·심화하도록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조직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학교 조직의 측면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는 관료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료제 특징 중 하나인 ‘규칙과 규정’이 학교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순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모든 업무가 규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학교 내외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조직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규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해 나감으로써 업무의 통일성을 꾀할 수 있다. 반면, 규칙과 규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조직 운영이 경직되거나 목표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역기능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 관료제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교 운영이 개선된다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학교 교육 만족도를 반영하여 교수 전략, 교육평가, 교육과정, 학교 조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며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학교 당국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실천적 노력이 뒤따를 때 학교 교육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권지수의 탁월한 만점전략]
만점 미션 완료!!!



II 출제경향과 기출분석

① 출제경향

1. 출제 경향

- ① 전체적으로 출제 논점의 주요 개념들은 강의와 모의고사에서 모두 다룬 것이므로 평이했으나, 그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종합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체감 상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임
- ② 주요 변별력 요소: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총평관(진단평가 실행방안)과 총괄평가(평가결과 해석의 기준 및 그 이유), 학교중심 연수의 종류
- ③ 4개 영역(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교육행정)에서 골고루 출제, 배점 기준 세분화, 오픈형 문제 다수 출제, 힌트를 다소 섞어 골고루 안배한 출제 ⇒ 교육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이해와 그것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학적 마인드를 요하는 문제, 논술식의 종합적 사고력과 오픈형의 혼합 문제

2. 특이 사항

출제된 논점의 면에서만 보면, 모두 출제 1순위로 강조하며 다루었던 중요 개념들이며, 또 마지막 강의에서도 특별히 강조하여 중시한 개념들이므로 평이한 논점들임. 다만 그 개념의 활용력과 적용력에서 실력차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내년 경향

내년에도 이와 같은 유형과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됨

② 기출분석

1. 논술 주제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 모고에서도 여러 번 다른 주제

2. 논점 분석

(1) 논점(교육과정 조직과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관련 개념이 직·간접적으로 출제된 모고(7-8월 1회/ 9-11월 3회) / 6월 공개 모고 / 마지막 주요 쟁점 목록 짝기에서도 우선순위로 중시하며 강조

주요 쟁점	최종 점검(3회)
내용조직의 원리(스코프, 균형성, 계열성, 통합성, 수직적·수평적 연계)	
교육과정 재구성(재구성 방법/형태,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 STEAM) ✓	

- ①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 2가지 (2점)
- ②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열의 측면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 방법 2가지 (2점)

(2) 논점2(총평관에서 진단검사 실행방안, 총괄평가에서 평가결과의 해석 기준과 그 이유):

관련 개념이 직·간접적으로 출제된 모고(7-8월 9회/ 9-11월 1회, 3회, 7회, 10회, 16회, 19회, 20회, 25회, 26회) / 8월 공개 모고 / 마지막 주요 쟁점 목록 짚기에서도 우선순위로 중시하며 강조

주요 쟁점	최종 점검(3회)		
진단평가(개념, 목적, 기능, 시행전략) ✓			
질적 평가(개념, 특징, 평가방안, 장단점) ✓			
정의적 평가(필요성, 평가방법, 사회성 측정법) ✓			
준거지향평가(개념, 기능, 특징, 장단점)			
성장지향평가(개념, 장단점) ✓			
능력지향평가(개념, 장단점) ✓			

- ① 총평관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2가지 (2점)
- ② 총괄평가에서 학생 간 비교가 아닌 평가결과의 해석 기준과 그 이유 2가지 (2점)

(3) 논점3(딕과 캐리의 교수체제설계, 온라인 수업):

관련 개념이 직·간접적으로 출제된 모고(7-8월 5회/ 9-11월 4회, 10회, 21회, 25회, 26회) / 6월과 8월 공개 모고 / 마지막 주요 쟁점 목록 짚기에서도 우선순위로 중시하며 강조

주요 쟁점	최종 점검(3회)		
딕과 캐리 교수체제설계모형(단계별 내용)			
원격교육/온라인교육(ACTIONS모형, 장단점), 웹2.0과 소셜미디어 ✓			

- ① 딕과 캐리의 교수체제설계에서 개발해야 할 교수전략 2가지 (2점)
- ②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2가지와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 함께 제시 (2점)

(4) 논점4(학교 중심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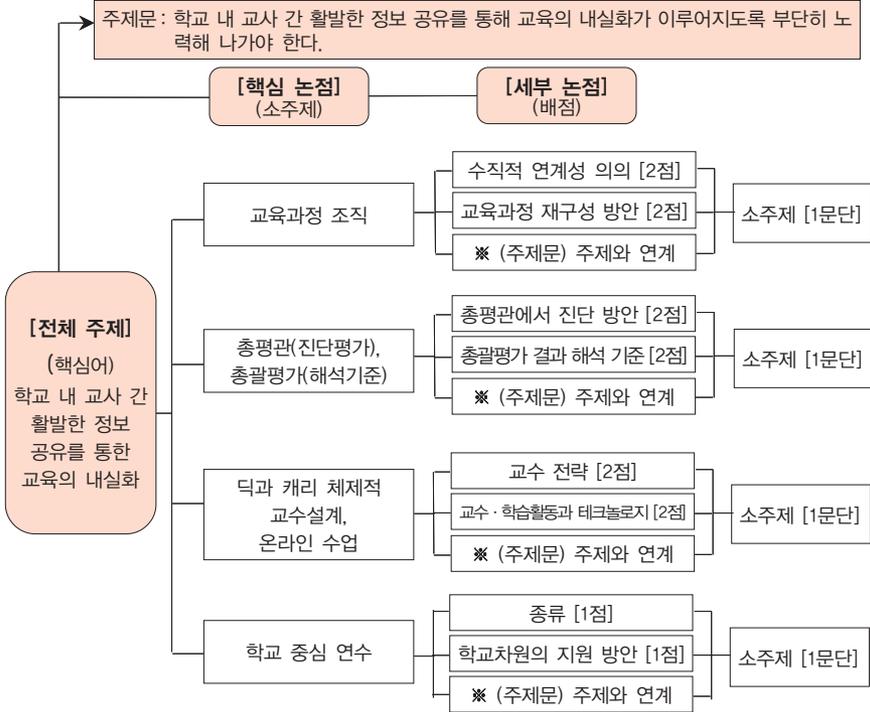
관련 개념이 직·간접적으로 출제된 모고(7-8월 13회/ 9-11월 2회, 4회, 5회, 7회, 25회,) / 4월 공개 모고 / 마지막 주요 쟁점 목록 짚기에서도 우선순위로 중시하며 강조

주요 쟁점	최종 점검(3회)		
학교조직(전문직 관료제, 이완조직, 조직화된 무질서, 학습조직, 전문적 학습공동체) ✓			
임상장학(개념, 절차, 목적, 특징, 유의점) ✓			
동료장학(개념, 특징, 장점) ✓			
자기장학(개념, 방법) ✓			
건설성장학(개념, 원리) ✓			

- ① 학교 중심 연수 1가지 (1점)
- ②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2가지 (2점)

논제 파악

[도해조직자(graphic organizer)]



[배점 분석(내용 영역)]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송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 2가지, 송 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2가지 [4점]
 - ⇒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의 의의 2가지(2점),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2가지(2점) [4점]
- 송 교사가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2가지 제시, 송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2가지를 각각 그 이유와 함께 제시 [4점]
 - ⇒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 진단 방안 2가지(2점),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과 그 이유 2가지(2점) [4점]
- 송 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 개발해야 할 교수전략 2가지 제시, 송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2가지를 각각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 [4점]
 - ⇒ 교수전략 2가지(2점), 교수·학습 활동과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 2가지(2점) [4점]
-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1가지,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2가지 [3점]
 - ⇒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1가지(1점), 학교 차원에서 구체적 지원 방안 2가지(2점) [3점]

[답안 구성]

[주제문]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

전체 주제 (대주제)	핵심 논점 (소주제)	세부 논점 (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제시문 분석·적용)	배점	출제 영역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교육과정 조직	① 수직적 연계성 (학습자 측면 의의) [2점]	㉠ 학습의 효율성 증대 ㉡ 학생의 교육력 감소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	㉠ 후속학습의 선행요건이 되는 학습을 보장 → 학습의 효율성 증대 ㉡ 여러 결점부를 중복, 비약, 낙차 등이 없도록 부드럽게 이어줌 → 학생의 교육력 감소와 학업성취도 향상 기여	4점	교육 과정
		②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열 측면) [2점]	㉠ 범위 측면 ㉡ 계열 측면	㉠ 교육과정 상의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엄선하여 내용요소의 폭과 수업시수를 재구성 ㉡ 엄선된 학습내용이 순차적으로 심화·확대되도록 내용의 순서를 조정하여 재구성		
		※ 주제와의 연계	교육과정 조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교사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총평 관에서의 진단 검사, 총괄평가에서 평가결과의 해석 기준과 그 이유	① 총평 관점에서 학생 진단 방안 [2점]	㉠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활용 ㉡ 투사적 방법 활용	㉠ 객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양적 평가와 관찰법·면접법을 사용하는 주관적 질적 평가를 함께 활용 ㉡ 자기보고방법, 역할놀이, 자유연상법 등의 심층적인 투사적 방법을 활용	4점	교육 평가
		② 총괄평가에서 평가결과의 해석 기준과 그 이유 [2점]	㉠ 준거지향해석 ㉡ 성장지향해석	㉠ 준거지향해석을 하면 학생의 원점수를 학생이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에 비추어 그 성취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 성장지향해석은 과거 성취도에 비추어 원점수를 해석하므로 학생의 성장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		
		※ 주제와의 연계	평가에 관한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는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p>① 디과 캐리의 교수체제 설계: 교수전략 [2점]</p> <p>②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 위한 교수·학습 활동과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 [2점]</p>	<p>㉠ 교수 전 활동</p> <p>㉡ 내용 제시 활동</p>	<p>㉠ 학생의 동기유발 전략, 학습목표 제시, 출발점 행동 확인 등</p> <p>㉡ 교수 계열화, 교수단위의 크기 결정, 정보와 예 제시 등</p>	4점	교육 방법	
		<p>㉠ 온라인 토의·토론학습</p> <p>㉡ 온라인 협동학습</p>	<p>㉠ 줌(ZOOM)이나 SNS 등에 기반한 온라인 토론활동으로 학생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p> <p>㉡ 패들렛(Padlet)이나 온라인 단체채팅방 등에 기반하여 팀원과 상호협력하며 공동의 과제를 해결</p>			
		<p>※ 주제와의 연계</p> <p>학교현장의 수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수전략을 교사 간에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면 교육의 내실화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p>				
	<p>학교 중심 연수</p> <p>②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2점]</p>	<p>① 학교 중심 연수 종류</p>	<p>교내자율장학이 나 연구수업,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등</p>	<p>교내자율장학(수업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의 결과를 자체연수 때 발표), 컨설팅장학, 연구수업, 교과교육연구회(동학년 협의회), 직원연수, 전달강습 등</p>	3점	교육 행정
		<p>㉠ 자율적 연수 풍토 조성</p> <p>㉡ 연수 프로그램과 연수 내용 자체 개발하여 안내</p>	<p>㉠ 교사가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연수하는 자율적인 연수 풍토 조성 → 우수 교과연구회 및 단위 학교의 자율연수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직능별 전문조직의 육성 및 지원</p> <p>㉡ 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과 연수 내용을 자체 개발하여 안내,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초대하여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 학습</p>			
		<p>※ 주제와의 연계</p> <p>교사 상호 간에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학교 중심의 연수가 활성화되면 교육의 내실화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p>				

제공: 권지수 교수

최근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교육을 내실화 하자는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전략, 교원연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의 교사 간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조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송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은 이전 학습내용과 다음 학습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는 후속학습의 선행요건이 되는 학습을 보장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둘째, 여러 결절부를 중복, 비약, 낙차 등이 없도록 부드럽게 이어줌으로써 학생의 교육력 감소를 방지하고 학업성취수준의 향상에 기여한다. 송 교사가 계획하는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상의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엄선하여 내용요소의 폭과 수업시수를 재구성한다. 둘째, 엄선된 학습내용이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화·확대되도록 내용의 순서를 조정하여 재구성한다. 교육과정 조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교사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평가의 방안과 결과 해석에 대한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도 교육의 내실화에 필수적이다. 송 교사가 언급한 총평은 인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인적 평가이다. 총평의 관점에서 학기 초 학생을 진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행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객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양적 평가와 관찰법·면접법을 사용하는 주관적 질적 평가를 함께 활용하여 학생을 진단하고, 그 다양한 증거 사이의 합치성(congruence)을 검토하고 판정한다. 둘째, 자기보고방법, 역할놀이, 자유연상법 등의 심층적인 투사적 방법을 활용하여 전인적인 평가를 실행한다. 한편, 송 교사가 학기 말 평가에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거지향 해석이다. 준거지향해석을 하면 학생의 원점수를 학생이 도달해야 할 성취표준에 비추어 그 성취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장지향해석이다. 성장지향해석은 과거 성취도에 비추어 원점수를 해석하므로 학생의 성장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평가에 관한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는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서 사용할 교수전략 개발에 관해서도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가 요구된다.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설계모형에 근거할 때 교실 수업을 위해 개발해야 할 교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 전 활동에서는 학생의

동기유발 전략, 학습목표 제시, 출발점 행동 확인 등 학습 준비를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둘째, 학습내용 제시를 위해서는 교수 계열화, 교수단위의 크기 결정, 정보와 예 제시 등 학습내용 제시 전략을 수립한다. 한편, 송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토의·토론학습을 활용한다. 줌(ZOOM)이나 SNS 등에 기반한 온라인 토론활동으로 학생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협동학습을 활용한다. 공동 작업이 가능한 패들렛(Padlet)이나 온라인 단체 채팅방 등에 기반하여 팀원과 상호협력하며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학교현장의 수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수전략을 교사 간에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면 교육의 내실화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학교 중심의 연수가 활성화되면 교육이 한층 내실화될 수 있다.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에는 수업장학, 동료장학 등의 결과를 자체연수 때 발표하는 교내자율장학이나 연구수업,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등이 있다.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교사가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연수하는 자율적인 연수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수 교과연구회 및 단위 학교의 자율연수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직능별 전문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둘째, 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과 연수 내용을 자체 개발하여 안내하거나, 교육의 전문성이 높은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초대하여 교육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교사 상호 간에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학교 중심의 연수가 활성화되면 교육의 내실화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전략, 교원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교사 상호 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같은 학교현장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된다면 학교교육은 보다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권지수의 탁월한 만점전략]

만점 미션 완료!!!



II 출제경향과 기출분석

① 출제경향

1. 출제경향

작년에 비해 다소 평이한 수준(주요 변별력 요소: 교육과정 운영 관점, 의사결정 모형), 4개 영역(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교육행정)에서 골고루 출제, 배점 기준 세분화, 오픈형 문제 다수 출제, 힌트를 어느 정도 섞어 골고루 안배한 출제 ⇨ 교육학의 개괄적인 내용과 교육학적 마인드를 요하는 문제, 논술식의 사고력과 오픈형의 혼합 문제

2. 특이사항

모의문제에서 출제 1순위로 강조하며 다루었던 문제들이며, 또 마지막 강의에서도 특별히 체크 표시하여 짚은 논점들이 모두 출제되었음

3. 내년 경향

올해보다 약간 난이도를 높인 출제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② 기출분석

1. 논술주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 ⇨ 각 본문의 내용과 연계할 것(2점)

2. 논점분석

(I) 논점 1(교육과정 운영 관점)

모고(7-8월 1회/ 9-11월 27회) / 8월 공개 모고 / 마지막 짝기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① 충실도 관점 장점(1점)

- ㉠ 외부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을 고도로 구조화하고 교수방법 지침도 구체화하여 제시해 줄 수 있다(쟁점 사항별 실행 수준의 문제와 그에 따른 처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
- ㉡ 새로운 교육과정이 실제로 사용되기로 한 시점에서부터 그것이 의도한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유무를 추적할 수 있다.
- ㉢ 외부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을 수업에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개발자의 의도가 교실 현장에 잘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 ㉣ 기타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결정의 장점

② 충실도 관점 단점(1점)

- ㉠ 교사배제(teacher proof)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교육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고 교사의 능동적 관여를 경시한다(교사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교육 실재는 이론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 ㉞ 교육과정 개발자의 의도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해야 하므로 교사의 역할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로 최소화시킨다(교사를 교육 상품의 피동적인 수령자로 간주하고 있다).
- ㉟ 기타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결정의 단점
- ③ 생성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2가지(2점)
 - ㉠ 교육과정 지식은 교실 밖 전문가들이 만든 산물이 아니라,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창안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은 모두 교육과정의 공동 창안자로서 교사와 학생 모두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교육과정 생성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개인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자이자 창안자로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의 이익을 위하여 학교와 교실의 복잡하고 특수한 환경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 ㉢ 학생들의 주관적인 지각이나 느낌,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과정 등이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자이자 창안자이므로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 교육적 가치 등을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 ㉤ 기타 활동중심 교육과정, 생성형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발의 형태를 제시해도 인정될 여지가 높음 ⇨ ※ 유의점: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창안하는 교육과정, 창조적 교육과정의 운영이 잘 드러나야 하며, 교사와 학생 함께 성장과 발달이 가능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함

(2) 논점 2(자기평가)

모고(9-11월 10회) / 마지막 짝기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 ① 자기평가의 교육적 효과 2가지(2점)
 - ㉠ 자신의 인지수준이나 학습전략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
 - ㉡ 학생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학습달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 학생의 자기성찰을 통한 학습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게 됨
 - ㉣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면서 학습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 방식임
 - ㉤ 학습에 대한 인지적 능력과 함께 학습동기 및 태도와 같은 정서적 능력을 통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 자신의 학습 및 평가를 통제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으로 자신의 학습 및 발달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궁극적으로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역량 개발에 유용함
 - ㉦ 자기평가는 교사의 평가 부담을 분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② 수업에서 자기평가 실행 방안 2가지(2점)

- ㉠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이다. 수업이전, 과정 및 종료 이후 모두 적용가능하며, 학습목표에 맞는 즉각적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매우 유용한 평가 도구임. 예컨대, 형성평가의 전략으로 실행할 수 있음. 수업 과정에 자기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습목표에 맞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학생들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정을 해 줄 수 있음
- ㉡ 자기평가는 독립적인 형태로도 실시할 수 있지만, 다른 평가방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예컨대, 수행평가나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자신의 산출물에 대한 자기성찰의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지필검사를 실시한 이후 자신의 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음
- ㉢ 자기평가는 응답 양식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 구조화 유형에는 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 등이 있고, 비구조화 유형에는 자기성찰적 글쓰기(학습일지, 저널쓰기 등) 등이 있음. 평정척도법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수행수준, 학습과정 등을 단계(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등)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점을 매기는 방법임. 반면, 체크리스트(항목별 점검법)은 주어진 항목에 따라 자신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예’ / ‘아니오’와 같은 방법으로 점검하여 체크하는 방법임. 마지막으로 자기성찰적 글쓰기는 학습반성일지(reflective learning log), 성찰적 저널(reflective journal) 쓰기 등으로 불리며, 이 방법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기록하고 제시된 질문에 기술하는 방법임
- ㉣ 추론이나 문제해결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위하여 ‘예시답안’ 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기반하여 스스로의 답안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학습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특히 ‘기술’ 이나 ‘산출물’ 에 대한 자기평가는 학생들에게 수행준거나 채점기준 등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수행수준을 이러한 기준들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 ⇨ * 유의점: 수업과 연계된 자기평가의 실행 방안이라야 함

(3) 논점 3(온라인 수업)

모고(9-11월 27회) / 8월 공개 모고 / 마지막 짝기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①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 특성의 예(1점)

- ㉠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 선호도, 학습양식 등 온라인 접근 양식
- ㉡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생의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처리능력,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소통능력 등 온라인 활용 역량
- ㉢ 온라인 상에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

②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습 환경의 예(1점)

- ㉠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비 여부와 기술적 지원체제
- ㉡ 온라인 수업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SM), 온라인 접근성, 교수학습 지원성 등 온라인 수업의 시스템 및 콘텐츠 현황
- ㉢ 학습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모두 모아 놓은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 등

③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한 학생 지원 방안 2가지(2점)

- ㉠ 교사와 학생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토론 게시판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학습과정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의 학습 성취 정도에 따라서 적응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중도탈락하거나,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함
- ㉡ 학생 상호 간에도 음성, 화상대화 등 실시간 토론이나 묻고 답하기, 정보 공유 등 비실시간 토론 등으로 토론 게시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서로 협력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학습 내용에 대한 심화·보충형 자료를 토론 게시판에 제시하여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자신의 학습상황을 스스로 점검·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학습 내용에 대해 학생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 교환과 사회적 협상이 가능하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의 정교성을 높이도록 지원함
→ ※ 유의점: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토론 게시板的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함

(4) 논점 4(의사결정 모형)

모고(9-11월 19회) / 모고(9-11월 27회) / 8월 공개 모고 / 마지막 짝기에서 특급 우선 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① 합리모형 단점(1점)

- ㉠ 의사결정자의 전지전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인간 능력의 한계로 인해 비현실적이다(합리모형의 전지전능의 가정은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문제 분석 능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심리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수도 있어 오히려 구성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 대안을 과학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규범적이기 때문에 사실세계의 정책결정 상황에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정형적 문제해결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전례가 없는 새롭고 비구조적인 비정형적 문제해결에는 적용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② 점증모형 단점(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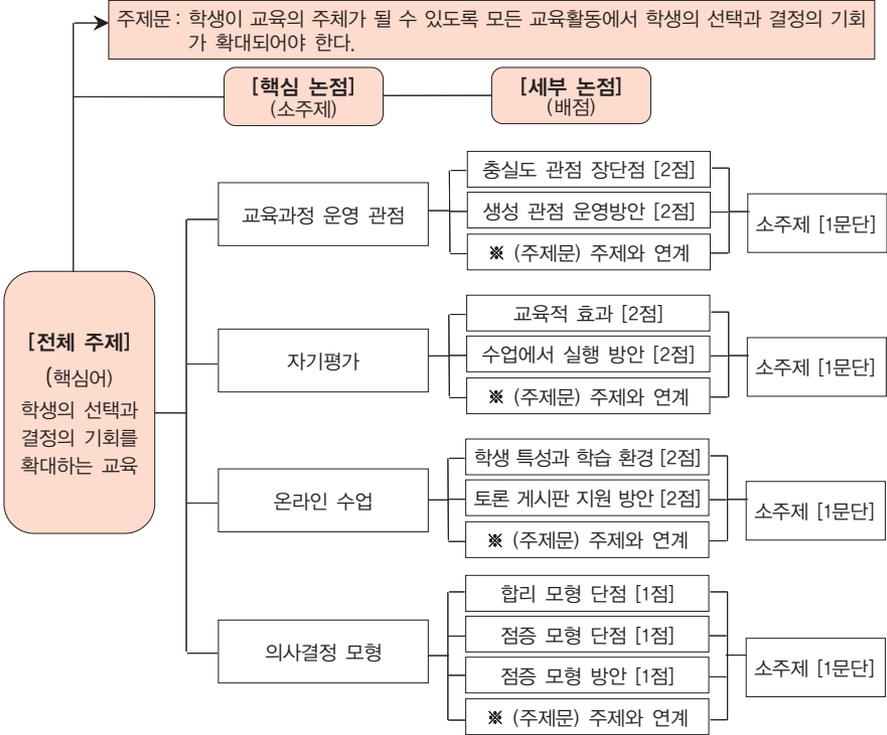
- ㉠ 새로운 목표의 적극적인 추구보다는 드러난 문제나 불만의 해소에만 주력함으로써 적극적인 선(善)의 추구보다는 소극적인 악(惡)의 제거에만 관심을 쏟는다.
- ㉡ 급격한 변화나 장기적인 전망에 의거한 계획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적당히 되는 대로 해 나가는’ (muddling through)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대증적(對症的)인 정책결정모형이다.
- ㉢ 점진적·보수적 성격을 띠어 개혁적이거나 혁신적인 의사결정에는 부적합하다.

③ 점증모형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1점): 기존의 학교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학회나 설문지 등을 통해 제시하도록 하고, 점진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을 검토하여 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선택한다.

⇒ ※ 유의점: 대안탐색은 현존상황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며,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 결정 방향이라야 함

논제 파악

[도해조직자(graphic organizer)]



[배점 분석(내용 영역)]

〈 배 점 〉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김 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 교육과정 운영 관점의 장점과 단점 각각 1가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2가지 [4점]
 - ⇒ 총실도 관점의 장단점 각각 1가지(2점), 생성 관점의 운영 방안 2가지(2점) [4점]
-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2가지,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 2가지 [4점]
 - ⇒ 자기평가의 교육적 효과 2가지(2점), 수업에서 자기평가의 실행 방안 2가지(2점) [4점]
- 김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의 구체적인 예 각각 1가지,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서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2가지 [4점]
 - ⇒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의 구체적 예 각각 1가지(2점), 토론 게시판을 활용한 학생 지원 방안 2가지(2점) [4점]
- A 안과 B 안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모형의 단점 각각 1가지, 김 교사가 B 안에 따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1가지 [3점]
 - ⇒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 각각 1가지(2점), 점증 모형의 구체적 방안 1가지(1점) [3점]

[답안 구성]

[주제문]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전체 주제 (대주제)	핵심 논점 (소주제)	세부 논점 (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제시문 분석·적용)	배점	출제 영역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	교육과정 운영 관점	① 충실도 관점의 장·단점 [2점]	㉠ 장점 : 구조화된 교육과정 ㉡ 단점 : 교사배제 교육과정	㉠ 장점 : 쟁점 사항별 실행수준의 문제와 그에 따른 처방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점 : 교육현장의 특수한 상황 반영하기 어렵고 교사의 능동적 관여 경시	4점	교육과정
		② 생성 관점 운영 방안 [2점]	㉠ 교사, 학생 모두 성장 ㉡ 특수한 환경에 맞추어 운영	㉠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개인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해 가도록 교육과정 운영 ㉡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자이자 창안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의 이익을 위하여 학교와 교실의 복잡하고 특수한 환경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		
		※ 주제와의 연계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새로운 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자기평가	① 자기평가의 교육적 효과 [2점]	㉠ 메타인지 향상 ㉡ 스스로 점검 기회 제공	㉠ 자신의 인지수준이나 학습전략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메타인지를 향상 ㉡ 학생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학습달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4점	교육평가
		② 자기평가 실행 방안 [2점]	㉠ 독립된 형태로 실행 ㉡ 다른 평가와 연계	㉠ 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나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자신의 산출물에 대한 자기성찰의 내용을 포함시켜 실행		
		※ 주제와의 연계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평가의 권한을 학생에게 이양하는 일도 중요하다.			

온라인 수업	①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 [2점]	㉠ 학생 특성 ㉡ 학습 환경	㉠ 학생의 컴퓨터 활용 능력, 통신수단의 의사소통능력 등 온라인 활용 역량 ㉡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비 여부와 기술적 지원체제, 학습 관리시스템(LSM) 등 온라인 수업의 시스템과 콘텐츠 현황	4점	교육 방법
	② 토론 게시판을 활용한 학생 지원 방안 [2점]	㉠ 교사와 학생 간 ㉡ 학생 상호 간	㉠ 토론 게시판에서 학생의 학습과정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의 학습 성취 정도에 따라서 적응적인 피드백을 제공 ㉡ 토론 게시판을 실시간 토론이나 비실시간 토론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학생 상호 간에도 서로 협력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 진행		
	※ 주제와의 연계	온라인 수업의 경우, 온라인에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수적이다.			
의사결정 모형	① 합리 모형 단점 [1점]	비현실적임	의사결정자의 인지전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인간 능력의 한계로 인해 비현실적임	3점	교육 행정
	② 점중 모형 단점 [1점]	소극적인 악의 제거	문제나 불만의 해소에만 주력함으로써 적극적인 선(善)의 추구보다는 소극적인 악(惡)의 제거에만 관심을 쏟음		
	③ 점중 모형에 따른 구체적 방안 [1점]	점진적 개선책 도모	기존의 학교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학생회나 설문지 등을 통해 제시, 점진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을 검토하여 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선택		
	※ 주제와의 연계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도 학생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공: 권지수 교수

최근 학생참여형 수업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방식, 수업설계 등에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도 학생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시문의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새로운 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스나이더(Snyder) 등에 따르면, 김 교사가 언급한 기존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은 충실도 관점이다. 충실도 관점은 교실 외부의 전문가에 의해 고도로 구조화된 교육과정이 개발되므로 쟁점 사항별 실행 수준의 문제와 그에 따른 처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사배제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교육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고 교사의 능동적 관여를 경시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김 교사가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은 생성 관점이며,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생성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개인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교육과정 창안자로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의 이익을 위하여 학교와 교실의 복잡하고 특수한 환경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처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성 관점이 타당해 보인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평가의 권한을 학생에게 이양하는 일도 중요하다.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평가이다. 자기평가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가 있다. 첫째, 자신의 인지수준이나 학습전략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학생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학습달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자기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된 형태로 자기평가를 실행할 수 있다. 수업 전, 과정 및 종료 이후 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둘째, 다른 평가 방법과 연계하여 실행할 수도 있다.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나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자신의 산출물에 대한 자기성찰의 내용을 포함시켜 자기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처럼 평가 측면에서 학생의 기회가 확대되려면 자기평가를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온라인에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생 특성 측면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생의 컴퓨터 활용 능력,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소통능력 등 온라인 활용 역량을 파악해야 하며, 학습 환경 측면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비 여부와 기술적 지원체제,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온라인 수업의 시스템과 콘텐츠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토론 게시판에서 교사와 학생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학습과정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의 학습 성취 정도에 따라서 적응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둘째, 토론 게시판을 실시간 토론이나 비실시간 토론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학생 상호 간에도 서로 협력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학생의 기회를 확대하려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생이 학습의 주도권을 갖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도 학생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A 안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모형은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 모형이다.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전지전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인간 능력의 한계로 인해 비현실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B 안은 기존의 정책보다 약간 개선된 대안을 선택하는 점중 모형에 해당한다. 점중 모형은 새로운 목표의 적극적인 추구보다는 드러난 문제나 불만의 해소에만 주력함으로써 적극적인 선(善)의 추구보다는 소극적인 악(惡)의 제거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단점이 있다. 점중 모형에 따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려면, 기존의 학교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학생회나 설문지 등을 통해 제시하도록 하고, 점진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을 검토하여 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처럼 학생의 기회가 확대하려면 학교 운영에서도 학생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과 함께 교육경험을 창조하고, 평가에서는 학생의 자기평가를 확대해 주어야 하며,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도 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II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① 출제경향

작년에 비해 다소 평이한 수준(주요 변별력 요소: 지식론, 학교문화 유형), 4개 영역(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 교육행정)에서 골고루 출제, 배점 기준 세분화, 오픈형 문제 포함, 힌트를 어느 정도 섞어 골고루 안배한 출제

⇒ 교육학의 개괄적인 내용과 논술식의 사고력 오픈형의 혼합 문제

1. 특이사항

모의문제(특히 7~8월 모고)에서 출제 1순위로 강조하며 다루었던 문제들이며, 또 마지막 강의에서도 특별히 체크 표시하여 짚은 논점들이 모두 출제되었음

2. 내년 경향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와 출제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② 기출분석

1. 논술주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 ⇒ 각 본문의 내용과 연계할 것(2점)

2. 논점분석

(1) 논점 1(비고츠키 이론)

모고(9~11월 13회/ 5~6월 사례연습 7~8번) / 마지막 짚기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 ① 지식론의 명칭(1점): 사회적 구성주의(사회문화적 구성주의)
- ② 지식의 성격(1점): 사회적, 맥락의존적(문화적·역사적 성격)
- ③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1가지(2점)
 - ㉠ 교사: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 설계자(사회문화적 환경조성자), 안내자(조력자), 촉진자, 동료학습자 등
 - ㉡ 학생: 지식의 능동적 창조자, 지식 구성자(지식 구성 참여자), 사회적 상호작용자, 능동적 학습자 등

(2) 논점 2(교육내용: 영 교육과정, 중핵 교육과정)

모고(7~8월 1회, 2회) 및 모고(9~11월 16회) / 마지막 짚기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 ① 영 교육과정 시사점 1가지(1점): 배울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내용(특정 교과, 특정 주제나 사고방식)이 없는지 유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육내용 선정
- ② 교육내용 조직방식의 명칭(1점): 중핵 교육과정(중핵적 조직방식)

③ 중핵 교육과정 조직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각각 1가지(2점)

- ㉠ 장점 : 문제해결력이나 비판적 사고력 촉진, 실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흥미와 동기 유발, 의미 있고 중요한 학습경험 촉진, 지식의 상호관련성 이해 및 개인의 통합적 성장 촉진
- ㉡ 단점 : 특정 교과와 체계적 지식 습득 어려움,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시간의 경제성 문제), 다른 교과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토의를 준비해야 하므로 수업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 등

(3) 논점 3(교수방법: 정착수업, 위키 활용)

모고(7~8월 6회) / 마지막 짝기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① 정착수업의 원리 2가지(2점)

- ㉠ 실제 상황을 모사한 영상매체(㉡ 비디오, 컴퓨터)를 통해 토의 문제 제시(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상황적 맥락을 제공)
- ㉢ 문제 상황을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이야기 형태로 제공
- ㉣ 친숙한 이야기(영상매체) 속에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단서들이 함축되어 있음
- ㉤ 팀 구성원들이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상생적인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함)

② 위키 활용 시 문제점 2가지(2점)

- ㉠ 부정확한 정보(정보의 오류)
- ㉢ 인터넷 활용능력이 떨어지거나 정보처리능력이 낮은 학습자의 소극적 참여
- ㉣ 정보의 과부하
- ㉤ 의견 조율에 많은 시간(갈등) 등

(4) 논점 4(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학교문화 유형)

모고(7~8월 12회) / 마지막 짝기에서 특급 우선순위로 체크하며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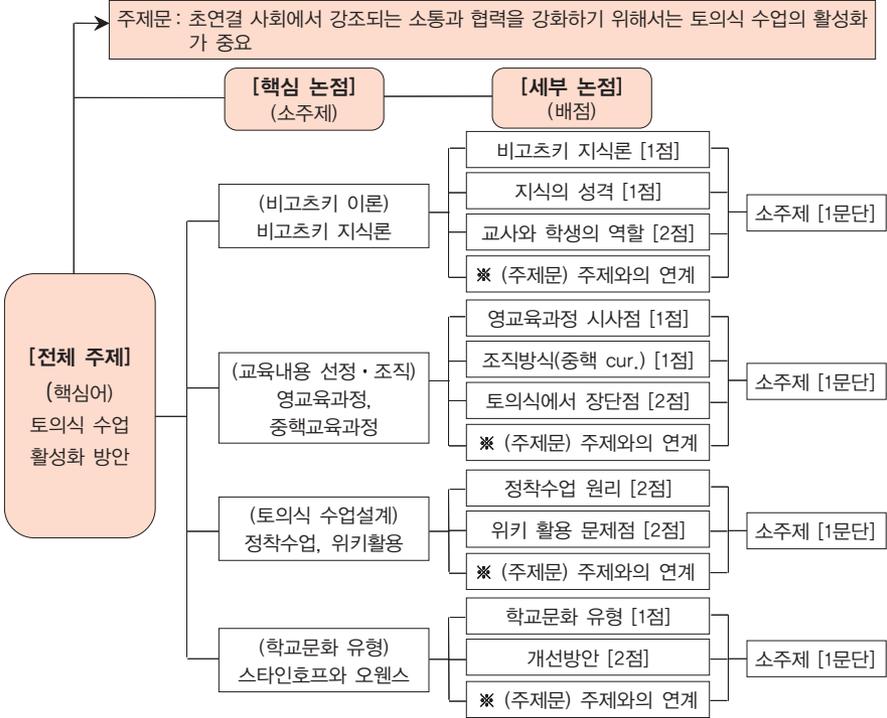
① 학교문화 유형(1점) : 기계문화

② 학교차원에서 개선방안 2가지(2점)

- ㉠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개방적 문화 조성
- ㉢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과 민주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참여적 문화 조성(학교목표 설정에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문화 조성)
- ㉣ 구성원을 성숙한 존재로 신뢰하고 그들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며 성숙할 수 있는 문화 조성 등

논제 파악

[도해조직자(graphic organizer)]



[배점 분석(내용 영역)]

〈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1가지와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1가지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1점), 지식의 성격 1가지(1점)와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1가지(2점) [4점] - B 교사가 말한 '영 교육과정' 이 교육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 1가지, B 교사가 말한 교육내용 조직방식의 명칭과 이 조직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각각 1가지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교육과정' 이 교육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 1가지(1점), 교육내용 조직방식의 명칭(1점)과 이 조직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각각 1가지(2점) [4점] - C 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수업의 원리 2가지,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수업의 원리 2가지(2점),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2점) [4점] - 스타인호프와 오웬스(C. Steinhoff & R. Owens)가 분류한 학교문화 유형에 따라 때 D 교사가 우려하는 학교문화 유형의 명칭과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2가지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 교사가 우려하는 학교문화 유형의 명칭(1점)과 학교 차원에서 학교문화 개선 방안 2가지(2점) [3점]

[답안 구성]

[주제문] 초연결 사회에서 강조되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전체 주제 (대주제)	핵심 논점 (소주제)	세부 논점 (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제시문 분석·적용)		배점	출제 영역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	(비고츠키) 비고츠키 지식론	① 지식론 명칭 [1점]	사회적 구성주의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 구성 /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지식 구성	4점	교육 심리
		② 지식의 성격 [1점]	사회적, 맥락의 존적	개인이 사회문화적 상황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③ 교사와 학생의 역할 [2점]	㉠ 교사: 학습환경 설계자, 안내자, 촉진자 등 ㉡ 학생: 지식의 능동적 창조자, 지식 구성자, 사회적 상호작용자, 능동적 학습자 등	㉠ 교사: 학습자 중심의 사회문화적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습을 안내하며 촉진하는 역할 ㉡ 학생: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에 참여하여 사회문화적 지식을 내면화하는 지식의 능동적 창조자이자 지식 구성자로서의 역할		
	※ 주제와의 연계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식의 성격 규명과 교사 및 학생의 역할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내용 선정·조직) 영 교육과정, 중핵교육과정, 토의식 수업	① 영 교육과정의 시사점 [1점]	영 교육과정	교육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내용 선정 단계에서 배제된 특정 교과나 특정 주제, 사고방식이 없는지 살펴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은 반드시 선정해야 함을 시사	4점	교육 과정	
	② 조직방식의 명칭 [1점]	중핵 교육과정	탈학문적 설계방식의 대표적인 예로서 중심과정과 주변과정이 동심원적으로 결합된 교육과정 조직방식			
	③ 조직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2점]	㉠ 장점: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 단점: 특정 교과 지식의 체계적 습득 어려움	㉠ 장점: 현실에서 부딪치는 실제적 과제를 토의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학생의 문제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 촉진			

			㉔ 단점: 여러 교과 내용과 연결하여 중심 주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특정 교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		
	※ 주제와의 연계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영 교육과정, 중핵 교육과정 등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요청된다.			
(토의식 수업설계) 정착수업의 원리, 위키 활용	① 정착수업의 원리 [2점]	㉑ 영상매체 이야기 ㉒ 협력적 문제 해결	㉑ 실제 상황을 모사한 영상매체의 이야기를 통해 토의 문제를 제시 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도록	4점	교육방법
	② 위키 활용의 문제점 [2점]	㉑ 잘못된 지식 생산 ㉒ 소극적 참여	㉑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도 있으므로 자칫 잘못된 지식을 재생산 ㉒ 인터넷 활용능력이 떨어지거나 정보처리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학습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		
	※ 주제와의 연계	토의식 수업이 활성화되려면 정착수업, 위키 등 영상매체나 인터넷을 활용한 효과적인 수업방안의 설계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문화 유형)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학교문화 유형론	① 학교문화 유형의 명칭 [1점]	기계문화	학교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를 기계와 같이 취급하며 이용하는 문화	3점	교육행정
	② 개선안(2가지)[2점]	㉑ 가족/공연문화 조성 ㉒ 변혁적 지도성 발휘	㉑ 학교 구성원이 의무 이상의 헌신과 서로에 대한 관심과 협력, 애정을 갖는 가족문화를 조성, 학생의 반응을 중시하며 훌륭한 교장의 지도하에 탁월한 가르침을 추구하는 공연문화 조성 ㉒ 교장이 변혁적 지도성을 발휘하여 명문대 합격만 생각하는 교사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도록 자극하면서 각자의 잠재력을 계발하도록 배려		
	※ 주제와의 연계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때 토의식 수업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제공: 권지수 교수

최근 초연결 사회에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지식관, 교육내용, 수업설계, 학교문화의 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제시문의 교사협의회를 토대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지식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츠키(Vygotsky) 지식론은 사회적 구성주의이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중시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식 구성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본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이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식은 사회적이며 맥락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이므로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사회문화적 학습환경을 설계하고 학습을 안내하며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에 참여하여 사회문화적 지식을 내면화하는 지식의 능동적 창조자이자 지식 구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지식론에 근거해 볼 때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식의 성격 규명과 교사 및 학생의 역할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안목이 요구된다. 교육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B 교사가 말한 영 교육과정은 배울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배제된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영 교육과정은 교육내용 선정에서 배제된 특정 교과나 특정 주제, 사고방식이 없는지 살펴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은 반드시 선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 내용조직과 관련하여 B 교사가 말한 중심부와 주변부를 결합하는 조직방식은 중핵 교육과정이다. 중핵 교육과정은 탈학문적 설계방식의 대표적인 예로서 중심과정과 주변과정이 동심원적으로 결합된 교육과정 조직방식이다. 이 조직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은 현실에서 부딪치는 실제적 과제를 토의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학생의 문제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반면, 여러 교과 내용과 연결하여 중심 주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특정 교과 지식의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영 교육과정, 중핵 교육과정 등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요청된다.

토의식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업방법과 학습도구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수업방법의 측면에서 C 교사가 제시한 토의식 수업 설계에서 활용 가능한 정작수업의 원리 2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상황을 모사한 영상매체의 이야기를 통해 토의 문제를 제시한다. 문제 상황을 제시할 때 거시적 상황을 앵커(anchor)로 사용한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이야기 속에 암시

된 여러 단서들을 찾아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또, 학습도구의 측면에서는 위키(Wiki)를 활용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도 있으므로 자칫 잘못된 지식을 재생산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활용능력이 떨어지거나 정보처리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학습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토의식 수업이 활성화되려면 정착수업, 위키 등 영상매체나 인터넷을 활용한 효과적인 수업방안의 설계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문화의 개선은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 스타인호프와 오웬스(Steinhoff & Owens)가 분류한 학교문화 유형에 따라 때 D 교사가 우려하는 학교문화 유형은 기계문화이다. 기계문화는 학교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을 기계와 같이 취급하며 이용하는 문화이다. 이런 문화에서는 활발한 토의식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차원에서 기계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2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구성원이 의무 이상의 헌신과 서로에 대한 관심과 협력, 애정을 갖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거나, 학생의 반응을 중시하며 훌륭한 교장의 지도 하에 탁월한 가르침을 추구하는 공연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둘째, 교장이 변혁적 지도성을 발휘하여 명문대 합격만 생각하는 교사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도록 자극하면서 각자의 잠재력을 계발하도록 배려한다. 이처럼 기존의 기계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재구조화하고 변혁해 나갈 때 토의식 수업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초연결 사회에서 강조되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사회적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식관과 교사 및 학생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방식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정착수업과 위키 등을 활용한 수업방법의 변화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나아가 학교문화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만큼 기계문화를 민주적인 학교문화로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① 출제경향

작년에 비해 다소 어려운 수준(주요 변별력 요소 : 다중지능 및 신뢰도 추정방법의 명칭과 개념), 4개 영역(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행정)에서 골고루 출제 + 배점 기준 세분화 + 힌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골고루 안배한 문제

⇒ 객관식의 지엽적 요소와 논술식의 사고력 오픈형의 혼합 문제

1. 특이사항

모의문제에서 출제 1순위로 강조하며 다루었던 문제들이며, 또 마지막 강의에서도 특별히 체크 표시하여 짚은 논점들이 다 출제되었음

2. 내년 경향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와 출제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② 기출 분석

1. 논술 주제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 ⇒ 각 분문의 내용과 연계할 것(2점)

2. 논점분석

(1) 논점 1(다중지능이론)

모고(7~8월 4회: 지능명칭 암기법 소개) 및 모고(9~11월 7회)/ 마지막 짝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체크 표시하며 강조

- ① 다중지능의 명칭과 개념(2점) : 대인관계 지능/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지능
⇒ 타인의 기분, 동기, 의도를 구분하고 대응하는 능력
- ② C 학생에게 제공할 개별 과제와 그 이유(2점) : C학생이 ‘개인 내적 지능’ 이 강점 지능이라는 점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이유도 개인 내적 지능과 연관시켜야 함 ⇒ 자기주도적이거나 자기조절이 가능한 학습과제(프로젝트형 과제), 자기성장 지향적 과제, 좌절하지 않고 실패에 대처할 수 있는 도전적 과제 등

(2) 논점 2(학습경험 선정 원리와 잠재적 cur.)

모고(7~8월 1회) 및 모고(9~11월 21회)/ 마지막 짝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체크 표시하며 강조

- ① 학습경험 선정 원리(2점) :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 ②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과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 의 예(2점) :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은연중에 학습하는 경험, 모둠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경험의 예들을 제시

(3) 논점 3(척도법, 신뢰도 추정방법)

모고(9~11월 28회)/ 마지막 짝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체크 표시하며 강조

- ① 척도법의 명칭과 진술문 작성 유의점(2점): 리커트(Likert) 척도, 진술문 작성 유의점
- ② 신뢰도 추정방법의 명칭과 개념(2점): 문항내적 합치도(검사에 포함된 문항들에 대한 반응이 일관성이 있는 정도/검사 속 문항을 각각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로 생각하고 그 합치성·동질성·일치성을 종합하는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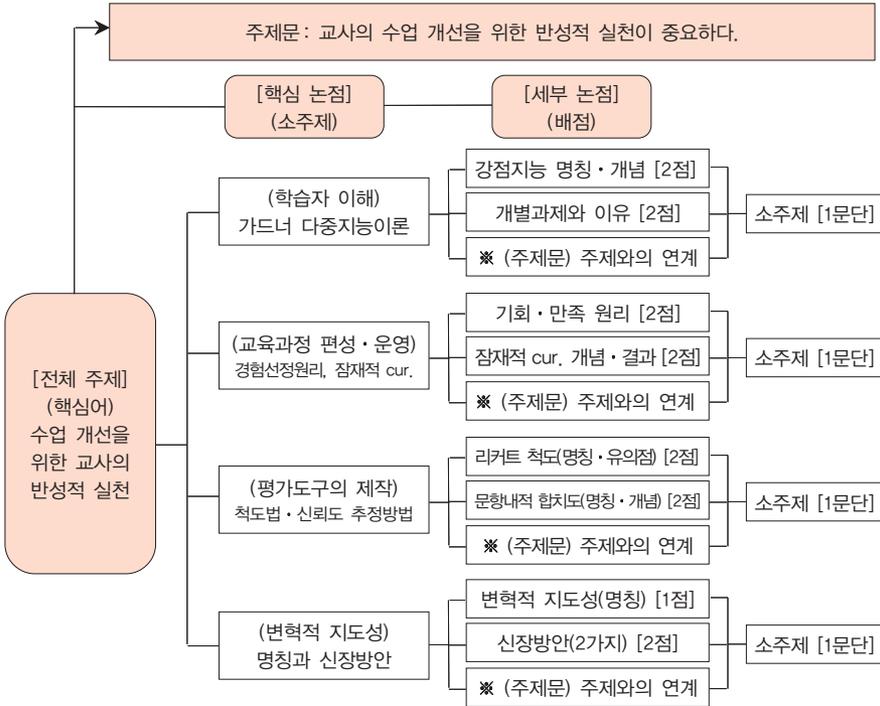
(4) 논점 4(변혁적 지도성)

모고(7~8월 13회 및 9~11월 4회) 두 번씩 출제하며 1순위로 꼽은 논점/ 마지막 짝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체크 표시하며 강조

- ① 지도성의 명칭(1점): 변혁적 지도성
- ② 동료교사와 함께할 수 있는 신장방안(2점): 동료 간 연구회 활성화, 동학년 협의회 활성화, 멘토링 활성화,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논제 파악

[도해조직자(graphic organizer)]



[배점 분석(내용 영역)]

〈 배 점 〉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적 강점 지능의 명칭과 개념,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각 1가지 [4점]
 - ⇒ 대인관계 지능의 명칭과 개념(2점), 개별 과제와 그 이유(2점) [4점]
- 타일러(R. Tyler)의 학습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의 원리로 첫째 물음을 설명, 만족의 원리로 둘째 물음을 설명, 잭슨(P. Jackson)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과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 의 예 제시 [4점]
 - ⇒ 기회 및 만족의 원리로 설명(2점),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1점)과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1점) [4점]
- 척도법의 명칭과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점 1가지,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 1가지의 명칭과 개념 [4점]
 - ⇒ 리커트 척도의 명칭과 진술문 작성 유의점(2점)과 신뢰도 추정방법(문항내적 합치도) 명칭과 개념(2점) [4점]
- 바스(B. Bass)의 지도성의 명칭, 동료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3점]
 - ⇒ 변혁적 지도성의 명칭(1점), 신장방안 2가지(2점) [3점]

[답안 구상]

[주제문]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적 실천이 중요하다.						
전체 주제 (대주제)	핵심 논점 (소주제)	세부 논점 (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 (제시문 분석·적용)		배점	출제 영역
(학습자 이해)가 드러나지 않는 이론		① 자승명칭·개념 [2점]	대인관계 지능	㉠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지능 ㉡ 타인의 기분, 동기, 의도를 구분하고 대응하는 능력	4점	교육 심리
		② 개별과제와 그 이유 [2점]	자기주도적인 수행이 요구되는 프로젝트형 과제, 자기조절형 과제 등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며 통제하는 능력인 개인내적 지능이 우수하기 때문		
		※ 주제와의 연계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려면 학생의 장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서 자신의 수업을 고민하는 자기 반성적 실천이 뒤따라야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	(교육 과정 편성·운영) 경험선정 원리 잠재적 cur.	① 기회·만족의 원리 [2점]	㉠ 기회의 원리: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 만족의 원리: 학습경험이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활동에서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것	㉠ 충분한 경험의 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모둠활동에 제공된 학습경험에 흥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4점	교육 과정
		② 잠재적 cur. 개념·결과 [2점]	㉠ 개념 ㉡ 결과	㉠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은연중에 학습하는 경험 ㉡ 부정적 태도나 경험 ⇒ 모둠활동이 의도한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 자신이 집단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소외감이나 수치심을 경험		
		※ 주제와의 연계	교사가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적 실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학습경험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선정하는 신중한 배려			

(평가도구의 제작) 척도법·신뢰도 추정방법	① 리커트 척도 (명칭·유의점) [2점]	㉠ 명칭 ㉡ 진술문 작성 유의점	㉠ 리커트 척도 ㉡ 문항을 간단명료하게 진술	4점	교육 평가
	② 문항내적 합치도 (명칭·개념) [2점]	㉠ 명칭 ㉡ 개념	㉠ 문항내적 합치도 ㉡ 검사 속 문항을 각각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로 생각하고 그 합치성·동질성·일치성을 종합하는 신뢰도		
	※ 주제와의 연계	교사가 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때 평가 대상의 특성에 맞는 평가도구를 제작하고 그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성찰이 요구			
(변혁적 지도성) 명칭과 신장방안	① 변혁적 지도성(명칭) [1점]	명칭	변혁적 지도성	3점	교육 행정
	② 신장방안 (2가지) [2점]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동학년 협의회 내실화	㉠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 봄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급 조직의 문화도 변혁 ㉡ 각 학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혁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문제해결력과 지식을 공유하고 교사 각자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높여 나가도록		
	※ 주제와의 연계	교사의 수업 개선이 보다 혁신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을 대하고 상황 자체를 변혁할 수 있는 변혁적 지도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야			

제공: 권지수 교수

최근 학생의 행복교육을 증시함에 따라 교사의 수업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 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 요구된다. 제시문의 성찰 내용을 토대로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 을 논의하고자 한다.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성찰적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를 때, A, B 학생의 공통적인 강점 지능은 대인관계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이다. 대인관계 지능은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지능으로, 타인의 기분, 동기, 의도를 구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A, B 학생 모두 다른 학생을 이해하며 모둠활동에 적극적인 것은 대인관계 지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C 학생은 모둠활동에 소극적이다. 이런 C 학생에게 김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는 자기주도나 자기조절이 가능한 프로젝트형 과제이다. 이 과제가 적절한 이유는 C 학생은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며 통제하는 능력인 개인내적 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려면 학생의 장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서 자신의 수업을 고민하는 자기 반성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교사의 수업 개선에서 주목할 부분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의 선정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타일러(R. Tyler)가 제시한 기획의 원리는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 교사의 첫째 물음에서 모둠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충분한 경험의 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만족의 원리는 학습경험이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활동에서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 교사의 둘째 물음에서 학생들은 모둠활동에 제공된 학습경험에 흥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잭슨(Jackson)에 따르면,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은연 중에 학습하는 경험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 칭한다. 이에 근거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 는 모둠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경험이다. 모둠활동이 의도한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 자신이 집단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소외감이나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적 실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학습경험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선정하는 신중한 배려이다.

평가도구를 제작하는 일도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적 실천의 중요한 항목이다. 김 교사가 언급한 척도법은 리커트(Likert) 척도이다. 리커트 척도는 모든 진술문에 반응하도록 한 다음 모든 진술문의 평점점수를 합산하여 정의적 특성 점수로 간주하는 종합평정법이다. 리커트 척도법을 적용하기 위해 진술문을 작성할 때에는 문항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해야 하

며, 중립적 진술문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문항이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피로감, 긴장을 유발하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평가를 실시할 때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은 문항내적 합치도이다. 이것은 검사에 포함된 문항들에 대한 반응이 일관성이 있는 정도를 말한다. 문항들에 대한 반응의 일관성은 문항들의 동질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동질성 계수라고 한다. 이처럼 교사가 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때 평가대상의 특성에 맞는 평가도구를 제작하고 그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성찰이 요구된다.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서는 지도성에 대한 반성적 실천도 필수적이다. 김 교사가 언급한 지도성은 변혁적 지도성이다. 변혁적 지도성은 구성원의 성장 욕구를 자극하여 동기화시킴으로써 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한다. 김 교사가 학교 내 동료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한다.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 봄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급 조직의 문화도 변혁해 나갈 수 있다. 둘째, 동학년 협의회를 내실화한다. 각 학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혁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문제해결력과 지식을 공유하고 교사 각각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높여 나가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교사의 수업 개선이 보다 혁신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을 대하고 상황 자체를 변혁할 수 있는 변혁적 지도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적 실천이 중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강점과 약점 능력을 파악해야 하며, 수업에서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경험을 배우지 않도록 학습경험의 선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평가도구 제작 시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특성에 알맞은 도구를 제작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상황을 변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을 대할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의 변혁적 지도성도 꾸준히 신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II 출제경향 및 기출분석

① 출제경향

작년에 비해 다소 평이한 수준(위커모형과 준거참조평가의 개인차 해석이 주요 변별력 요소), 4개 영역(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에서 골고루 출제+배점 기준 세분화+매우 정치하고 논리적인 문제 ⇒ 질 좋은 타당도가 높은 문제

1. 특이사항

모의문제에서 모두 출제 1순위로 강조하며 다루었던 문제들이며, 또 마지막 강의에서도 특별히 짚어주었던 논점들만 다 출제되었음

2. 내년 경향

올해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 높음

② 기출분석

1. 논술 주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 ⇒ 각 본문의 내용과 연계할 것(2점)

2. 논점분석

(1) 논점 1(위커 모형)

모고(9~11월 7회) 및 마지막 짝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특별히 강조

- ① 위커 모형의 명칭(1점) : 자연주의적 모형(실제적 모형, 속의 모형)
- ②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3점) : 단계와 특징,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서술해야 함 ⇒ 개인적 신념과 가치가 표방됨, 속의 과정이 강조됨, 실제적 상황이 강조됨 / 예비답안: 대화 강조, 합의 강조, 상황과 맥락 강조, 현실적 교육과정 개발 등

(2) 논점 2(PBL)

모고(9~11월 10회) 및 마지막 짝기에서 교수방법론의 출제 가능성 1순위로 강조

- ① 학습자 역할(2점) : 협동학습자, 자기주도적 학습자
- ② 문제의 특성(1점) : 비구조화된 실제적 문제
- ③ 그 특성의 학습 효과(1점) :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 다각적인 해석능력 및 전략적 사고력, 문제해결적 능력, 가설추론적 능력 등

(3) 논점 3(준거참조·자기참조평가)

모고(7~8월 14회/9~11월 14회) 및 마지막 짝기에서 출제 가능성 특별히 강조

- ① 평가유형 명칭(1점) : 준거참조평가(준거지향평가, 목표지향평가, 절대평가)
- ②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1점) : 교육의 누적적 실패에서 오는 결과이며, 이 개인차는 교육의 작용과 노력에 의해 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신념(즉, 교육적 노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봄) ⇨ 반면, 표준참조평가는 집단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차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며, 개인차가 클수록 교육평가가 성공적인 것으로 봄

- ③ 평가유형 개념(2점) : 능력지향평가(학생의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 성장지향평가(초기의 성취수준에 비추어 얼마나 성장하였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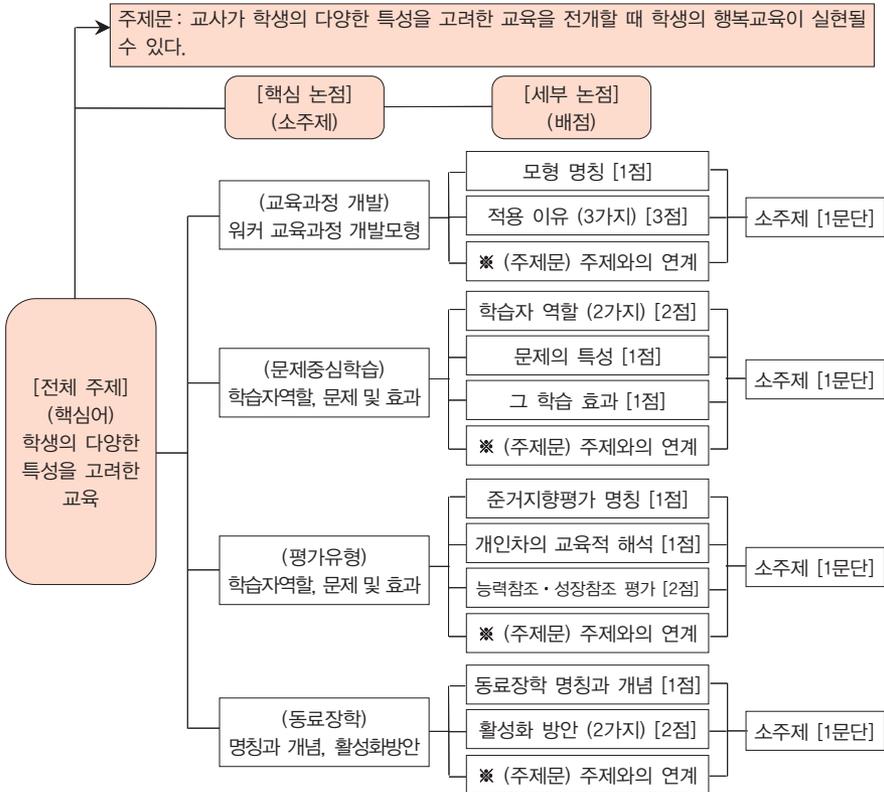
(4) 논점 4(동료장학)

모교(9~11월 7회 및 29회) 및 마지막 짝기에서 출제 가능성 특별히 강조

- ① 교내장학 유형의 명칭과 개념(1점) : 동료장학(교사의 수업개선과 전문적 성장을 위해 둘 이상의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장학)
- ② 동료장학 활성화 방안(2점) : 동료 간 수업연구 활성화, 공동의 관심사나 주제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 활성화, 경력교사와 초임교사 간 멘토링 활성화, 동학년이나 동교과 교사 간의 협의 장학 등 다소 광범위

문제 파악

[도해조직자(graphic organizer)]



[배점 분석(내용 영역)]

〈 배 점 〉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박 교사가 제안하는 워커(D. F. Walk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 [4점]
 - ⇒ 자연주의적 모형의 명칭(1점),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3점) [4점]
 - 박 교사가 언급하는 PBL(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역할 2가지,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과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1가지 [4점]
 - ⇒ 학습자의 역할 2가지(2점), 문제의 특성(1점)과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1가지(1점) [4점]
 -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유형의 명칭과 이 유형에서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 1가지, 김 교사가 제안하는 2가지 평가유형의 개념 [4점]
 - ⇒ 준거참조평가의 명칭(1점)과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1점), 능력참조평가 · 성장참조평가 개념(2점) [4점]
 -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장학 유형의 명칭과 개념, 그 활성화 방안 2가지 [3점]
 - ⇒ 동료장학의 명칭과 개념(1점), 그 활성화 방안 2가지(2점) [3점]

[답안 구성]

[주제문] 교사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전개할 때 학생의 행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전체 주제 (대주제)	핵심 논점 (소주제)	세부 논점 (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제시문 분석·적용)		배점	출제 영역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	(교육과정 개발) 위계 교육 과정 개발 모형	① 모형 명칭 [1점]	자연주의적 교육 과정 개발 모형	토대, 속의, 설계의 단계로 구성되며, 실제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자연스런 과정을 보여줌	4점	교육 과정
		② 적용 이유 (3가지) [3점]	㉠ 개인적 신념과 가치가 표방 ㉡ 속의 과정이 강조 ㉢ 실제적 상황이 강조	㉠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 교과를 중시하는 의견, 환경을 중시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표방 → 공감대를 형성 ㉡ 의견 조정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서 가장 유망한 교육 과정 실천 대안을 검토 ㉢ 타일러시의 이론적 탐구에서 벗어나서 학교, 학급, 학생을 둘러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구체화		
		※ 주제와의 연계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되려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표방되고 타당한 방법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문제중심 학습) 학습자역할 문제 및 효과	① 학습자역할 (2가지) [2점] ② 문제의 특성 [1점] ③ 그 학습효과 [1점] ※ 주제와의 연계	① 협동학습 수행 ㉠ 자기주도적 학습 수행	㉠ 협동학습 수행 ㉡ 자기주도적 학습 수행	㉠ 협동학습 → 문제와 관련된 가설 설정 → 사실 확인, 학습 과제 설정 →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 자기주도적 학습 →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분석 → 자신에게 부여된 학습과제 해결 → 그 결과 그룹 구성원들과 공유	4점	교수 방법 및 교육 공학
		비구조화된 실제적 문제	다양한 접근과 해결이 가능			
		학습 효과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 다각적인 해석능력과 전략적 사고력, 문제해결적 능력이 함양			
		PBL과 같은 학습자의 학습흥미와 수업참여가 보장되는 수업 설계, 운영 →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수업장면에서 실천				

(평가유형) 준거지향, 능력지향, 성장지향	① 준거지향 평가 명 칭 [1점]	준거지향평가	평가기준을 학습목표에 두고 학생의 학습목표 도달 여부를 중시	4점	교육 평가
	② 개인차의 교육 적 해석 [1점]	개인차	교육의 누적적 실패에서 오는 결 과이며, 이 개인차는 교육적 노 력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봄		
	③ 능력참조 평가/ 성장참조 평가 [2점]	㉠ 능력참조평가 ㉡ 성장참조평가	㉠ 학생의 능력에 비추어 얼마 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관심 을 두는 평가 ㉡ 초기의 성취수준에 비추어 얼마나 성장하였느냐에 관 심을 두는 평가		
	※ 주제와의 연계	학생의 개별적 성취수준이 강조되는 다양한 평가 도구 개발, 시행 → 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비로소 그 교육적 효과			
(동료장학) 명칭과 개 념 활성화 방안	① 동료장학 명칭과 개 념 [1점]	동료장학	교사의 수업개선과 전문적 성 장 → 둘 이상의 교사들이 서 로 협동하는 장학	3점	교육 행정
	② 활 성 화 방안 (2가지) [2점]	㉠ 동료 간 수업연 구를 활성화 ㉡ 공동의 관심사 나 주제를 중 심으로 한 협 의회를 활성화	㉠ 수업과 관련된 연구과제 공 동으로 선정, 공개수업을 통해 문제점 개선, 경력교 사와 초임교사가 짝을 이루 어 멘토링 장학 ㉡ 동료교사 간에 공식적이거 나 비공식적인 일련의 협의 를 통하여 서로 경험과 정 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 며 공동의 관심사나 과업을 해결		
	※ 주제와의 연계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이 보다 내실 화되려면 동료적 과정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학교 교육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제공: 권지수 교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의 행복교육을 중시함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교사는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의 학습흥미와 수업참여를 높이는 수업과 평가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동료장학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 교사가 제안하는 워커(Walk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자연주의적 모형은 토대, 숙의, 설계의 단계로 구성되며, 실제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자연스런 과정을 보여준다.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신념과 가치가 표방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 교과를 중시하는 의견, 환경을 중시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표방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숙의 과정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의견 조정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서 가장 유망한 교육과정 실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실제적 상황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타일러 식의 이론적 탐구에서 벗어나서 학교, 학급, 학생을 둘러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 근거할 때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되려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표방되고 타당한 방법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개발되면 교사는 수업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박 교사가 언급한 PBL(문제중심학습)은 문제로부터 학습이 시작되므로 학습자의 역할과 문제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PBL에서 학습자의 역할을 제시하면 첫째, 협동 학습을 수행한다. 문제가 제시되면 학습자들은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와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학습과제를 설정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을 전개한다. 학습자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학습과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그룹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한편, PBL에 적합한 문제는 다양한 접근과 해결이 가능한 비구조화된 실제적인 문제라는 특성이 있다. 문제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가 유발되고, 다각적인 해석능력과 전략적 사고력, 문제해결적 능력이 함양되는 학습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교사는 PBL과 같은 학습자의 학습흥미와 수업참여가 보장되는 수업을 설계하여 운영할 때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수업장면에서 실천될 수 있다.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수업에 반영되면 평가의 방향을 달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유형은 준거참조평가이다. 준거참조평가는 평가기준을 학습목표에 두고 학생의 학습목표 도달 여부를 중시하는 평가유형이다. 이런 준거참조평가에서 개인차는 교육의 누적적 실패에서 오는 결과이며, 이 개인차는 교육적 노력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김 교사가 제안하는 능력참조평가와 성장참조평가는 평가의 개인화를 강조하는 자기참조평가의 유형에 해당한다. 능력참조평가는 학생의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이다. 개인의 능력과 수행결과를 비교하여 성적을 판정한다. 성장참조평가는 초기의 성취수준에 비추어 얼마나 성장하였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이다. 현재의 성취수준과 과거의 성취수준 간의 차이점수로 성적을 판정한다. 이런 점에 근거할 때 학생의 상대적 위치보다는 개별적 성취수준이 강조되는 다양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시행할 때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비로소 그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사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료교사 간의 협력과 공유가 필요한 이유다.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장학은 동료장학이다. 동료장학이란 교사의 수업개선과 전문적 성장을 위해 둘 이상의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장학을 말한다. 동료장학을 활성화하려면 첫째, 동료 간 수업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동료교사들이 수업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공개수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경력교사와 초임교사가 짝을 이루어 멘토링 장학을 실천할 수 있다. 둘째, 공동의 관심사나 주제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를 활성화한다. 동료교사 간에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일련의 협의를 통하여 서로 경험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며 공동의 관심사나 과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이 보다 내실화되려면 교사 상호 간에 함께 협동하는 동료적 과정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학교교육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사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전개할 때 학생의 행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생의 각기 다른 개별적 특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의 학습흥미와 수업참여를 높이는 수업과 평가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교사의 자율성에 기초한 동료장학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교육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권지수 교육학

합격
가이드북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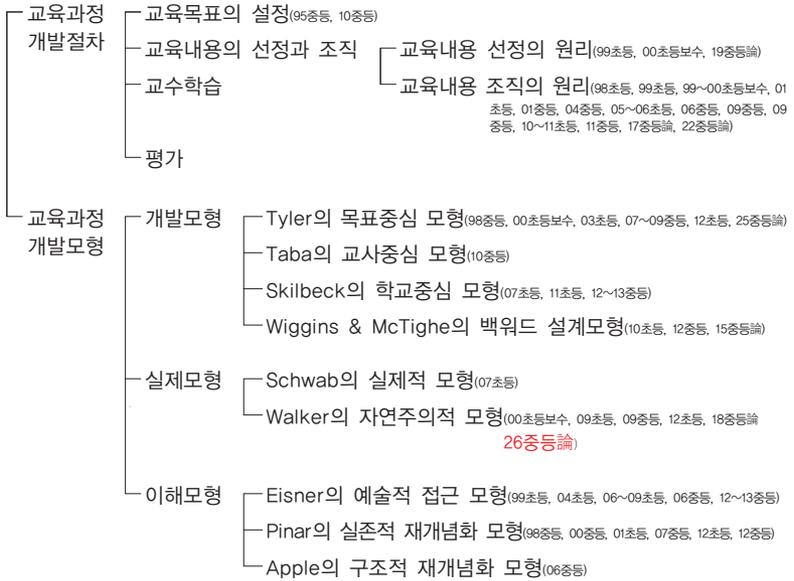
VII

교육학 논술 Thinking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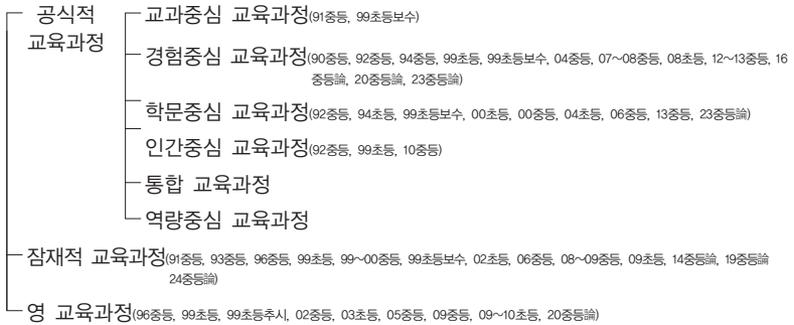
1. 교육과정 Thinking Map
2. 교육심리학 Thinking Map
3. 교육공학 및 교육방법 Thinking Map
4. 교육평가 Thinking Map
5. 교육행정학 Thinking Map
6. 생활지도와 상담 Thinking Map
7. 교육사회학 Thinking Map
8. 교육철학 Thinking Map

① 교육과정 Thinking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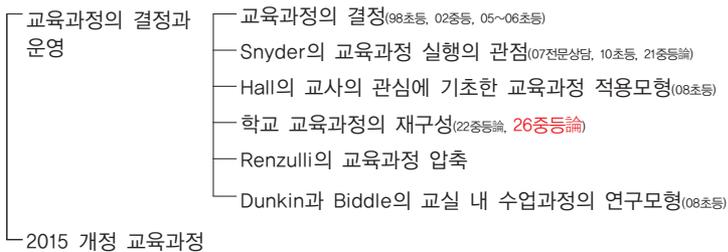
1. 교육과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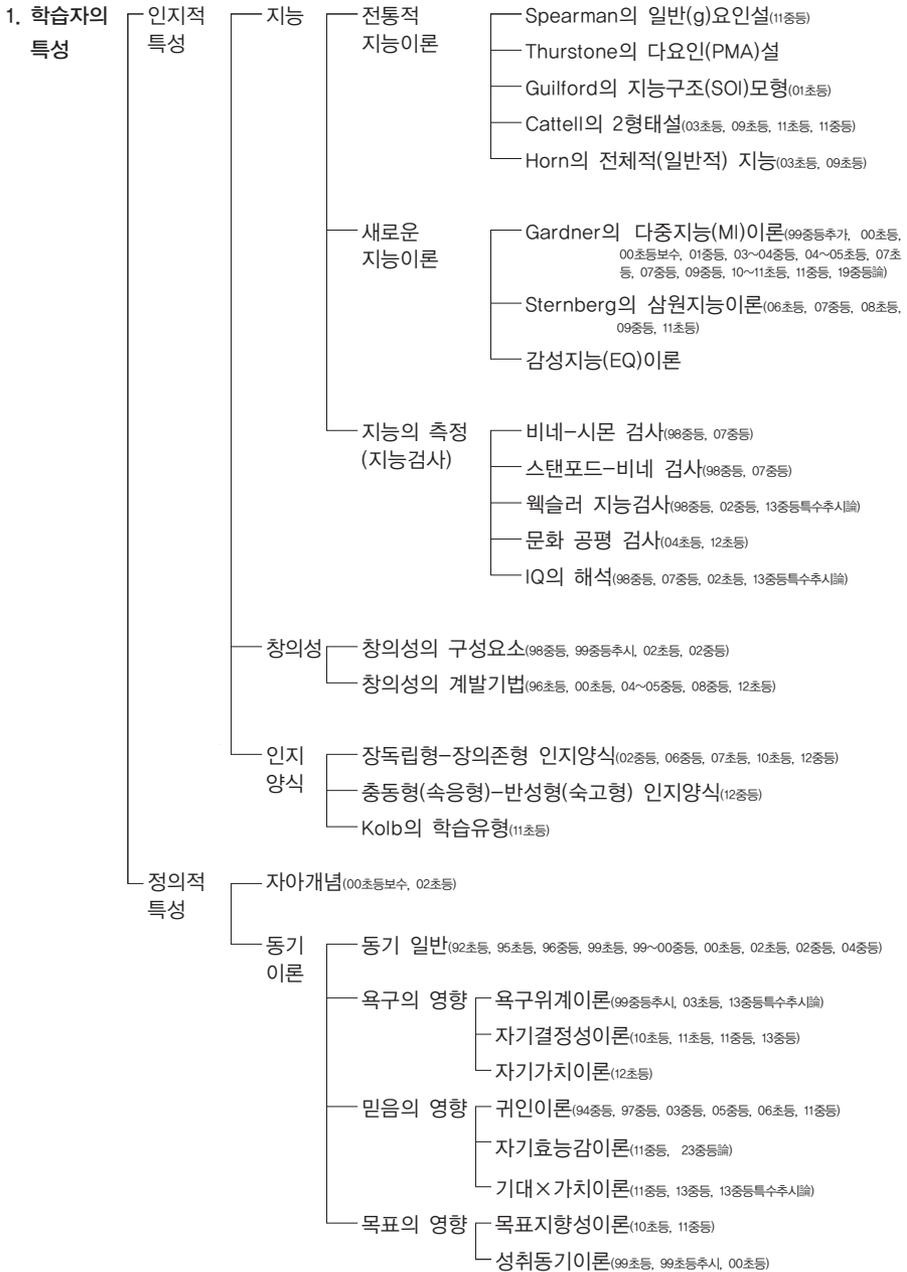
2. 교육과정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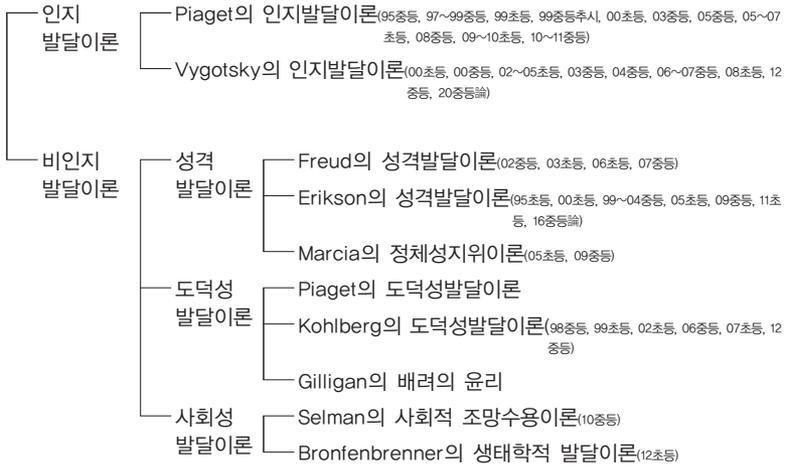
3. 교육과정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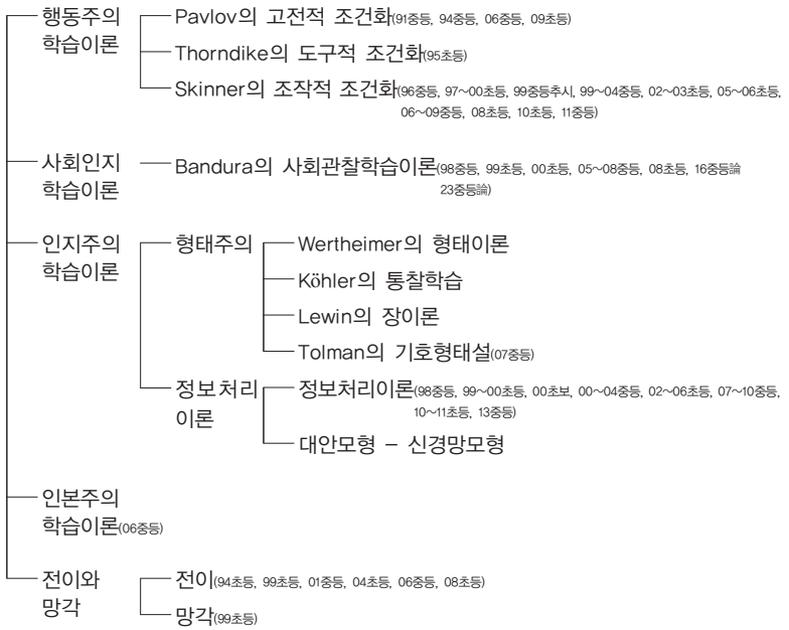
② 교육심리학 Thinking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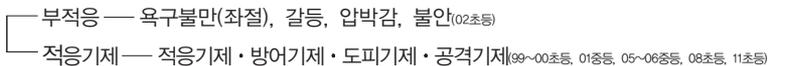
2. 학습자의 발달(발달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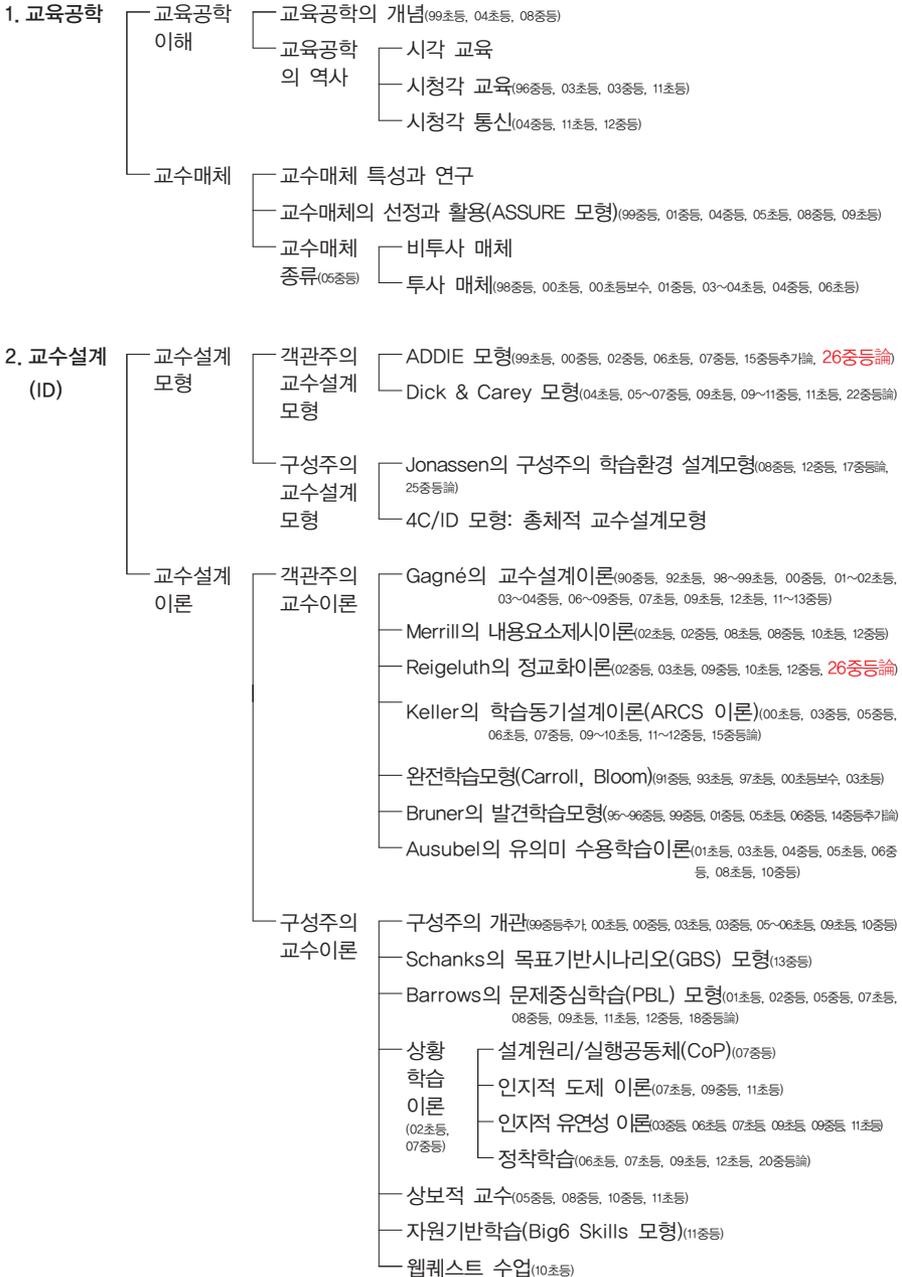
3. 학습자의 학습(학습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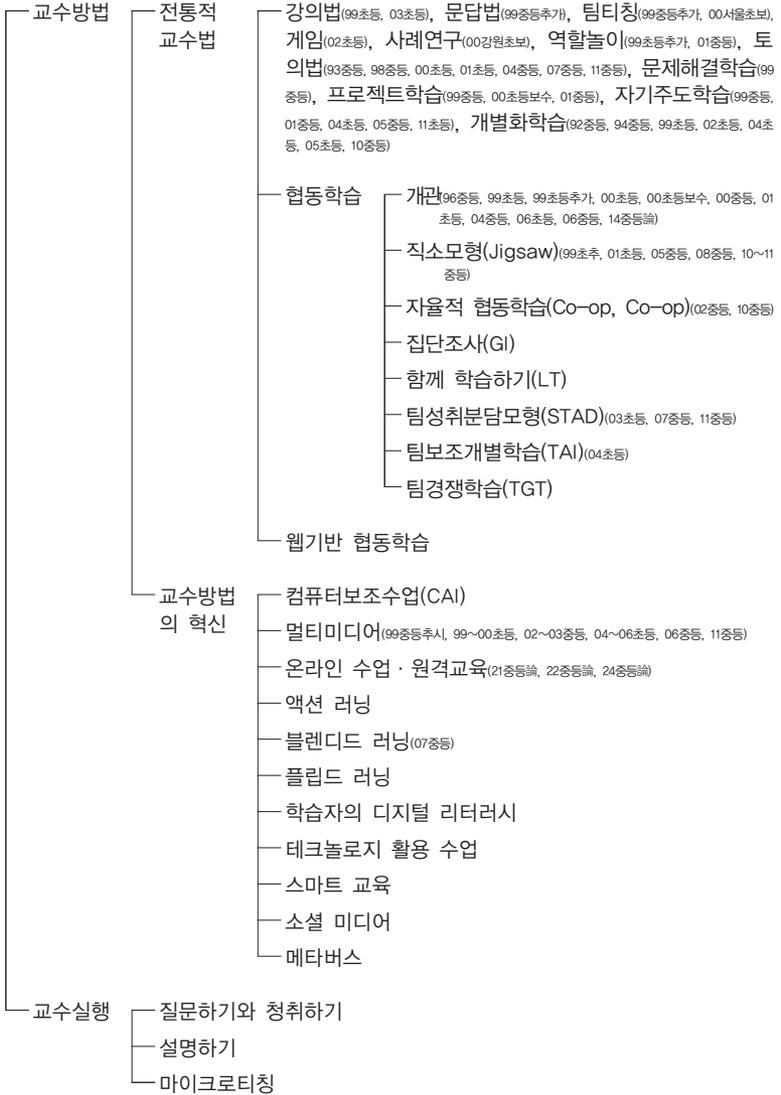
4. 적응과 부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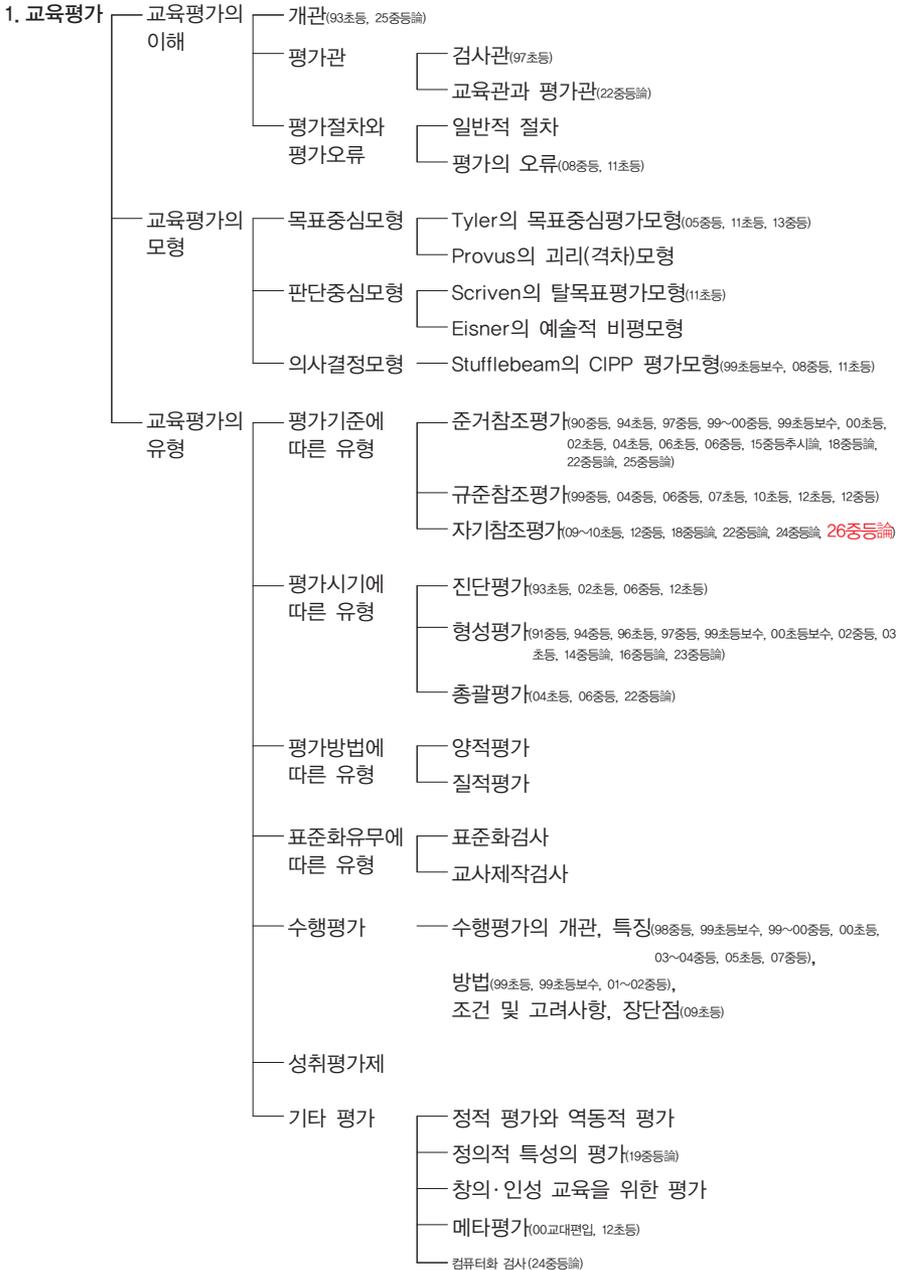
③ 교육공학 및 교육방법 Thinking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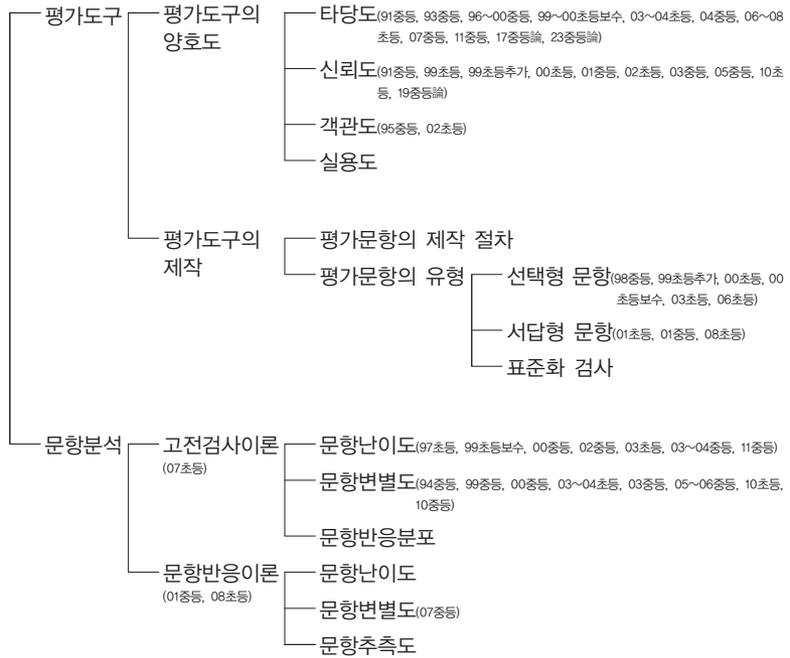
3. 교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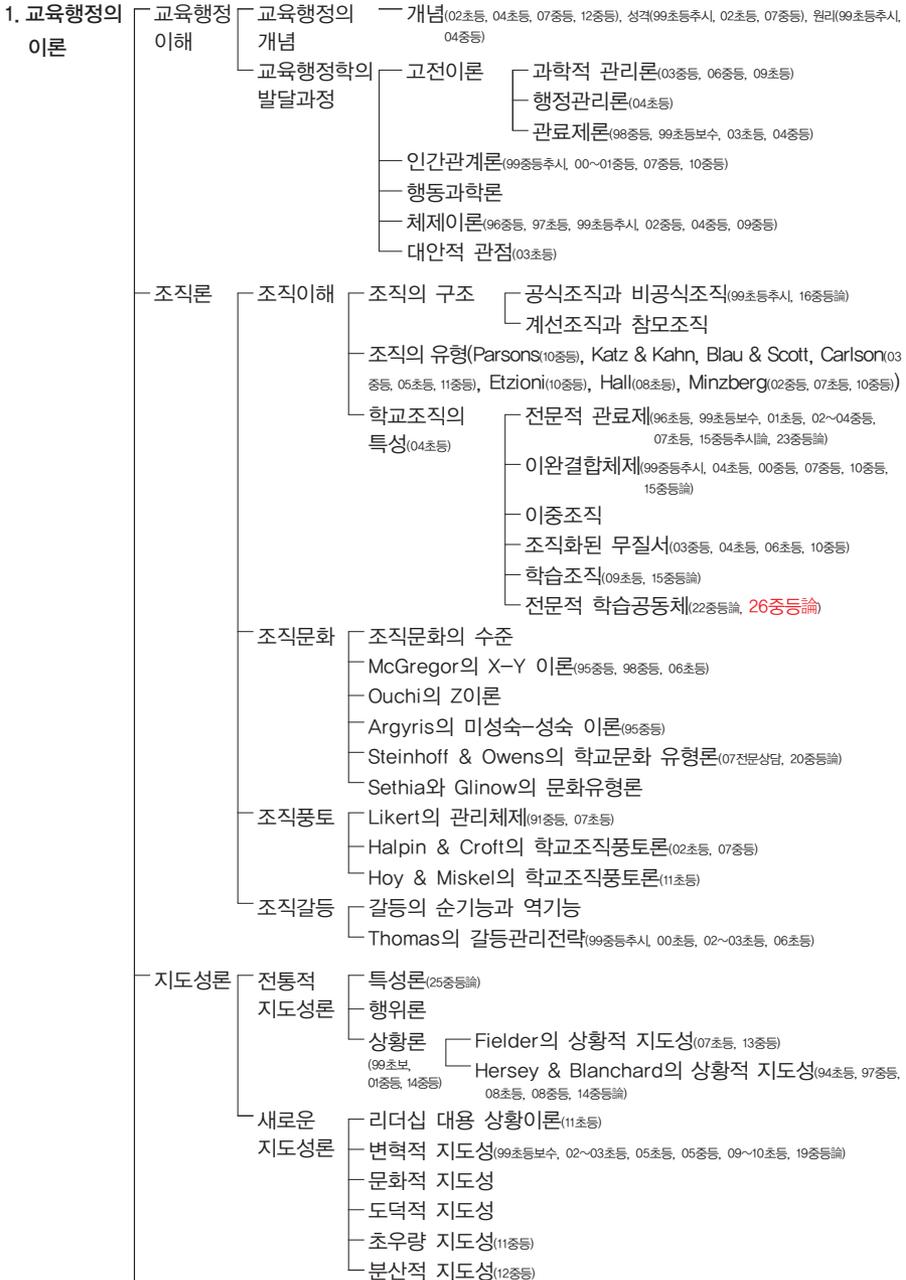
4 교육평가 Thinking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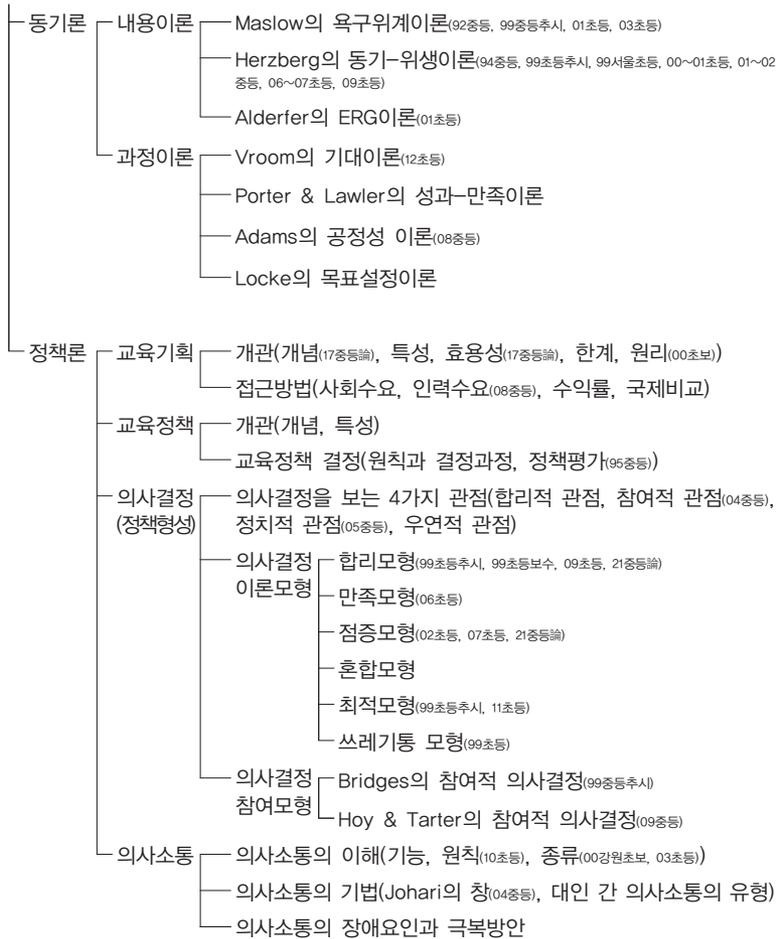


2. 평가도구
(검사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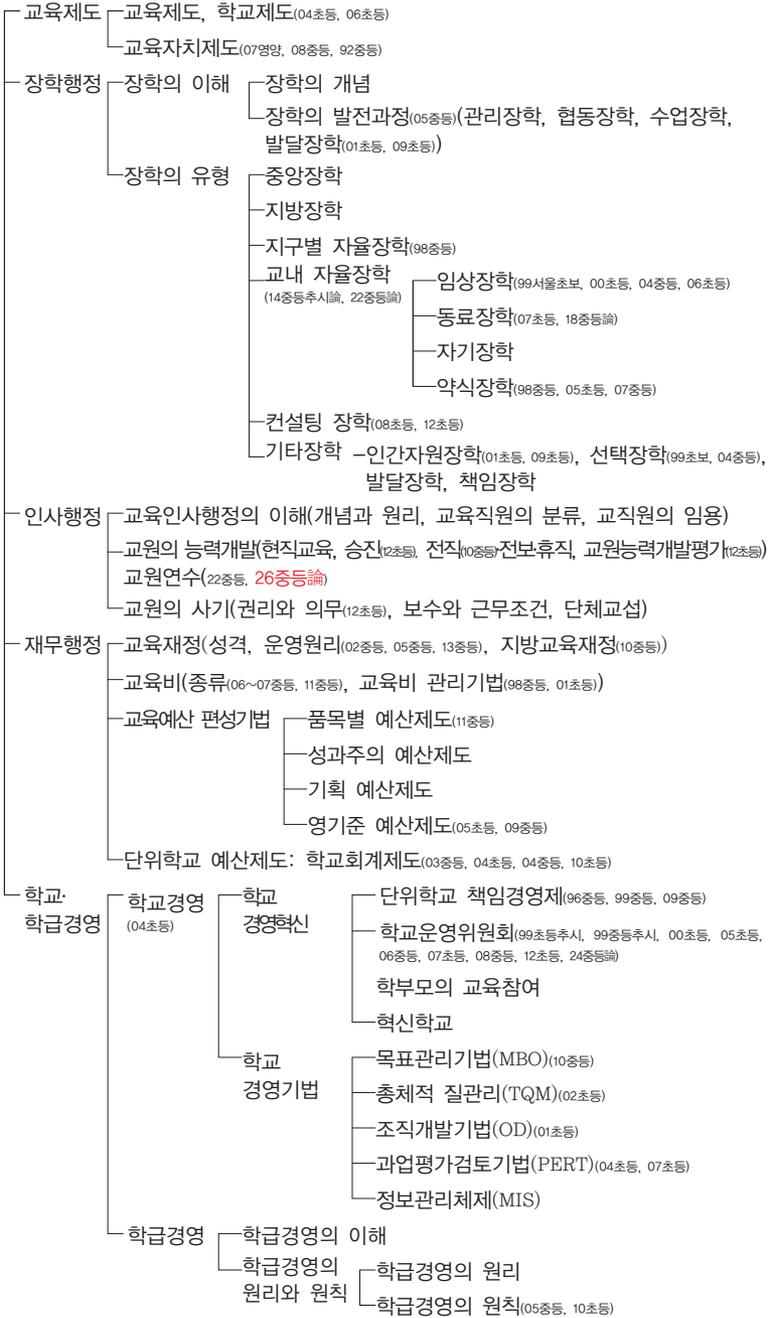


5 교육행정학 Thinking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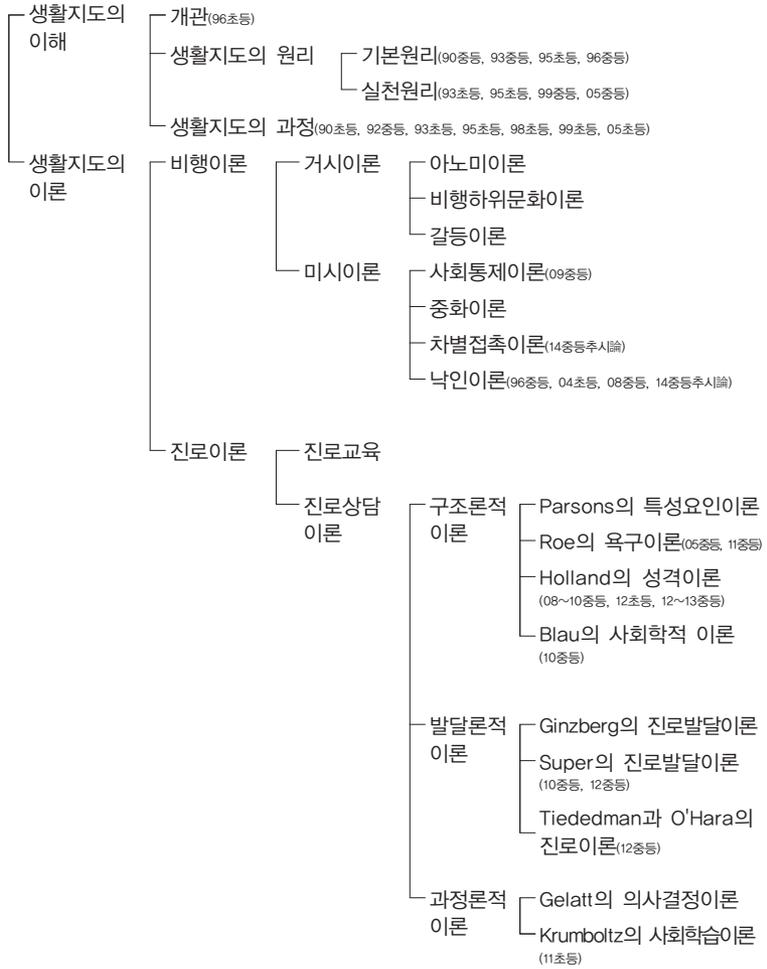


2. 교육행정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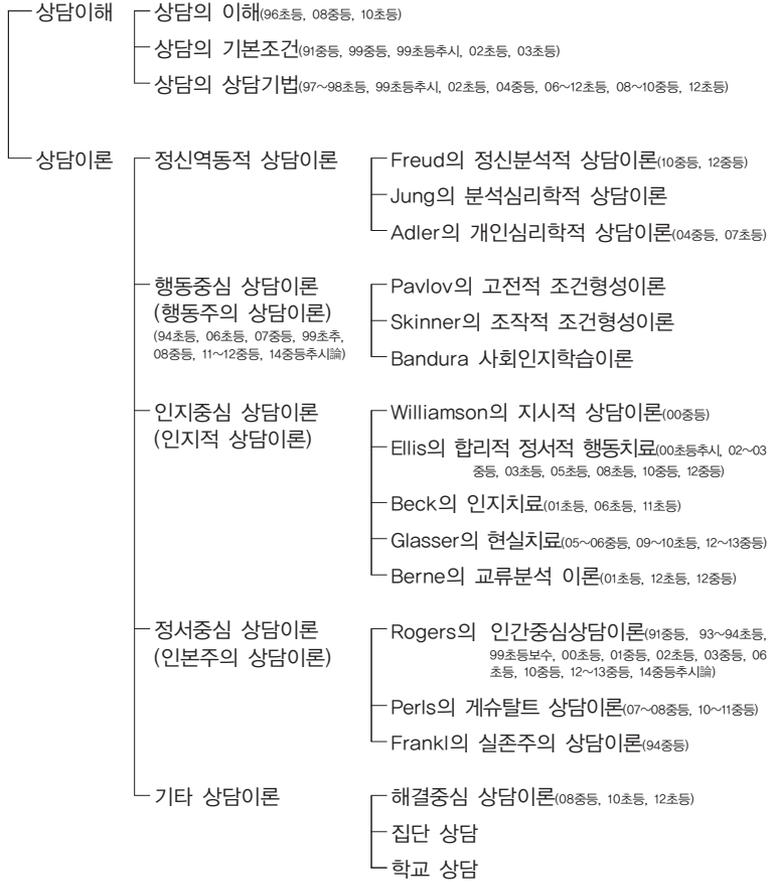


6 생활지도와 상담 Thinking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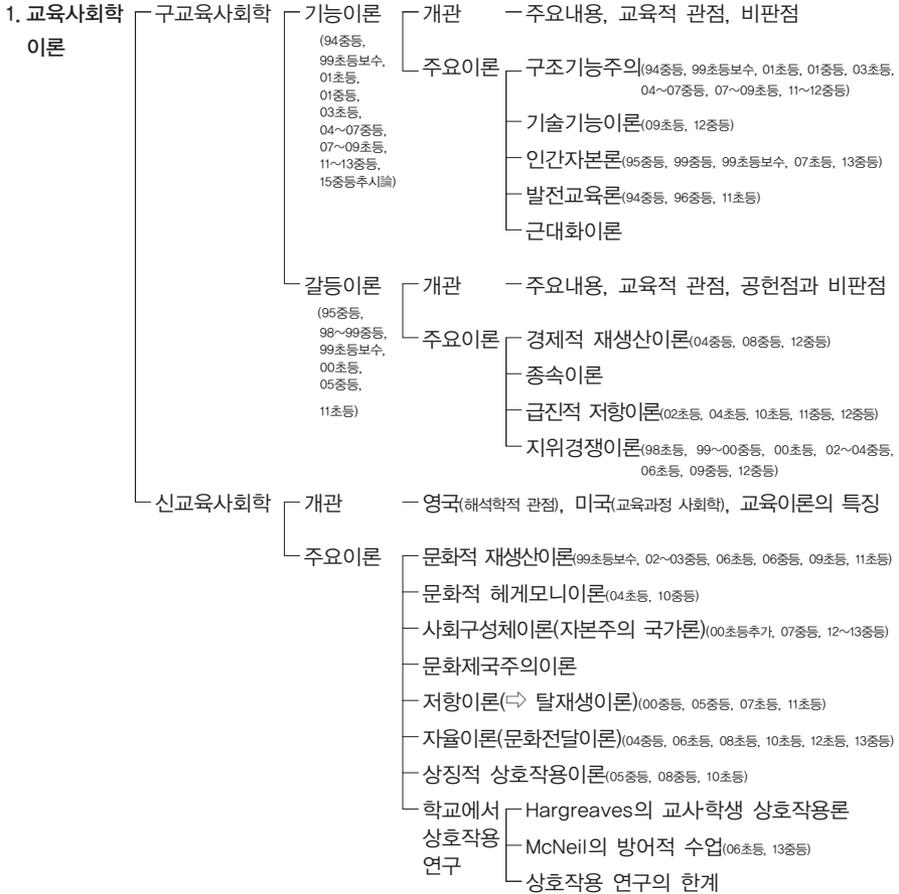
1. 생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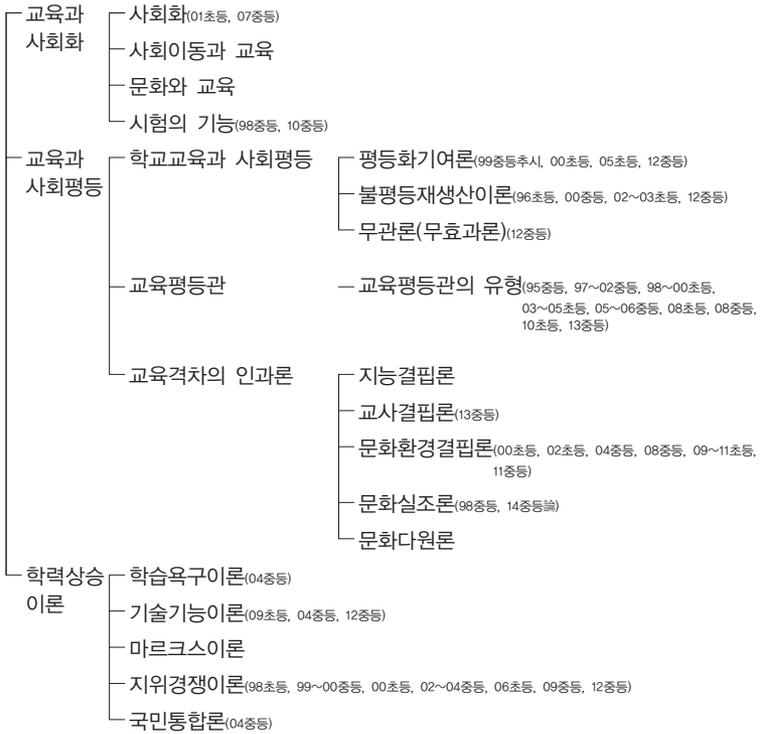
2. 상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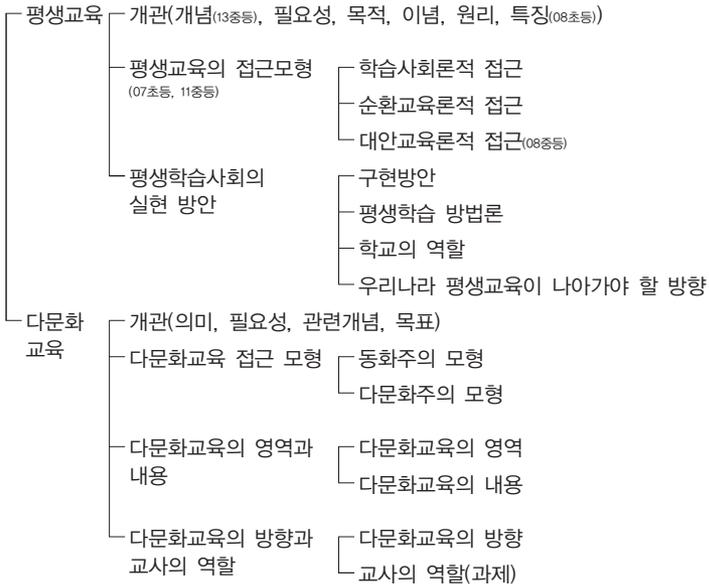
7 교육사회학 Thinking Map



2. 교육과 사회



3. 평생교육과 다문화교육



8 교육철학 Thinking Map

